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3343-01

GUIDE BOOK



해외건설  
완전  
정복

개정판

# 해외건설 완전 정복

개정판  
GUIDE BOOK

## CONTENTS



### 해외건설의 이해

I

1. 해외건설이란? .....	8
가. 해외건설의 역사.....	8
나. 해외건설의 위상.....	14
다. 무역과 다른 프로세스 .....	15
라. 현지 특수성 .....	17
마. 국제유가와 큰 상관관계.....	20
바. 관리집약적 산업.....	21
사. 금융조달의 중요성 증가.....	22
☞ 단원 요약 .....	24
2. 해외건설 시장동향.....	25
가. 해외건설시장 규모 및 특징 .....	25
나. 우리기업의 위치.....	27
다. 아시아지역 시장 동향 .....	28
라. 중동지역 시장 동향 .....	31
마. 선진권역 및 신흥시장 동향 .....	34
☞ 단원 요약 .....	37
3. 해외건설 트렌드 .....	38
가. 참여형태별 프로젝트 사례.....	38
1) 도급형 프로젝트 .....	39
2) 개발형 프로젝트 .....	42
나. 기후변화 대응 신사업 분야 .....	49
다. 모듈러 건설 .....	51

### 해외건설사업 수행절차

II

라. Digital Transformation.....	52
마. 해외건설 영역 확장 가능성 .....	55
☞ 단원 요약 .....	57
4. 해외건설촉진법 .....	58
가. 개요 .....	58
나. 주요 내용.....	59
1. 도급사업 진행절차.....	64
가. 사업정보 입수단계 .....	65
나. 사전자격 심사(PQ)단계 .....	66
다. 입찰 참여단계 .....	69
라. 계약단계.....	70
마. 시공단계.....	73
바. 완료단계.....	81
☞ 단원 요약 (도급형 프로젝트 수행 절차) .....	83
2. 개발사업 진행절차.....	84
가. 사업의 발굴 .....	84
나. 사업의 구상 .....	85
다. 사업 구조화와 6 Enablers .....	86
라. 협상과 Bankability(금융조달가능성) 확보 .....	87
마. 사업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 .....	88
바. 건설 단계.....	91
사. 운영 단계.....	91
☞ 단원 요약 (개발형 프로젝트 수행 절차).....	93
☞ 단계별 정부 지원사업 Guide Map .....	96
1.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97
가. 시장개척지원사업.....	97
나.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	99
다.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지원사업.....	100
라.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학위과정 운영 .....	102
마.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 사업.....	103

### 정부 지원사업

III

바.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지원사업 .....	105
사. 국토교통부 ODA사업지원 .....	106
아.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108
자. GICC,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	110
차.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112
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13
타. K-CITY Network(계획형, 실증형).....	114
<b>2. 외교부 지원사업 .....</b>	<b>116</b>
가. 무상원조사사업 .....	116
나. KOICA 글로벌연수사업.....	119
<b>3. 기획재정부 지원사업.....</b>	<b>120</b>
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120
나.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	122
다. 유상원조 사업 .....	123
<b>4. 환경부 지원사업 .....</b>	<b>128</b>
가.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	128
나.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29
다. 환경기술 해외 현지 실증 지원사업.....	131
라. 환경협력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132
<b>5. 해양수산부 지원사업.....</b>	<b>134</b>
가.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사업 .....	134
나.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36
다.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	137
라.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138
<b>6. 산업통상부 지원사업.....</b>	<b>139</b>
가.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	139
나.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140
다.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141
라. 에너지산업협력 개발지원.....	142

## 재외공관 지원분야

IV

<b>7. 보건복지부.....</b>	<b>144</b>
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144
나. 의료 해외진출 GHKOL 컨설팅 지원사업.....	145
다.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146

<b>1. 기업 요청사항 .....</b>	<b>150</b>
가. 공통 요청사항 .....	150
나. 기업별 요청사항.....	151
<b>2. 공관 지원분야 .....</b>	<b>154</b>
가. 프로젝트 단계별 지원 .....	154
나. 네트워킹 지원 .....	156
다. 정보수집 및 사전경보 제공 .....	157
라. 문제해결 외교 지원 .....	157

## 참고자료

V

<b>1. 해외건설 유관기관 활용 Tip .....</b>	<b>160</b>
가. 국내기관.....	160
1) 해외건설협회(ICAK).....	160
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163
3)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ECA).....	166
나. 해외기관(주요 MDB).....	173
1) 세계은행그룹 .....	173
2) 아시아개발은행 .....	176
3) 미주개발은행 .....	178
5) 유럽부흥개발은행.....	182
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183
<b>2. 필수 용어집 .....</b>	<b>184</b>
<b>3. 해외건설 지원관련 기관정보.....</b>	<b>202</b>



◀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만(현대건설)  
▼ 이집트 미도르 정유플랜트(디엘이앤씨)



# 해외건설의 이해

- 1 해외건설이란?
- 2 해외건설 시장동향
- 3 해외건설 트렌드
- 4 해외건설촉진법

PART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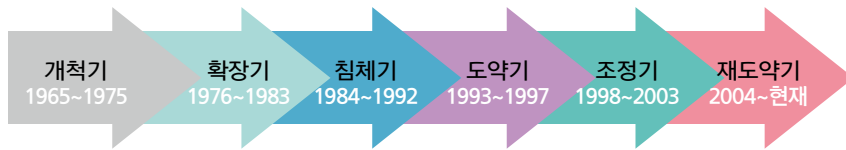


# 1 해외건설이란?

## Check Point

- 무역과 다른 프로세스
- 기후, 언어, 계약문화 등 현지 특수성
- 국제유가와 큰 상관관계
- 노동집약적 산업(단순 토건공사)→관리 집약적 산업(EPC 대형화)
- 금융조달의 중요성 증가

## 가. 해외건설의 역사



### 개척기

1965~1975



태국 파타니-나라티와트 고속도로 사업 (1965)



일본 해군 시설 토목공사 사업 (1967)

- 6·25전 후 미국이 발주하는 군납공사로 근대적인 건설기술을 축적한 우리 건설산업은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와트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해외시장에 첫 진출

- 이후 베트남 전쟁(1965~1975)에 참전하면서 미군 시설공사 등으로 특수를 향유 함
- 주요 수주 지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가 78%를, 공종별로는 토목이 전체의 67%를 차지했으며, 이 시기에는 저비용 단순 시공인력을 투입하는 도로 및 건축공사 중심으로 해외공사 수행
-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1호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아시아 건설시장에서 중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베트남 등지에서 벌어들인 외화수입이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원 역할을 담당하여 해외건설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



사우디아라비아 알올라-카이비 구간도로 사업 (1973) : 중동 진출 최초 공사로 제 4차 중동전의 영향 등으로 유가와 자재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완공으로 사우디 정부로부터 기술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음

### 확장기

1976~1983



사우디아라비아 알코바 1,2지구 공공주택 사업(1978)



사우디아라비아 국방 항공성 본청 건설 사업 (1980)

- 이 시기에는 1973년, 1978년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로 인해 한국 경제는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월남 패망과 주한미군 철수문제까지 거론됨에 따라 전략물자의 자체 생산과 중화학공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음
- 하지만 이 시기에,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중동 산유국으로 막대한 외화가 유입됨에 따라 중동에서 인프라 수요 폭증
- 한국 기업들은 1981년 137억불을 수주하여,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해외건설 강국으로 등장 함
- 이후 3년간 100억불 이상 수주하여 오일 쇼크로 인한 충격 흡수는 물론,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 (중동 지역이 전체 수주의 92% 차지)
- 이 시기의 특징은 정부 차원에서 해외건설을 전략산업으로 인식하여 지원책을 강화함에 따라, 해외건설촉진법 제정(1975.12), 공동지급보증제의 확립, 해외건설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등의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했으며, 도급허가기준 제정(1978.9), 자율조정제도(1979), 진출지역제한제도(1980.10) 등 정부의 다양한 시장개입 정책도 시행

침체기

1984~1992

- 석유 공급 과잉 및 고유가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중동지역의 발주물량 감소



싱가포르 칼랑 실내 경기장 건설 사업 (1987)



이란 타브리즈 석유화학단지 올레핀 공장 사업 (1992)

- 국내에서는 건설기업의 기술적 한계, 중동시장 중심의 수주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신시장 개척 성과 미흡과 국내 건설노임의 급상승 등으로 가격 경쟁력 우위 요인이 감소하여, 한국 해외건설산업 최대 위기 직면
- 이에 따라, 1984년부터 해외수주가 감소하고, 1988년에는 사상 최저인 16억불을 기록했으며, 평균 20~30억불의 저조한 수주 실적 유지
- 이 시기의 해외건설 수주비중은 중동시장 71%, 아시아가 24%로 두 지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종별로는 토목이 전체 수주의 46%, 건축이 31%, 산업설비 18%로 토목, 건축이 해외건설시장 주도

도약기

1993~1997



인도네시아 항나담 공항 3단계 건설 사업(1993)



홍콩 HOK UN 재개발 2단계 사업 (1997)

- 1980년대 후반부터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던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해외건설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며, 연평균 90억불 규모의 수주를 기록
- 1996년에는 1983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불을 재돌파하여 108억불 달성하고, 1997년에는 140억불까지 수주하는 등 해외건설이 호조세를 시현
- 이 시기에는 시장 다변화가 진전되어 수주가 중동 중심에서 아시아로 전환, 아시아의 수주점유율이 64.4%로 상승하였으며, 공종별로도 과거 단순 토목, 건축공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 공사의 수주가 전체의 33.7%까지 증대
- 아울러, 이 시기에는 투자개발사업 비중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체의 18.6%에 이를 만큼 활발하게 추진 됨



**조정기** 1998~2003

- 이 시기는 대외적으로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주 감소, 대내적으로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 신인도 및 해외 진출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보증 발급 및 시공사금 조달 등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한 결과, 또 다시 위기에 봉착
- 이에 따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던 투자개발사업이 도약기의 18.6%에서 1.8%로 급락하였으며, 토목·건축 공사의 경쟁력도 하락하여 양 공종 수주점유율이 38.6% 수준에 그침
- 하지만, 대부분 EPC 턴키방식으로 수행되는 플랜트 건설공사는 업계의 수익성 위주의 영업전략과 맞물려 해외 건설의 주 공종으로 등장하며 57.9%의 점유율 기록



아람에미리트 B-21지구 하얏트 호텔 및 아파트 건설 사업 (1999)

- 아시아 시장의 경기침체와 유가 상승으로 2001년부터 주요 수주 지역이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다시 전환
- 1999년에는 중남미, 중동지역의 대형공사 수주에 힘입어 92억불의 수주 실적 기록

**재도약기** 2004~현재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중동 산유국들은 벌어들인 대규모 오일머니를 석유화학 설비와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함
- 반면, 국내 건설경기의 위축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 해외건설 기업들이 해외에 보다 활발하게 진출한 결과 2007년에 397억불, 2008년에 476억불을 수주하였고, 2010년에는 UAE 원전(186억불) 수주로 사상 최대인 716억불을 달성함



베트남 다낭시 다펍 국제신도시 건설 사업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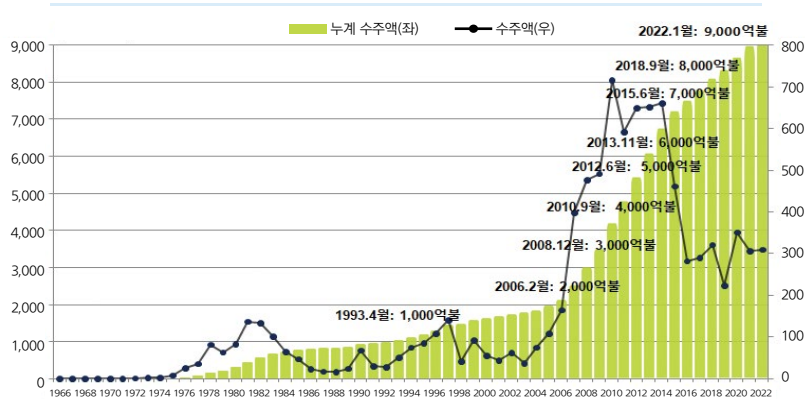


베트남 NSRP 정유공장 해상 공사 (2013)

- 2011~2014년 동안에도 연간 수주액이 650억불 내외의 높은 수주 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2010년 9월 기준 4,000억불이던 누계 수주액이 2012년 6월 5,000억불, 2013년 11월 6,000억불, 2015년 6월 7,000억불, 2018년 9월 8,000억불로 크게 증가함
- 지역별 수주(2014~2018)는 중동과 아시아가 각각 52%와 32%의 점유율로 한국 해외 건설의 핵심시장으로서의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플랜트도 67%의 점유율로 주 공종의 입지를 공고히 함
- 한편, 201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발주 감소로 수주 점유율이 중동은 21%로 급감한 반면,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프라 등의 발주 증가로 아시아는 56%로 크게 증대되었으며, 연간 수주액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223억불을 기록

- 하지만, 2020~2022년간 글로벌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300억불 이상을 수주하면서 수주 증가세로 전환
- 해외건설 역사를 누계 수주액으로 확인해보면, 1993년 1,000억불 달성을 기점으로 2022년 1월 9,000억불 기록

해외건설 누계수주 추이(단위: 억불)



## 나. 해외건설의 위상

- 해외건설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 주요 4개 수출 품목과 함께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5년 평균 해외건설 수주액(302억불)과 주요 수출액 비교 결과, 4위인 합성수지(239억불)보다 높고, 3위인 석유제품(424억불)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
  -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건설업, 엔지니어링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전 산업 평균 대비 각각 28%, 38% 높음
- \*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 엔지니어링(11.0), 건설업(10.2), 조선업(8.0)

주요 품목 수출 및 해외건설 수주 비교(단위: 억불)

구 분	'18	'19	'20	'21	'22	5년 평균
반도체 수출	1,267	939	992	1,280	1,292	1,154
자동차 수출	409	430	374	465	541	444

석유제품 수출	463	407	242	381	629	424
해외건설 수주	321	223	351	306	310	302
합성수지 수출	230	203	192	291	281	239
자동차 부품 수출	231	225	186	228	233	221
평판디스플레이스 및 센터 수출	249	207	182	215	213	21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수출	213	202	197	230	182	205

\* 출처 : 한국무역협회/해외건설협회

- 건설수지가 경상수지에 기여하는 수준은 지난 5년간 평균 9.6%로 '18년 12.5%에서 다소 감소추세였다가 '22년 기준 17.6%로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음

경상수지 중 건설수지의 기여도 추이(단위: 억불)

구 분	'18	'19	'20	'21	'22	5년 평균
건설수지(A)	97.2	67.8	58.6	41.0	52.5	63.4
경상수지(B)	774.7	596.8	759.0	883.0	298.3	662.4
기여도(A/B)	12.5	11.4	7.7	4.6	17.6	9.6

\* 출처 : 통계청(한국은행 국제수지팀)

\* 경상수지: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

## 다. 무역과 다른 프로세스

- 해외건설은 현지 및 제3국에서 인력 동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자재를 조달해야 하며 통상 월별로 대금 수령
  - 해외건설 진행절차는 입찰, 계약, 시공, 변경, 준공 통보와 함께 마무리되며 일반적으로 3년간 공정률에 따라 기성을 수금하므로 수출보다 다양한 변수 상존(주요 적용법: 해외건설촉진법)
  - 통상 해외건설수주액은 계약금액(계약보고)을 말하며 통제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http://www.icak.or.kr>)

수주통계 > 요약현황 > 총괄계약현황

카카오 채널 추가

총괄현황 공사목록 국가조도진출 업체조도진출 조건조도진출 초대형공사

총괄 (단위: 천만원, 05/03 17:25 기준)

구분	총누계	2020 동기	2021 현재	증감률(%)	구분	총누계	2020 동기	2021 현재	증감률(%)
수주금액	878,559,340	12,991,670	9,558,321	↓-26%	진출국가	158	78	65	↓-17%
수주건수	14,400	193	178	↓-8%	진출업체	1,709	237	217	↓-8%
시공건수	12,956	1,661	2,024	↑22%	최초진출 <sup>1)</sup>	1,709	20	12	↓-40%

※ 최초진출<sup>1)</sup>: 기업 설립 이후 해외건설 진출이 최초인 업체수

\* <http://www.icak.or.kr>

- 무역은 재화 및 서비스 수출계약에 의한 일회성 대금을 회수하며 신용장에 의한 거래
  - 일반적인 상품수출 진행절차는 물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기에 신용장에 의해 단발성으로 수금(주요 적용법: 대외무역법)
  - 수출금액은 수출신고서 금액을 말하며 무역통계사이트에서 확인 가능(<https://stat.kita.net>)

품목 수출입

품목: 국내통계 > 한국무역 > 품목 수출입

총괄 국가별

품목: MT1 | 연도: | 시작연도: | 선택연도: | 수자교역: 수지

연월: 2021 | 9 | 화면선택: 금액 | 당월/누계: 누계 | 단위: 천만, % | 정렬기준: 수출금액 | ○ 오름차순 ● 내림차순 | 한/영: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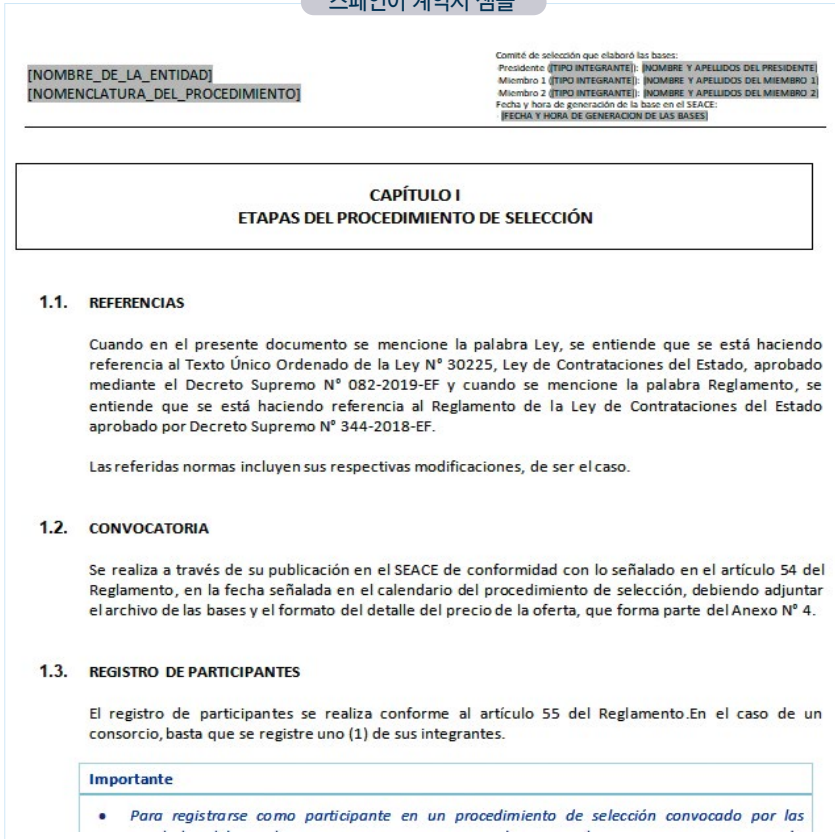
전체: 199 건 / 단위: 금액 - 천만, 증감률 - % | 코드를 클릭하시면 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순번	코드	품목명	2020년				2021년 (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512,483,039	-5.5	487,832,783	-7.1	44,865,274	146,486,619	12.5	136,101,239	12.0	10,395,320
1	831	반도체	99,176,904	5.6	90,283,125	6.9	48,893,778	26,592,831	14.0	13,281,859	13.0	13,310,972
2	741	자동차	371,999,065	-13.1	13,073,670	9.1	24,325,495	11,920,941	91.5	3,182,210	22.0	8,798,778
3	746	신약(생약)구급약품부품	19,746,802	-2.0	3,437,259	44.4	16,311,572	7,342,205	26.6	896,992	-3.6	6,906,243
4	133	석유제품	24,167,724	-40.6	12,951,924	-26.2	11,215,900	6,994,445	-17.1	4,303,122	-19.2	2,651,333
5	214	합성수지	19,322,294	-5.2	4,161,256	-11.6	15,041,037	6,379,959	91.2	1,241,208	13.3	5,138,191

## 라. 현지 특수성

- 진출국가의 경제, 사회 및 정치뿐만 아니라 기후, 문화, 인허가 등 현지 환경 고려 필요
  - 동남아 주요국의 경우 우기가 3~5개월로 공사 진행이 어려우며 기후 조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 베트남 우기(5~11월), 필리핀 우기(6~10월), 태국 우기(5~10월)
  -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금식 기간이 약 1개월(이슬람력 9월) 정도 있으며 실질적 공사는 일시 정지
  - 국가별(주별)로 상이한 건설관련 법과 제도로 인해 인허가, 계약관습 등 숙지가 요구됨
-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영어이지만 현지어도 필요한 경우 발생
  - 일반적인 계약서류는 영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공사 참여자의 영어구사능력이 중요함
  - 중남미의 경우 계약서류가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로도 작성되어야 해 이중 부담으로 작용

스페인어 계약서 샘플



- 선진기술 적용 및 현지 정책
  - 선진국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사용료(License fee) 지급, 일반적으로 선진기업이 기본설계(FEED)에 참여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도 FEED 역량 향상
  - 자국민을 비롯한 자국산 기자재 사용 의무화 증가 추세(Ex: Saudization, Emiratisation 등)

해외건설의 특수성

해외건설협회 이승훈 센터장

무역과의 차이점

해외건설은 무역과 같이 국가간 경계를 넘어 사업을 하지만, 현지에 인력과 장비 기자재 등을 동원해 사업을 추진하는 일종의 서비스업이며, 현지에서 인허가와 기성 수금, 장비비차 등 문제가 모두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계약과 실행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외 건설입찰은 대부분 사전자격심사(PQ)라는 엄격한 제도를 통해 참가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정치적 영향

해외 현지국의 대형 혹은 국책 건설사업은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기업은 사업 수주를 위해 초기 사업추진에 서부터 사업 시행 그리고 후속 연계사업까지 단계별로 정확하고 사소한 정보라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현지 정부의 인프라 개발사업 공약 등과 같이 공개된 사업도 있지만, 유력 정치세력이 추진하는 현지 주민들의 민원 사업이나 국가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알게 모르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영향으로 추진중인 사업도 갑자기 중단되거나 중단했던 사업이 재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는 2018년 시공이 30%이상 진행되던 국책 공항이 정권이 바뀌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중동국가와 후진국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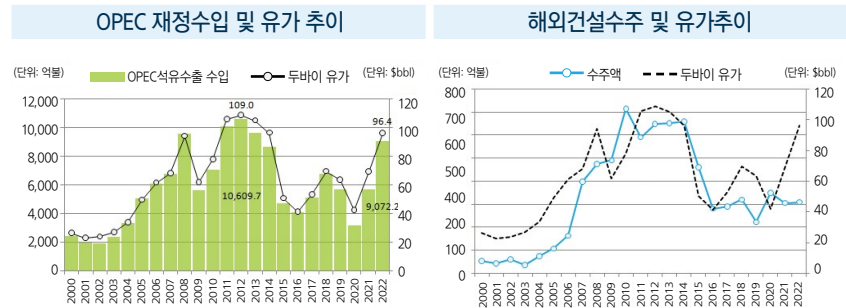
이로 인해 해외 공판에서는 현지 고위급 인사들의 동정이나 교류를 통해 현지 내부 정치 흐름이나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정보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적절한 우리기업들과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건설 인프라 기업들은 토목, 건축, 플랜트 시공과 개발사업(PPP 포함), 그리고 설계, 감리 및 O&M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방식 경험이 있다. 또한 시공 분야도 원전·담수·화력·조력 발전소, 석유화학·정유·제철 등의 플랜트, 장대교량, 고속철도, 해안방조제 등 토목사업과 신도시 공사, 초고층 건물, ICT기반의 스마트 시티 개발도 앞서가고 있다.



### 마. 국제유가와 큰 상관관계

-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유가는 정부발주 프로젝트 물량 결정
  - 2000~2022년간 OPEC 석유수출 재정수입과 두바이 유가간 매우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유가는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 발주여력을 증가시킴(아래 그림(좌) 참조)
  - 2000~2022년간 해외건설 수주 및 두바이 유가간 상관관계가 커 유가가 상승하면 해외건설수주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상관계수: 0.83(아래 그림(우) 참조))



\* 출처: 해외건설DB, 석유공사(Petronet), EIA(미국 에너지청)

- 하지만, PPP(민간참여사업) 프로젝트도 증가 추세
  - 중동 주요 국가들은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지난 5년간('16~'20) 재정적자 심화로 인해 직접 지출보다 PPP 프로젝트 발주 확대 추세
    - \* Meed에 의하면, 2028년까지 1,350억불규모의 PPP 프로젝트 발주 전망
  - World Bank PPI DB(<https://ppi.worldbank.org>)에 의하면, '12~'21년간 개도권역 가운데 아시아 및 중남미지역 민간참여 프로젝트 규모가 75% 상회하면서 PPP사업 활성화
    - \* 아시아&중남미 PPP규모: '20년 345억불 → '21년 약 540억불

### PPP사업이란?

-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
- 공공부문에서 하던 일부 또는 전체 역할을 민간에게 이양해 진행하는 사업형태
- 대형 인프라사업(에너지, 도로, 수처리, 병원, 학교 등)
- 민간이 재원을 책임지고 조달
-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최소 수요 혹은 구매 보장

#### [ 유형 ]

- DBFO(Design, Build, Finance, Operate)
- DBOT(Design, Build, Operate, Transfer)
- BOT(Build, Own, Transfer)
- BOO(Build, Own, Operate)
- BTO(Build, Transfer, Operate)
- BOS(Build, Own, Sell)
- BTL(Build, Transfer, Lease)
- RLT(Rehabilitate, Lease, Transfer)
- ROT(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 ROMM(Rehabilitate, Operate, Maintenance, Management)

### 바. 관리집약적 산업

- 과거 노동집약적 단순도급형에서 공사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따른 EPC 방식 수주 증가로 관리집약적 패턴으로 진화
  - 플랜트부문을 중심으로 E(Engineering, 설계), P(Procurement, 조달), C(Construction, 시공) 일괄수주 패턴 증가
  - 10억불 이상 프로젝트: 2000년 37건 → 2010년 104건
- 해외건설 경쟁심화에 따른 PM(Project Management)역할 강화 추세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DB를 분류해보면, 해외 PM 수주비중\*은 지난 20년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전후방 엔지니어링 역량 및 종합 관리능력이 부각되면서 2000년 0.1%에서 2022년 5.8%(17.9억불)로 확대 추세
    - \* CM, F/S, O&M, 설계, 감리, 기획, 조달, 기술지원 수주비중



※ 우리나라도 PM을 건설사업관리로 개념을 정립해 업종정비를 포함한 공식 법제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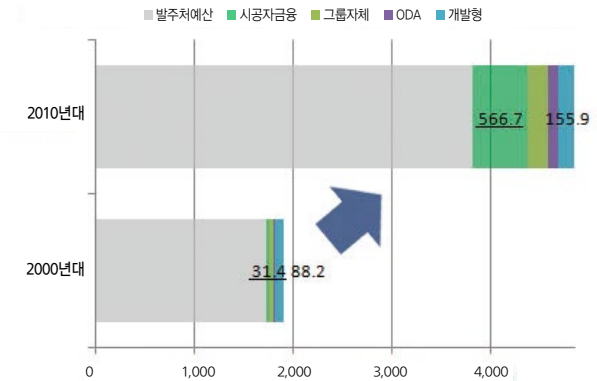
현행		개선	
설계 · 사업 관리	종합 (일반+품질검사)	종합	모두 가능 (계획설계, 관리, 감리)
	일반	계획설계	Eng.활동 (계획, 측량, 조사, 설계 등)
	설계 등	사업관리	PM (계획관리, 설계관리, 시공관리 등)
	측량	감리	감리 (설계감리, 시공감리)
건설 지원 업	수로조사	품질검사	건설자재 품질관리, 시험업무 등
	건설사업관리	구매조달	건설자재 구매조달 대행업 등
	품질검사	IT 융복합	스마트 건설기술 기업 등

- 건설산업연구원(2018) 자료에 의하면, 국내 건설기업들의 사업관리 평균 역량 수준은 선진기업 대비 약 71% 수준으로 나타남
- 전·후방 엔지니어링 역량 향상을 계기로 프로젝트 관리능력(EPCM, PMC, O&M 등) 부각
- \* 2019년 멕시코 도스 보카스 정유공장 Pkg.2,3 FEED에 이어 2020년 EPC공사 수주로 연결되는 등 FEED to EPC 수주사례 지속 (~'19년 1.0억불 → '20년 37.0억불 → '21년 24.4억불 → '22년 11.9억불)

### 사. 금융조달의 중요성 증가

- 시공사(Contractors) 및 디벨로퍼(Developers) 금융주전형(Financing) 프로젝트 증가 추세
  - 시공사 금융주전형 수주액: 2000년대('00~'09) 31.4억불 → 2010년대('10~'19) 566.7억불
  - 개발형 수주액: 2000년대 88.2억불 → 2010년대 155.9억불

참여형태별 수주현황(단위: 억불)



- 디벨로퍼로 변신중인 기업들
  - 단순 시공이 아니라 기획, 개발, 금융조달, 자재조달, 시공, 사후관리 및 운영 등 통합 솔루션 제공 추세
  - 1970~1980년대: 단순 도급형(발주처가 제시한 설계 및 주문에 따라 시공)
  - 1990~2000년대: EPC형(설계-조달-시공)
  - 2010년대 이후: 디벨로퍼형(현지 수요 파악을 통한 프로젝트 제안, 금융조달, EPC 수행, O&M, 운영)

### 단원 요약

- ▶ 우리 해외건설은 개척기(1965~1975) → 확장기(1976~1983) → 침체기(1984~1992) → 도약기(1993~1997) → 조정기(1998~2003) → 재도약기(2004~현재)를 거침
- ▶ 특히 2020~2022년간 글로벌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300억불 이상을 수주하면서 수주 증가세로 전환
  - \* 2022년 1월, 해외건설 누계수주 9,000억불 달성
- ▶ 최근 5년('18~'22) 평균 해외건설 수주액은 302억불로 반도체(1,154억불), 자동차(444억불), 석유제품(424억불) 등 주요 수출 품목과 함께 경제의 버팀목 역할
  -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는 엔지니어링(11.0) 및 건설업(10.2)이 1차산업(8.0) 대비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
  - 건설수지가 경상수지에 기여하는 수준은 5개년 평균 9.6%로 높은 수준
- ▶ 해외건설의 특징
  - 현지 및 제3국에서 동원된 인력과 조달된 기자재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3년 안팎에 걸쳐 공정률에 따라 기성을 수금하므로 수출보다 다양한 변수 상존
  - 진출국가의 경제, 사회 및 정치뿐만 아니라 기후, 문화, 인허가 등 현지 환경 고려 필요
  - 자원부국에 집중된 해외건설 수주는 발주물량을 결정짓는 국제유가와 큰 상관관계
    - \* 2000~2022년간 해외건설 수주 및 두바이 유가간 상관관계수: 0.83
  -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 → 관리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
    - \* 단순 토건공사 → 대형 EPC 플랜트공사
    - \* 인력당 수주액: 1980년 53.7천불 → 2020년 349.2천불
  - 금융주선형 프로젝트 수주액은 2000년대 31.4억불 → 2010년대 566.7억불로, 개발형은 2000년대 88.2억불 → 2010년대 155.9억불로 금융조달의 중요성 증가

## 2 해외건설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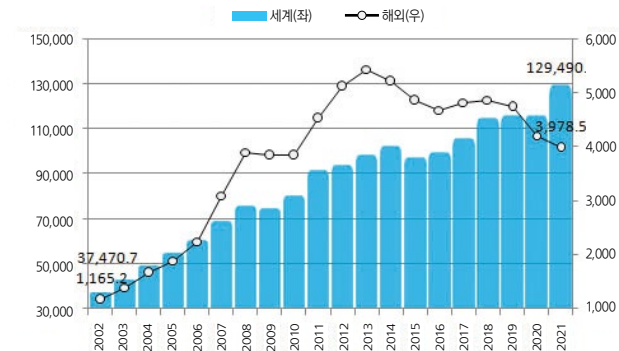
### Check Point

- 세계건설시장 및 해외건설시장 규모
- 주요 지역별 건설시장 특징
- 특정 국가의 중요성(이란, 사우디, 베트남 등)

### 가. 해외건설시장 규모 및 특징

- 미국 ENR지('22.8월)에 의하면, 2021년 해외건설시장(매출) 규모는 전년대비 5.3% 감소한 3,978.5억불로 집계
  - \* 2021년 세계건설시장 규모는 약 12.9조불로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3%안팎으로 예상됨
  - 2021년 우리기업 시장 점유율 5.7%(227.3억불)로 2020년(214.2억불, 5.1%) 대비 0.6%p 증가하며, 세계 5위 차지
  - 세계 1위를 차지한 중국의 매출액은 1,129.5억불, 점유율 28.4%로 2020년(1,074.6억불, 25.6%) 대비 점유율이 2.8%p 증가

해외건설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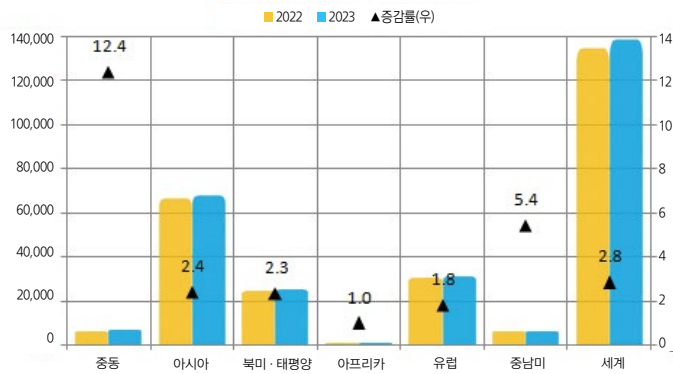
국적별 해외건설 매출 점유율 추이(%)

순위	2019		2020		2021	
	국가(기업수)	점유율	국가(기업수)	점유율	국가(기업수)	점유율
1	중국(74)	25.4	중국(78)	25.6	중국(79)	28.4
2	스페인(11)	14.9	스페인(10)	14.9	스페인(8)	13.0
3	프랑스(4)	9.9	프랑스(3)	10.9	프랑스(3)	12.7
4	독일(3)	6.6	독일(5)	7.9	미국(41)	6.1
5	미국(35)	5.2	한국(11)	5.1	한국(12)	5.7
6	한국(12)	5.2	미국(41)	4.9	이태리(13)	5.6
7	터키(44)	4.6	이태리(12)	4.8	터키(42)	5.1
8	영국(3)	4.2	터키(40)	4.4	일본(11)	4.2
9	일본(13)	4.1	일본(11)	3.9	네덜란드(3)	2.3
10	오스트리아(2)	4.1	네덜란드(3)	1.9	독일(3)	1.6

\* 출처: ENR Top Int'l Constructors 각호

- IHS Markit('23.1월)에 의하면, 세계건설시장(지출) 규모는 2022년 13.5조불에 이어 '23년에는 전년대비 2.8% 성장한 약 13.9조불로 전망(해외건설시장 규모: 4,000~4,500억불 사이 예상)

세계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 나. 우리기업의 위치

- 우리 건설기업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 110여 개국에서 2,000여건의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 다수의 실적 보유, 관리 및 IT 연계 능력 등을 통해 우수성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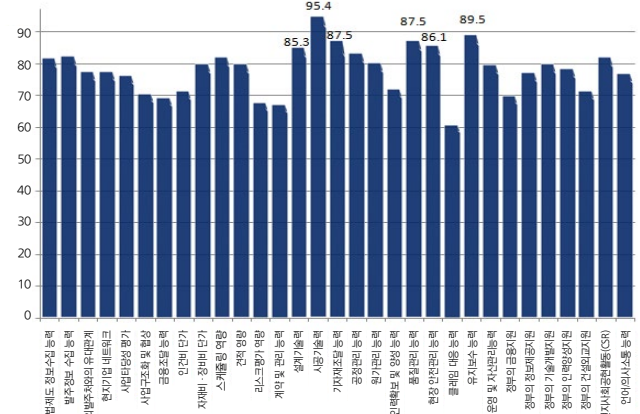
우리 건설기업의 강점(기업)

산업설비	EPC 수행경험과 실적 보유
	진출분야의 전문화, 특화
	중동지역 진출기반 공고
토 목	다양하고 오래된 해외경험
	시공 기술력 및 노하우 우수
	정부의 정책지원 확대
건축	국내 신도시개발 경험 풍부
	세계 최고 수준의 IT 능력
	스마트 도시개발 수요 증가

\* 출처: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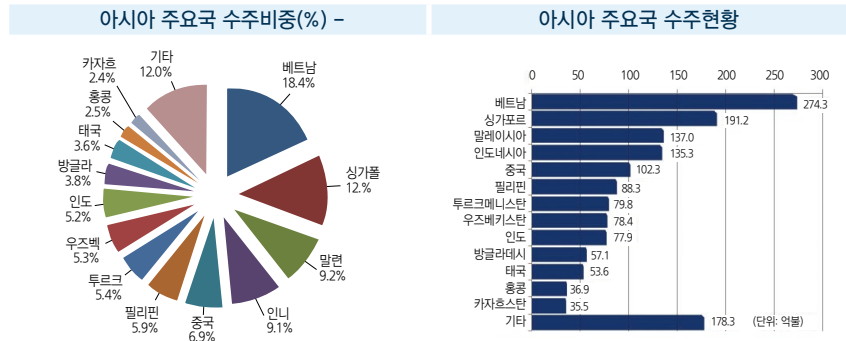
- 이외에도 제4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건설기업은 시공기술, 유지&보수, 기자재 조달, 품질관리능력, 설계기술력 등에 높은 경쟁력 보유

우리 건설기업 경쟁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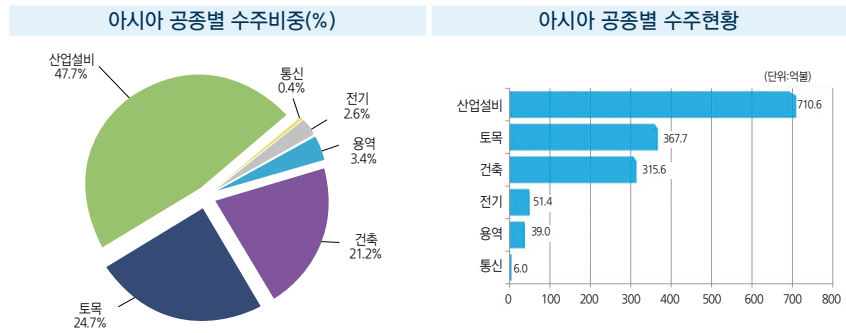
### 다. 아시아지역 시장 동향

- **특징 / 한·중·일 각축장, 개발프로젝트 증가 추세, 인구와 함께 큰 잠재성**
  - 우리 건설기업들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진출



\* 출처: 해외건설DB(2013~2022년간 수주 누계 및 비중)

- 공종별 수주비중은 산업설비(정유, 화학, 발전소 등)가 역내 수주액의 47.7%를 점유하고 있으며 토건부문도 각각 24.7, 21.2% 수준



\* 출처: 해외건설DB(2013~2022년간 수주 누계 및 비중)

-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일본은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함께 금융수반 프로젝트 진출 패권 경쟁

- **규모 / 세계건설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23년 아시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4% 성장한 6조 8,000억불로 전망(IHS Markit)**

아시아 주요국 경기 부양책	
국가	주요 경기부양책 내용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30년 교통 인프라 마스터플랜 초안 발표에 따라, 430억~650억불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li> <li>• 남북지역과 동서지역을 잇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심해 항구 및 신규 국제공항 등 사업 추진 예정</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교통마스터플랜(Land Transport Master Plan 2040)에 따라 '30년까지 400억불 이상을 투입해 MRT를 현 230km에서 360km로 확장할 계획</li> <li>•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최근 2년간 중단되었던 창이 국제공항 제5터미널 신설 재개</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사업주택부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19~'24년간 4,000km 길이의 도로를 신규 건설할 계획</li> <li>•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 이전 개시를 위한 신수도 이전사업에 약 400억불 이상 투입 계획</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P(민관협력) 및 HAM(Hybrid-Annuity Model) 모델 개정, 도로/부동산 개발 부문에 FDI(외국인직접투자) 100% 허용 등 적극적인 민간·외국인 투자 유치정책 등 정부의 인프라 중심 경제개발을 지속</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BM(Build, Build, More) Program' 추진하여 두테르테 전 정부의 기존에 PPP 방식을 확대하여 인프라 개발에 약 1조1960억불을 투입할 계획이며 '23년 이후 약 90개 프로젝트가 추진 예정임</li> </ul>

\* 출처: 2023 글로벌 건설시장 진출전략(해건협) 등

- 아시아 주요국 진출 시 애로사항은 현지화, 복잡한 인허가 절차, 현지관행 등으로 조사됨

아시아 주요국 진출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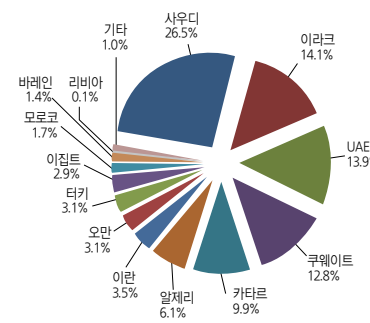
국가	주요 장벽 및 애로사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설립 및 면허 취득요건 복잡</li> <li>• 프로젝트 공동 수행 시 낮은 시공면허 등급 적용</li> <li>• 공사참여 범위 제한</li> <li>• 현지업체 가격 및 기술경쟁력 우수</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 인력우선 고용을 위한 근로비자 발급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응부담금(Levy) 부과</li> <li>• 현지 기업 경쟁력 상승 및 일부 선진 건설기업들도 물량확보를 위해 저가 입찰 추세</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화 강화 및 자국화 정책기조</li> <li>• 정부 및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li> <li>• 정부 정책 결정 및 행정처리 불투명성</li> <li>• 파이낸싱(PF) 요구 및 수입 통화 결제 시 환리스크 존재</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잡한 인허가 및 토지수용 지연 등 높은 사업리스크</li> <li>• 정부의 제도개혁 대비 행정효율성 간의 괴리</li> <li>• 과실송금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li> <li>• 복수(複數)의 현장 운영 시 현장 간 자금 전용의 어려움</li> <li>• 지나치게 구체적인 Qualification criteria 충족의 어려움</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 지연에 따른 사업수행 차질 우려</li> <li>• 특별 면허조건 등 외국업체 입찰참여 제한</li> <li>• 높은 자재수급 수입의존도에 따른 공기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li> <li>• 발주처의 부지매입 및 부지인도 지연 등 애로</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노동 허가제 등 외국인 인력 고용·파견 제한</li> <li>• 입찰 등 추진일정 변경이 잦아 사전 대비 필요</li> <li>• 외국업체 최대지분 49% 등 외국기업의 건설업진출 제한</li> <li>• 주요 인프라 사업에 현지 및 중국기업 참여 다수</li> </ul>

\* 출처: 2023 글로벌 건설시장 진출전략(해건협)

## 라. 중동지역 시장 동향

- **특징 / 도급형 공사 중심, 석유&가스 매장량 풍부, 발주처 주도 시장**
  - 우리 건설기업들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및 이라크, 카타르 등을 중심으로 진출

중동 주요국 수주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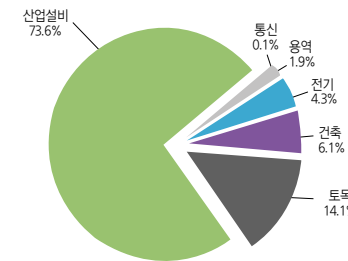
중동 주요국 수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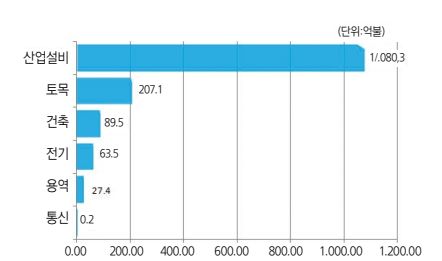
\* 출처: 해외건설DB(2013~2022년간 수주 누계 및 비중)

- 공종별 수주비중은 산업설비(석유&가스, 정유 등)가 역대 수주액의 73.6%를 점유하고 있으며 토건부문(항만, 도로, 병원, 오피스 등)도 각각 14.1, 6.1% 수준

중동 공종별 수주비중(%)



중동 공종별 수주현황



\* 출처: 해외건설DB(2013~2022년간 수주 누계 및 비중)

- MENA(Middle East & North Africa)지역이 보통 중동지역으로 해석되며 해외건설의 전통적인 주력시장은 GCC(Gulf Cooperation Council)지역임
  - \* GCC 회원국: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
- 중동지역은 이란-이라크 전쟁, 이라크 쿠웨이트 공격, 이란 및 이라크 제재 등 역사적으로 해외건설부문에 있어 재외공관 및 외교부와 긴밀한 관계 유지

◎ 규모 / '23년 중동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8% 성장한 약 6,900억불 규모로 전망(IHS Markit)

중동 주요국 경기 부양책

국가	주요 경기부양책 내용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부다비의 국영 석유회사인 ADNOC은 석유 생산능력을 하루 500만 배럴로 확대하는 목표시기를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면서 5년간('23~'27) 1,500억불을 지출하는 계획을 승인함</li> <li>• 2050 탄소배출 넷 제로를 목표로 한 태양광 및 수소 등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li> </ul>
사우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비전2030의 일환으로서 '30년까지 5조 리얄(1조 3천억불)을 내용 등의 신도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적극 투자할 예정임</li> <li>• 교통부문은 이동성 향상 목적의 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임. 국제유가의 하락 시를 대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의 일환으로 PPP 방식의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임</li> </ul>
카타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가스 기반의 카타르는 세계 2위의 LNG 수출국으로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음</li> <li>• 이에 따라 '27년까지 북부 가스전 확장사업의 1·2단계 추진을 통해 연간 7,700만톤인 LNG 생산량을 1억 2,600만톤으로 증산할 계획</li> </ul>
쿠웨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석유 국가개발 계획인 비전 2035에 따른 역대 물류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100억불 규모의 국가 철도망 및 공항, 항만 등의 교통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li> <li>•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 알주르 단지 등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및 관련 유틸리티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li> </ul>

\* 출처: 2023 글로벌 건설시장 진출전략(해건협)

- 중동 주요국 진출 시 애로사항은 현지화, 복잡한 인허가 절차, 자국민 고용부담 등으로 조사됨

중동 주요국 진출 시 애로사항

국가	주요 장벽 및 애로사항
사우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 정부의 과세 강화('18.1월부터 5%의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도입했고, '20.7월부터 3배 인상하여 15% 부과)</li> <li>• 현지화 강화 정책(기자재의 상당비율(최대 70%)을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대다수의 기업이 금액적인 패널티를 감수하며 프로젝트를 수주)</li> </ul>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미리트별 상이한 건설관련 제도(에미리트 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건설업면허, 로컬서비스 에이전트(Local service agent) 선임 필요)</li> <li>• 현지화 강화 정책(Adnoc은 자국산 비율 제고를 통해 산업을 다각화하고자 ICV(In-Country Value) 프로그램 도입('17.11)해 '18년부터 시행중이며, 아부다비는 Abu Dhab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ADDED) 발주의 공공 프로젝트 입찰에 대해 ICV와 유사한 ADV(Abu Dhabi Value) 프로그램 도입('19.4))</li> </ul>
카타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부문 현지화 프로그램(Tawteen) 정책 강화(에너지 분야에 진출하는 해외기업 대상 조달, 생산, 서비스 등 현지진출 조건 부가함으로써 현지 공급망을 육성하고 산업기반 확대를 목표로 함)</li> <li>• 부가가치세 도입 가능성(부가세 도입이 연기되고 있으나 GCC프레임워크에 맞춰 도입될 전망으로 도입 예상 세율은 5%로 예상)</li> </ul>
쿠웨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웨이트제이션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공공 부문의 기존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줄였으며, 특정 국적인의 규모 상한을 정하고 60세 이상 외국인의 거주 제한 등 추진)</li> <li>•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세수확대 방안으로 VAT 도입 고려(쿠웨이트는 '17. 8월 GCC 부가가치세 합의안에 따른 부가세 입법을 내각에서 승인했으나, 의회 반대로 계류 중)</li> </ul>
이라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정부 시위 등 치안 불안 계속(테러와 반정부 시위는 외국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이라크 건설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건설기업도 인력파견 시 경호인력, 방탄차 등 안전 관련 비용부담이 매우 큰 상황)</li> <li>• 신용도 부족으로 인한 민간투자 어려움(시공자금융 등 금융 동반이 수주에 유리한 상황이나 낮은 국가신용등급(투자부적격)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불가능한 상황)</li> </ul>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확한 프로젝트 정보 입수 애로(이집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정보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li> <li>ODA 및 국제금융기구 등의 차관 사업이 많아 공여국이 수주에 유리한 상황으로 금융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li> </ul>
-----	---

\* 출처: 2023 글로벌 건설시장 진출전략(해건협)

## 마. 선진권역 및 신흥시장 동향

- 중남미 /** 스페인기업 주도시장, PPP프로젝트 대세, 정치 불안정
  - ‘23년 중남미 건설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4% 성장한 약 6,380억불로 전망(2010~2020년간 해외건설 수주비중 7.6%)
  - 우리 건설기업들은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파나마 및 칠레 등을 중심으로 진출
- 아프리카 /** 중국의 독무대, 정치 불안정, ODA 주도 시장
  - ‘23년 아프리카 건설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약 1,100억불로 전망(2010~2020년간 해외건설 수주비중 3.1%)
  - 우리 건설기업들은 나이지리아, 적도기니, 보츠와나 등을 중심으로 진출
- 선진권역 /** 유럽 및 현지기업 독주시장, 기술 및 자본집약적 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우나 시도 필요
  - ‘23년 유럽 건설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8% 성장한 약 3조 1,160억불로 전망(2010~2020년간 해외건설 수주비중은 3.6%)
  - ‘23년 북미·태평양 건설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3% 성장한 약 2조 5,200억불로 전망(2010~2020년간 해외건설 수주비중은 4.5% 수준)

선진권역 및 신흥시장 주요국 경기 부양책

국가	주요 경기부양책 내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디지털 정책으로 전환, '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 실현</li> <li>2022년 초 녹색분류체계(Taxonomy)의 원자력과 천연가스 포함되면서 관련시설 발주 증가 전망</li> <li>건물 및 인프라의 대규모 혁신과 순환경제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든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인프라 부문에 총 1.2조불의 자금 투자</li> <li>교통(도로, 교량 등), 기후변화(청정에너지, 물 공급 등), 광통신망 등 광범위한 인프라 분야 신규 투자 추진</li> </ul>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자유주의적 경기부양책 반대. 사회복지, 공적투자를 통한 위기 대응 추진</li> <li>국가 인프라 프로그램(PNI)을 통해 국책 인프라 사업(마야철도,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산타루시아 국제공항 등) 지속 추진</li> </ul>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에너지 계획 2050’에 따른 에너지원별 생산 전망 및 해결과제 제시('50년까지 재생에너지 45% 목표)</li> <li>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의 양허사업에 힘입어 '21년부터 회복 중이며 민간 주도 철도·가스 사업 적극 장려 전망</li> </ul>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재정부(MEF)는 '19년 7월 영국정부 및 IDB(미주개발은행)의 도움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인프라계획(PNIC)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되어야 할 310억불 규모의 52건 사업 선정, 추진 중</li> <li>'22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각된 미비한 상태의 공공 부문 인프라(교통, 통신, 공항 등)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탄핵 및 반정부 시위가 심화됨에 따라 불확실성 증대</li> </ul>

\* 출처: 2023 글로벌 건설시장 진출전략(해건협) 등



-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진출 시 주요 애로사항은 현지 발주처 등과 네트워크 구축 부족, 높은 부패수준 등으로 나타남

신흥 주요국 진출 시 애로사항

국가	주요 장벽 및 애로사항
나이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2월 대선을 앞두고 북부, 남부 세력 간 정치적 입장 차이 등으로 정세·치안 불안 가중</li> <li>• 과도한 보상 요구 등 지역주민과의 마찰</li> </ul>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재정사업 발주 시 특수기술 요구 사업 외에는 FTA 미체결 국가 기업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li> <li>• 빈번한 정부 정책노선 변경 및 높은 부패 수준</li> <li>• 30% 가량의 高법인세율 등 세무 이슈</li> </ul>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현지 건설기업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독과점을 유지하는 구조이나 오데브레시 스캔들 이후 재판 중</li> <li>• 현지 사업을 위해서는 주로 법인설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주비자를 받아야 현지경영 가능</li> <li>• 국내 인력·장비 사용을 의무화하는 현지조달 규정, 60%까지 로컬 비율을 요구하는 등 건설 및 일반물자 조달에 있어서 과도한 세금부과와 관료주의 만연(Brazil Cost)</li> </ul>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발주처,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부족</li> <li>• 입찰참가를 위한 구비서류가 모두 스페인어로 작성, 통용되는 상황으로 스페인어와 건설관련 유관지식을 보유한 적격인력 필요</li> <li>• 비자발급을 비롯해 각종 서류발급, 인허가 절차 등에 있어서 행정처리 속도가 느리고 처리예정일 빈번한 지연</li> <li>• 카스티요 대통령의 부패,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실각 후 대규모 시위 발생 및 정부 계엄령 등 정세·치안 불안 가중</li> </ul>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개발 및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평가시스템(SEA, Servicio de Evaluación Ambiental)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적용·관리</li> <li>• 현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매우 커 진출기업은 현장안전관리 및 노무관리에 각별한 유의 요망</li> <li>• 양허성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새로운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치·경제 동향 변화 주시</li> </ul>

\* 출처: 2023 글로벌 건설시장 진출전략(해건협)

**단원 요약**

- ▶ ENR지('22.8월)에 의하면, 2021년 해외건설 시장(매출)규모는 전년대비 5.3% 감소한 3,978.5억불로 집계
  - 2021년 세계건설시장 규모는 약 12.9조불로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3%안팎으로 예상됨
  - 2021년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5.7%(227.3억불)로 2020년(214.2억불, 5.1%) 대비 0.6%p 증가하며, 세계 5위 차지
- ▶ IHS Markit('23.1월)에 의하면, 세계건설시장(지출) 규모는 2022년 13.5조불에 이어 '23년에는 전년대비 2.8% 성장한 약 13.9조불로 전망
  - \* 해외건설시장 규모 역시 4,000~4,500억불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
- ▶ 우리 건설기업은 중동 및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110여 개국에서 2,000여건의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 다수의 실적 보유, 관리 및 IT 연계 능력 등을 통해 우수성 인정
- ▶ 아시아 시장 특징 / 한중·일 각축장, 개발프로젝트 증가 추세, 인구와 함께 큰 잠재성 ('23년 건설시장규모: 6조 8,000억불로 추정)
  -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일본은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함께 금융수반 프로젝트 진출 패권 경쟁
  - 우리 건설기업들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수주비중은 산업설비(정유, 화학, 발전소 등)가 역대 수주액의 47.7%를 점유하고 있으며 토건부문도 각각 24.7, 21.2% 수준
- ▶ 중동 시장 특징 / 도급형 공사 중심, 석유&가스 매장량 풍부, 발주처 주도 시장('23년 건설시장규모: 약 6,900억불로 전망)
  - 지난 10년간 우리 건설기업들은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및 카타르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산업설비(석유&가스, 정유 등)가 역대 수주액의 73.6%를 점유하고 있으며 토건부문(항만, 도로, 병원, 오피스 등)도 각각 14.1, 6.1% 수준
- ▶ 이들 주요국 진출 시 애로사항은 현지화, 복잡한 인허가 절차, 자국민 고용 부담, 현지관행 등으로 조사됨

# 3 해외건설 트렌드

## Check Point

- 참여형태별 최근 해외건설 프로젝트 사례
- 제4차 산업혁명과 건설부문
- 모듈러 건설
- 해외건설의 범위 확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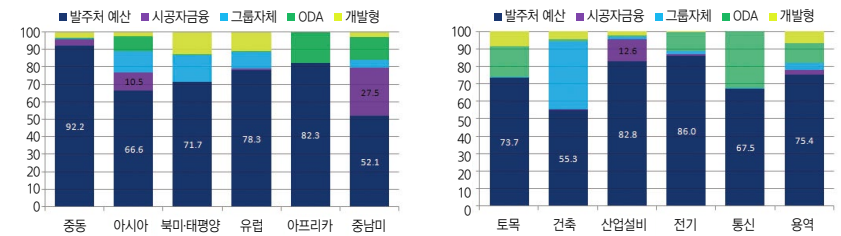
해외시장 개척	DL이앤씨	세계 최장 현수교 터키 차나칼레 대교 공사 중
	GS건설	수처리, 모듈러주택 분야 해외기업 인수
친환경 사업	현대건설	해상풍력, 조력발전, 스마트팜 등 추진
	SK건설	미국 기업과 손잡고 연료전지 제조공장 설립
복합개발	롯데건설	미국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한화건설	수원 광교신도시 마이스 복합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개발
	HDC현대산업개발	리츠 방식으로 공릉역세권, 용산철도병원 등 개발
	대우건설	드론 기술로 국내외 현장 관리
신기술 적용	쌍용건설	현장 관리 및 안전 교육에 BIM, VR 기술 활용
	현대엔지니어링	국내 최초 중고층 모듈러주택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수주
	호반건설	투자 플랫폼 '플랜에이치' 통해 스타트업 투자

## 가. 참여형태별 프로젝트 사례

- 일반적으로 일반도급 공사에서 건설사는 EPC 업무만을 수행하는데 반해 시공사금융과 투자개발형은 EPC+금융(Financing)이 요구되며 시공사금융은 사업의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금액의 기성을 수령하지만 인프라 개발 사업은 건설사의 수익이 사업의 성과와 연동
  - 시공사 금융은 도급형 사업으로 건설사는 자금조달만 주선, 상환 책임은 발주처에게 있음
- 도급 사업의 범위는 발주처 예산, 시공사 금융, 그룹자체 공사 및 ODA 재원 프로젝트로 여전히 높은 점유율 차지

- 발주처 예산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중동지역에서 92.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기 및 산업설비 부문에서 80% 이상 차지
- 시공사 금융 주선형 프로젝트는 중남미 및 아시아지역에서 각각 27.5%, 10.5%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설비부문에서 금융주선 요구 증가세
- 개발형 프로젝트는 선진권역(유럽, 북미·태평양)을 중심으로 토목부문에서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

2013~2022년간 재원별 수주비중(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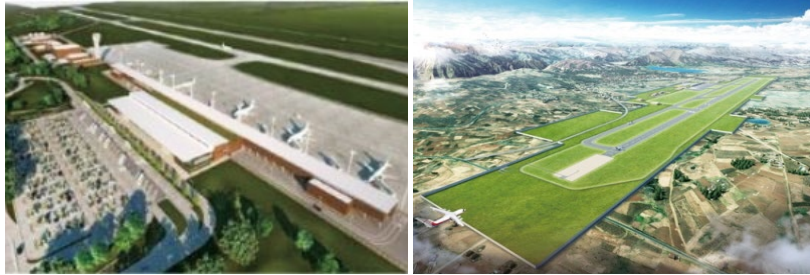
## 1) 도급형 프로젝트

### F/S 캄보디아 살라타온 댐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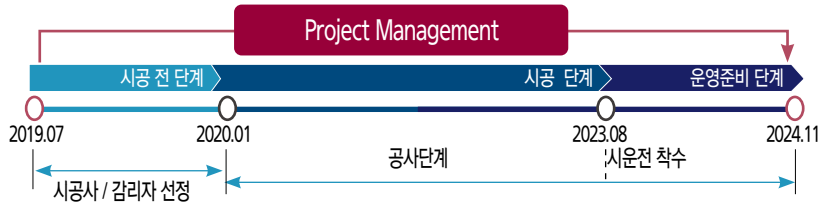
위 치	바탐방
규 모	유효저수량 10.63백만m <sup>3</sup> , 발전용량 1,000kW
사업기간	22015년~2019년
사 업 비	2,283천불(설계&감리) / 약 3,250만불(시공)
발 주 처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사업내용	H=13m, L=74m, 관개수로 총연장 13.7km
수주의미	시장개척자금 활용 타당성 조사(유신)에 이어 EDCF재원으로설계&감리(유신+수자원공사), 시공(신동아건설+새천년종합건설)으로 연결

**설계·엔지니어링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총괄관리(PMO) 프로젝트**



**수주권소사업**· 도화엔지니어링: 12,524천불  
 · 한국공항공사: 5,468천불  
 · 건원엔지니어링: 5,744천불  
 · 건원엔지니어링: 6,458천불

**위 치** 페루 남동쪽 쿠스코 주 친체로  
**대지/연면적** 446ha/18.8ha  
**시설규모** 여객터미널(46,900㎡), 활주로(4,000m×45m), 계류장(90,000㎡)  
**사업기간** 60개월  
**수주의미** 정부 간(G2G) 계약, 후속 부지조성공사 수주(현대건설)



**일반도급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BP12 공사(현대건설)**

**위 치** 도하 동북부 위치한 Lusail 신도시 내 중심부(Central Area)  
**규 모** 지하 6개층, 지상 70층 오피스 2동  
**사업기간** 2020년~2022년  
**사 업 비** 약 10.1억불  
**발 주 처** 루사일부동산개발회사  
**사업내용** 카타르 루사일 시티 금융지역 일대(Lusail City Financial District)에 지하 5층, 지상 70층 오피스 빌딩 건설 사업

·수주의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개최될 루사일 아이코닉 스타디움 인근에 지어짐으로, 카타르 內 랜드마크 건설물이 될 예정



**EPC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2단계(삼성엔지니어링)**



**위 치** 동부 타바스코 주 도스보카스 지역  
**규 모** 일산 34만 배럴 규모 정유소  
**사업기간** 2020년~2024년  
**사 업 비** 약 37억불(2단계 EPC)  
**발 주 처** PTI-ID(PEMEX 자회사)  
**사업내용** AMLO대통령 대선공약 실행을 위해 멕시코 Tabasco주에 원유 34만 배럴/일 처리 및 가솔린 17만 배럴/일, 디젤 12만 배럴/일 등 생산하는 정유 단지를 건설  
**수주의미** 1단계(FEED, 기본설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토대로 2단계(EPC) 계약



## 2) 개발형 프로젝트

### ■ 교통인프라: 터키 차나칼레 대교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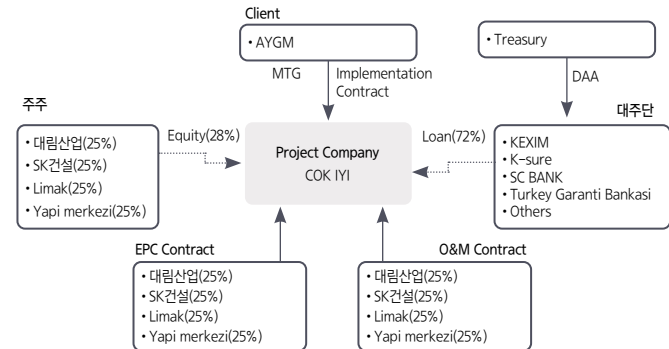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으로 구성되는 교통인프라사업은 각 나라의 국민 편익과 경제발전 및 대외교역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간접자본들이 그런데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 교통인프라 사업을 검토해 보면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
  - 교통인프라의 수익성은 향후 수요와 그 수요자들이 부담할 운임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막대한 초기 투자비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
- 이러한 사업을 PPP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정부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할 때 부지, 인허가 및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사업자를 그것을 기반으로 건설, 운영 및 금융 조달을 책임지는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함
- 우리 기업 중 해외에서 교통인프라사업을 성사시킨 회사는 SK건설이 거의 유일한데, SK건설은 2008년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사업을 입찰로 따낸 후 그 여세를 몰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순환고속도로, 터키 차나칼레 대교, 영국 실버타운 하저터널까지 4개의 도로 PPP사업을 모두 입찰로 확보하여 PF를 완료, 운영 및 시공 중에 있음

### ▶ 프로젝트 개요



Project Name	터키 Canakalle Bridge
Project Description	· 현수교(3,623m)+연결도로(85km) · Minimum Traffic Guarantee · Hard Currency Payment · Escalation Adjustment(연간 Toll 매출 CPI연동)
사업주	SK건설 (25%), 대림산업(25%), Yapi merkezi (터키) (25%), Limak (터키) (25%)
총 사업비	EUR 3,200 Mil
공사비	EUR 2,500 Mil
시공사	SK건설 (25%), 대림산업(25%), Yapi merkezi (터키) (25%), Limak (터키) (25%)
사업형태	투자개발형 입찰사업(BOT, PPP)

### ▶ 사업구조



※ AYGM : Authority for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터키 교통부 산하 인프라 투자청)  
 ※ MTG : Minimum Traffic Guarantee  
 ※ DAA : Debt Assumption Agreement

- 대림, SK, Yapi Merkezi, Limak으로 CI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이 일본 컨소시엄 대비 총 공사기간을 7개월 단축하고 추가사업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주에 성공함

### ■ 발전: 인도네시아 짜레본 석탄화력 프로젝트

- 발전 부문의 개발사업은 통상적으로 민자발전(IPP: Individual Power Producer)사업의 형태로 이뤄짐
- 시공도 중요하지만 전력생산 및 판매에 대한 운영노하우가 중요하므로 건설사들보다 국내 발전 공기업들이 적극적인 분야임

-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전사업자로 지난 20여 년간 가스복합화력, 석탄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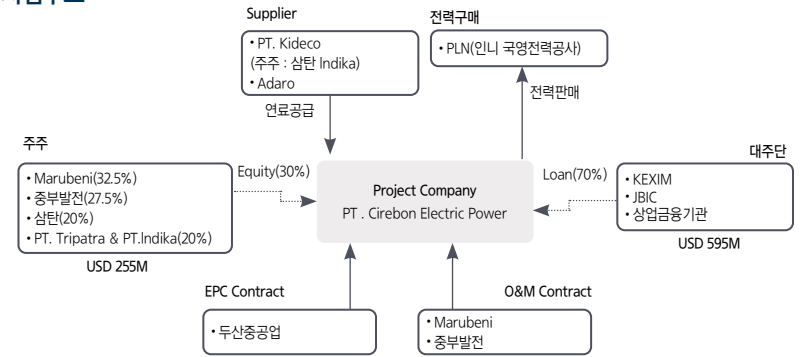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PLN 발주의 입찰형 IPP 프로젝트로 투자(중부발전, 삼탄), 운영(중부발전), EPC(두산중공업), 설계/감리(한전기술), 연료 공급(삼탄), 금융(한국수출입은행) 등 Korean Contents를 극대화함

▶ 프로젝트 개요



Project Name	인도네시아 Cirebon CFPP
Project Description	· 인니 JAVA 섬 Cirebon 시 · 66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인니 국영전력공사(PLN)와 30년 전력판매계약 체결 · 인니 석탄회사(Kideco, Adaro)로부터 연료공급
사업주	Marubeni((32%), 중부발전(27.5%), 삼탄(20%), PT.Tripatra & PT. Indika(20%)
총 사업비	USD 850Mil
공사비	USD 592Mil
시공사	두산중공업
사업형태	BOO

■ 사업구조



■ 수자원: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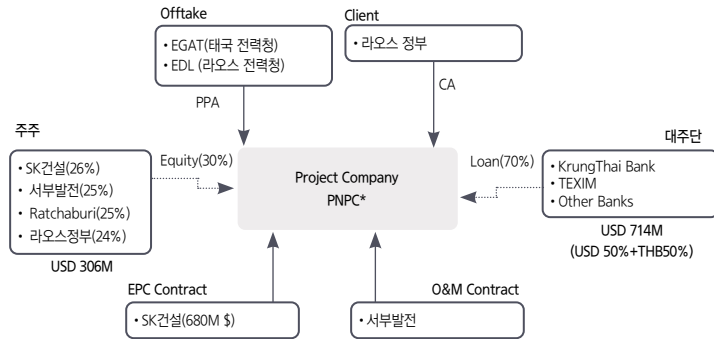
- 수자원 관련 해외개발사업은 수력발전사업과 수처리 사업으로 나뉨
- 수력발전사업은 다른 발전사업과는 달리 댐 공사와 도수 관로 공사 등 토목사업의 성격이 짙은 사업이라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에서는 발전부분이 아닌 토목/인프라부문에 담당하고, 국내의 여러 발전공기업,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함
- 수력발전 사업은 프로젝트 현장이 대부분 산간 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시공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과 환경규제를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 그 사업개발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 사업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프로젝트는 개발 및 시공에 15년 소요

▶ 프로젝트 개요



Project Name	라오스 Xe-pian Xe-namnoy Hydropower
Project Description	·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을 태국의 EGA가 수입하는 Cross Boarder 프로젝트 (PPA) · 발전소 용량 : 410MW · 170km 송전선로 건설 · 양허기간 32년 · 13년 Financial Close 후 19년 상업운전 개시
사업주	SK건설(26%), 서부발전(25%), Ratchaburi(태국)(25%), 라오스정부(24%)
총 사업비	USD 1,030 Mil
공사비	USD 680 Mil
시공사	SK건설
사업형태	투자개발형 제안사업(BOT, PPP)

▶ 사업 구조



※ PNPC : Pian Namnoy Power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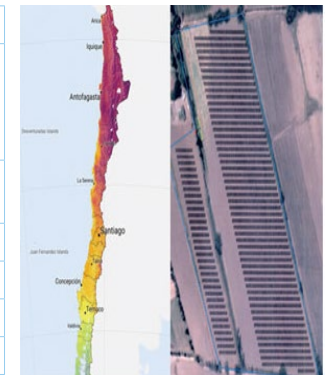
- SK건설(26%, 경영 및 EPC), 서부발전(25%, O&M), Ratchaburi(25%, 감리), LHSE(24%, 대정부 업무)로 초기 안정적인 partnering 완성
- 수력발전사업은 사회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만큼, 상대적으로 환경영향 관련 규제가 적은 태국 local financier로부터 금융조달 완료
- 건설 마지막 시점에서 Saddle Dam 붕괴 사고로 준공 지연 및 EGAT PPA LD 발생

■ 신재생에너지: 칠레 마리아 핀토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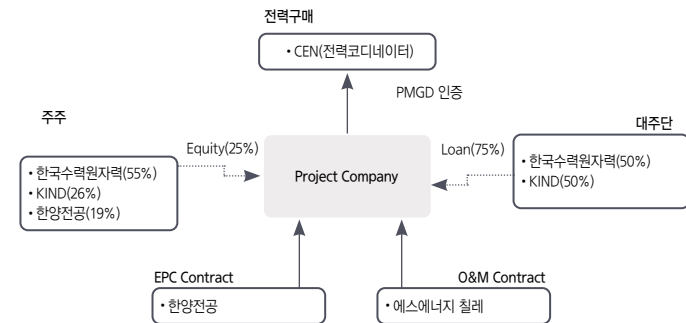
- 종전에는 석탄, 가스복합 등 화력발전이 IPP사업의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진출도 모색되고 있음

▶ 프로젝트 개요

Project Name	칠레 마리아핀토 태양광
Project Description	· 칠레 MariaPinto시6.3MW 태양광 발전소 · 건설기간 : 9개월 · 사업기간 : 25년(BOO) · 요금구조 : PMGD(소규모 발전사업자) 제도
사업주	한양전공(19%), KIND(26%), 한국수력원자력(55%)
총 사업비	USD 8 Mil
공사비	USD 6.2 Mil
시공사	한양전공
사업형태	BOO



▶ 사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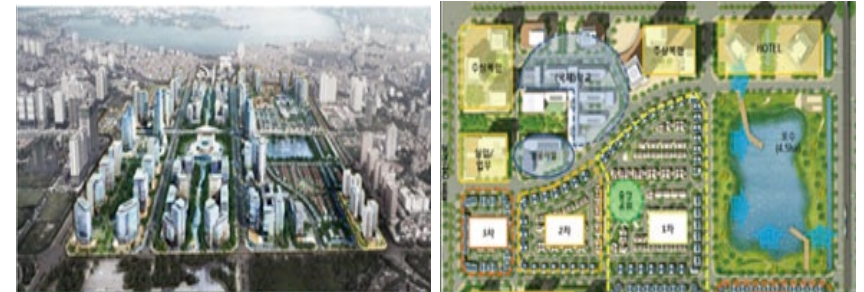
- 한양전공 3년간의 해외사업 발굴노력으로 사업권 확보했으나 사업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KIND 참여 및 제3의 주주(한국수력원자력) 확보를 통해 sponsor 구조 보강

- 적정 PF 규모 미달로, KIND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주주대여금으로 사업비용 제공
- Bankability 확보를 위해 칠레 운영경험이 많은 S-Energy를 O&M Contractor로 확보
- 2018년 칠레 Talca 태양광 투자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PMGD\* 시장 진입
  - \* PMGD (Pequenos de Generation Distribuidos)는 10M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의미, 타 PPA의 평균 가격에 향후 4년간의 Spot Price 전망치를 반영한 안정화 가격을 6개월 마다 발표하여 적용

■ 도시개발: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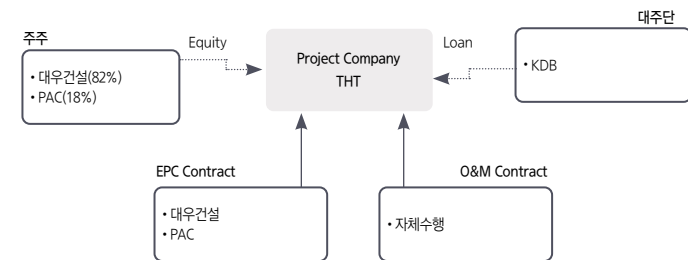
- 흔히 부동산개발이라고도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다른 인프라사업과는 그 수익구조 및 사업 형태가 많이 다름
  - 일반적인 인프라 사업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투자자의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
  - 도시개발사업은 건설 후 자산의 분양을 통해 수익을 회수하거나 초기 몇 년 운영후 매각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대부분의 사업리스크가 분양과 매각가치에 집중되어 있어 통상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
- 대우건설이 베트남 자회사 THT디벨롭먼트를 통해 개발하는 초고층 호텔·비즈니스 빌딩과 복합쇼핑몰 사업
- 1996년 대우건설이 베트남 정부에 신도시 조성을 제안하면서 시작한 최초의 한국형 신도시 수출 사업

▶ 프로젝트 개요



Project Name	베트남 하노이 THT 신도시 개발사업(Starlake City)
Project Description	· 사업기간 : 2010~2019년 · 약 63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 -1단계 : 35만평 - 상업 및 업무용지 조성 판매 (20만평) - 주거용 외 개발 및 주택건설/분양(8만평)
사업주	대우건설 (82%), PAC(18%)
총 사업비	USD 2,530 Mil (1단계: USE 1,070 Mil)
공사비	USD 520 Mil
시공사	대우건설
사업형태	BOO

▶ 사업 구조



나. 기후변화 대응 신사업 분야

- 친환경 발전분야 점유율 확대 전망
  - 주요 전력원별 총 전력량 전망(2020~2050) 분석 결과, 화석연료 발전의 지속적인 감소,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포집기술을 활용한 화석연료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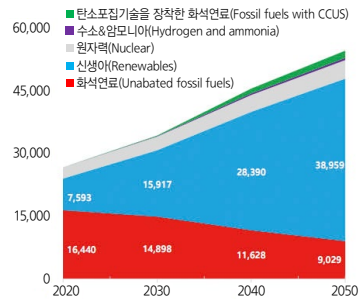


시장의 확대 전망

- 특히 신재생 전력량이 2030년 46%를 점유하면서 화석연료(43%)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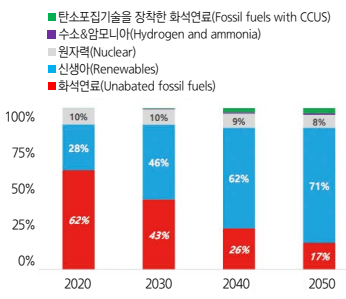
\* 2020년 재생에너지 시장규모는 약 3,000억불 수준으로 태양광(2010~2020년간 CAGR: 3.9%) 및 풍력(CAGR: 3.8%)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발전설비용량 증가 추세

주요 전력원별 총 전력량 전망(단위: TWh)



출처: 미국에너지청(IEA)

주요 전력원별 총 전력량 비중(단위: %)



출처: 미국에너지청(IEA)

- COP26을 계기로 탈 석탄의 가속화는 지속될 것이나, 중간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 만으로는 전력수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기후변화 이슈 대응 관련 특화 사업을 개발 등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2년 7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포함

기후변화 이슈 대응을 위한 유망 사업

공종	세부분야	유망사업군
산업설비	에너지	• 신재생 발전, 에너지저장시설(ess) • 수소 생산·저장·운송 인프라, 원전 등
	폐기물 처리 친환경 소재	•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플랜트, 친환경 매립 • 친환경소재 제조 플랜트
토목	친환경 차세대 교통	• 대중교통(도시철도·버스체계), 지능형교통체계(ITS) •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전통 인프라	• 개발도상국 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분야 투자개발형 사업
건축	도시개발·인프라	• 스마트시티, 도지재생, 사회주택, 의료·방역시설
	디지털·스마트	• 데이터센터, 물류시스템

- 특히 '20년 기준 원전을 통한 전력량은 2,692TWh인데 '30년에는 3,282TWh로 확대될 전망
  - IAEA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2023년 1월 전 세계 원전은 시공 중 57기(18개국), 계획 중 104기(16개국)로 조사됨
  - 중국, 인도 외에 이집트, 폴란드 등에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대형원전(1,000~1,400MW) 대비 안정성·경제성을 보유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사업기회도 증가할 전망

주요국의 원자력 발전 계획

구분	주요 계획
중국	'36년까지 원전 150기 건설
인도	'30년까지 원전 21기 건설
러시아	'30년까지 원전 비중 25~30%로 확대
이집트, 폴란드, 체코, 베트남 등	원전 프로그램 재개 추진 중

\* 출처: 세종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 언론사 종합

다. 모듈러 건설

- 3차원 입체 형상의 시설물 구성요소를 제작, 조립하는 방식을 통한 비용 및 공기 절감
  - 모듈: 표준화된 조각 개념으로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 및 플랜트부문에 적용 가능
  - Prefabrication: 현장 설치 이전에 시설물 구성요소를 제작, 조립



플랜트 모듈 운반

출처: 대우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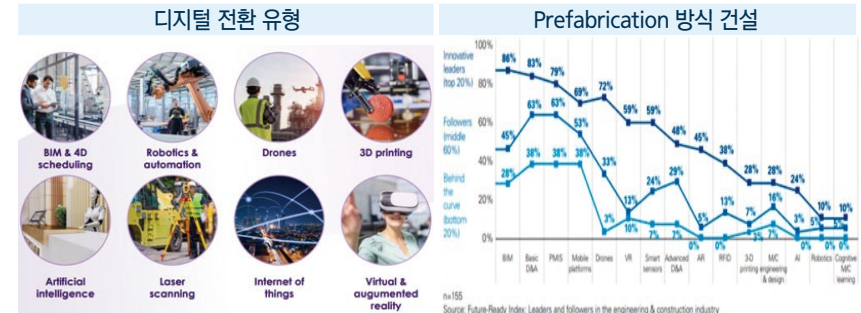
Prefabrication 방식 건설

출처: 포스코건설

- 숙련기술자 감소·고령화, 생산성 정체, 불확실성 및 지속가능성 요구 증대에 따른 모듈러건설 수요 증가 추세
  - 현장 투입인력 소요 감소, 비숙련 기술자 활용 가능,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사전 제작공정의 자동화
  - 기상·기후 영향 최소화, 혁신적 공기·공사비 단축, 공기·공사비 예측 가능, 사업 참여주체 간소화
  - 작업현장 안전성 향상, 생산 품질관리 향상, 폐기물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 향상

- KPMG에 따르면, 혁신 리더(Top 20%)는 BIM(86%), Drone(72%), VR(59%), Robotics(10%) 등 스마트기술 등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 대부분 80% 수준의 기업들은 이러한 스마트 기술 적용에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출처: IFS, ENR

\* 출처: KPMG

- BIM: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털 모형
  - 2차원 도면 환경에서는 달성이 어려웠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의 사업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설계품질 및 생산성 향상, 시공오차 최소화, 체계적 유지관리 등이 가능해짐
  - 건설 프로세스의 최적화와 생산성 개선에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사업 정보 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참여자간의 협업 체계의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
-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BIM 모델 기반의 가상 건축물 체험을 통해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발주자 및 최종 사용자의 사업 참여도 제고 가능
- 3D Printing: 적층 제조라고도 하는 3D 프린팅은 3D 모델의 연속 횡단면에 해당하는 레이어에 재료를 추가하여 객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프로

글로벌 IT기업의 모듈러 건설 투자



아마존(Amazon)

- 모듈러 주택기업 Plant Prefab 투자
- 인공지능 서비스 등 스마트기술 투입



구글(Google)

- 모듈러 주택기업 Factory OS 계약체결
- 실리콘밸리 지역 주택건설 추진



**Amazon makes first investment in a homebuilder, backing start-up focused on prefabricated houses**

PUBLISHED TUE, SEP 25 2018-1:00 PM EDT | UPDATED WED, SEP 26 2018-7:34 AM EDT

**THE WALL STREET JOURNAL.**

US \$1 FOR 2 MO

me World U.S. Politics Economy Business Tech Markets Opinion Life & Arts Real Estate WSJ Magazine

U.S.

**Google Will Buy Modular Homes to Address Housing Cru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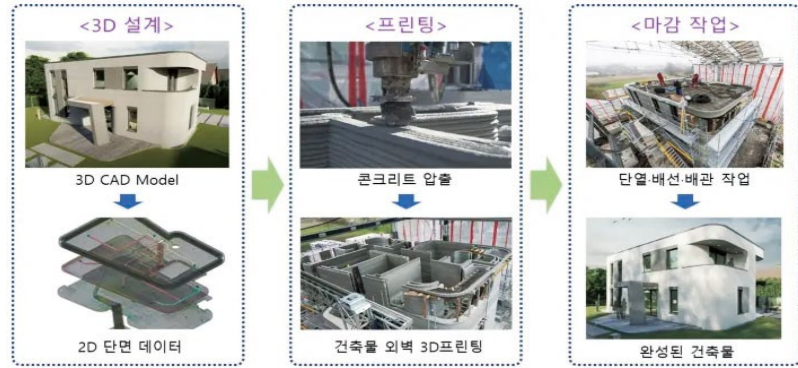
Silicon Valley giant aims to buy 300 apartment units amid stiff Bay Area market

**라. Digital Transformation**

- 건설산업의 생존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BIM, Drone, VR, Robotics 기술과 건설부문간 융·복합 등 디지털 전환이 필수로 인식되고 있음

세스로 모듈러 공법과 연계 또는 시설물을 현장에서 직접 프린팅

3D 프린팅기술 건축기술 개념도



\*제공: 특허청

- 드론: 이미지, 비디오, 지형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현장의 자산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
- 지능형 건설장비: 원격관리시스템을 장착을 통해 웹사이트에서 가동 상태 조회, 분석은 물론 스마트폰 앱으로 어디서든 건설장비 제어 가능

제주도 00아파트 토공사 현장 적용사례



\* 출처: 건설기술/쌍용(4차 산업혁명과 건설 자동화 혁신기술/서중원 교수(2019)

마. 해외건설 영역 확장 가능성

- 차세대 에너지, 신소재 및 스마트한 공중으로 진화
  - 플랜트 핵융합, 바이오 정제, 수소 에너지(액화수소) 등 친환경 플랜트 건설 경험확보 및 상용화
  - 토목 하이퍼 튜브\* 등 신소재 발굴을 통한 교통 인프라 혁신 선점
    - \* 구글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2040년까지 가장 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주장
  - 건축 자가진단 기능, 에너지 효율성 확보 및 친환경 스마트 빌딩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인증 및 기술력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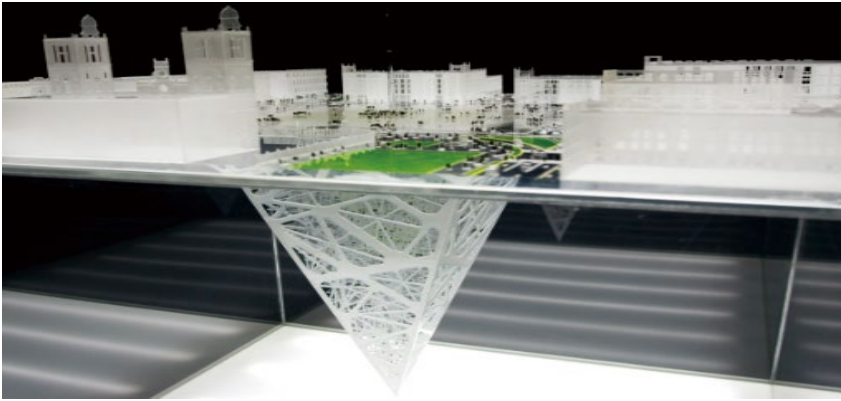
\* 출처: 동아사이언스

\* 출처: Spac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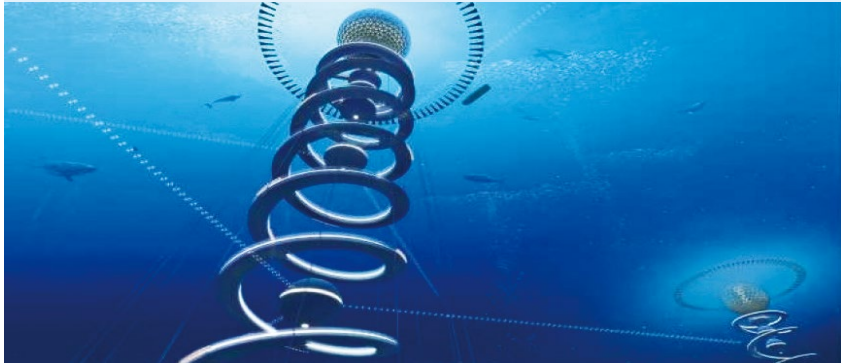
-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지역을 넘어선 지하, 해저 및 우주 진출 확대 추세
  - 지하 지반구조, 채광, 통풍시설 등을 고려한 지하특화 구조물 활성화
    - \* 캐나다 몬트리올의 언더그라운드 시티, 멕시코 Earth Scraper
  - 해저 수압, 유속, 유량 등을 고려한 해저기지 및 해양 에너지시설 진출 확대
    - \* Shimizu Ocean Spirals
  - 우주 현지소재 활용 3D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달, 화성 등 광물 채광 시설 및 모듈화 우주정거장 건설
    - \* Obayashi 우주 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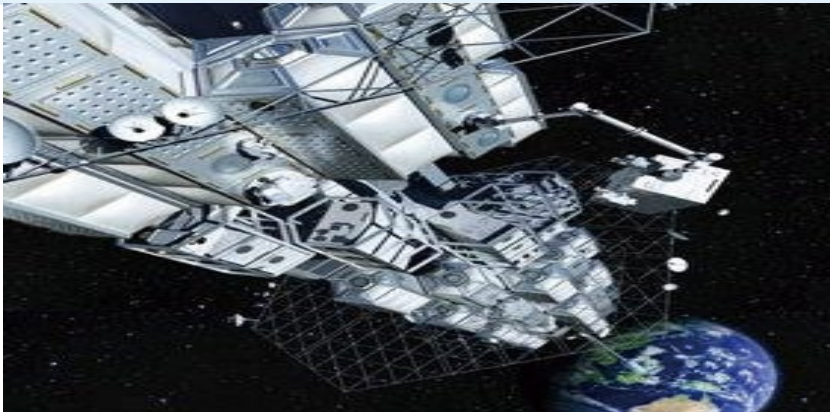
멕시코 Earth Scraper 조감도(출처: CNN)



시미즈건설 Ocean Spirals



오바야시 우주 엘리베이터



**단원 요약**

- ▶ **현재 추세 / 일반적으로 일반도급 공사에서 건설사는 EPC 업무만을 수행하는데 반해 시공자 금융주선형과 투자개발형은 EPC+금융(Financing)이 요구되며 시공자 금융주선형은 사업의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금액의 기성을 수령하지만 인프라 개발사업은 건설사의 수익이 사업의 성과와 연동**
  - 도급 사업의 범위는 발주처 예산, 시공자 금융, 그룹자체 공사 및 ODA 재원 프로젝트로 여전히 높은 점유율 차지
  - 발주처 예산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중동지역에서 92.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기 및 산업설비 부문에서 80% 이상 차지
  - 시공자 금융주선형 프로젝트는 중남미지역에서 2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설비부문에서 금융주선 요구 증가세
  - 개발형 프로젝트는 선진권역(유럽, 북미·태평양)을 중심으로 토목부문에서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
  
- ▶ **(미래 추세) 기후이슈 대응을 비롯한 디지털 전환 및 모듈러 건설 등을 통한 비용 및 공기 절감**
  - 코로나19로 촉발된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천연가스, 수소 인프라 등 신재생 에너지, 의료방역시설, 지능형 교통시스템, 공공인프라 투자개발사업 유망
  - 건설산업의 생존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BIM, Drone, VR, Robotics 기술과 건설부문간 융복합 등 디지털 전환이 필수로 인식되고 있음
  - 숙련기술자 감소·고령화, 생산성 정체, 불확실성 및 지속가능성 요구 증대에 따른 모듈러건설 등에 대한 수요 증가추세
  
- ▶ **해외건설 영역 확장 가능성 / 차세대 에너지, 신소재 및 스마트한 공중으로 진화,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지역을 넘어선 지하, 해저 및 우주 진출 확대 추세**
  - 플랜트 / 핵융합, 바이오 정제, 수소 에너지(액화수소) 등 친환경 플랜트 건설 경험 확보 및 상용화
  - 토목 / 하이퍼 튜브 등 신소재 발굴을 통한 교통 인프라 혁신 선점
  - 건축 / 자가진단 기능, 에너지 효율성 확보 및 친환경 스마트 빌딩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인증 및 기술력 확보 필요

# 4 해외건설촉진법

## Check Point

- 해외건설촉진법 개요
- 해외건설촉진법 주요내용 이해
- 해외건설과 연계된 주요 관련법은 무엇이 있는가?

### 가. 개요

- **제정일** 1975.12.31(시행 1976.4.1)
- **목적** 해외건설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

#### ● 본문 구성

구분	조항	주요 내용
1장 총칙	제1조 ~ 제5조	목적, 용어 정의, 타 법률과의 관계, 해외건설업자 지원, 진흥기본계획 수립
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제6조	신고 대상
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제10조, 제13조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상황보고
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제15조의2 ~ 제18조의3	해외중소건설업자 지원, 해외건설정책 및 연구개발, 국제협력 지원, 금융자문, 정보체계 구축,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해외건설진흥위원회, 기술개발 등
5장 해외건설집합 투자기구	제19조 ~ 제19조의7	설립목적, 등록 등에 관한 협의, 존립기간, 감독·검사, 자산운용 범위, 등
6장 해외건설협회	제23조 ~ 제28조	설립, 업무, 총회, 임원, 지도·감독 등

6장 해외건설협회	제23조 ~ 제28조	설립, 업무, 총회, 임원, 지도·감독 등
7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2 ~ 제28조의22	설립, 자본금, 운영위원회, 임원 및 직원, 이사회, 업무, 재무 및 회계, 차입, 채권발행, 지도·감독 등
8장 감독	제33조	대리시공
9장 보칙	제34조, 제34조의2	권한 위탁 등
10장 벌칙	제37조 ~ 제41조	부실시공, 중대한 손괴발생, 허위신고, 미신고, 양벌규정, 과태료

### 나. 주요 내용

- **해외공사의 범위** 인프라, 플랜트 등 시공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및 투자개발사업 등을 모두 포함
  - **해외건설공사**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調達)·시험·감리·시운전(試運轉)·평가·자문·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및 그 밖에 가목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해외건설업 신고 대상**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환경전문공사업, 건설엔지니어링업,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신고자격: 신고 대상 업종을 국내에서 등록한 자
  - 신고 면제대상: 주요 공단 및 공사(공기업)

신고업종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업체수	수리건수	업체수	수리건수	업체수	수리건수	업체수	수리건수
합계	6,261	9,654	140	407	264	739	5,857	8,508
종합건설업	1,706	2,175	58	109	121	215	1,527	1,851
전기공사업	1,398	1,398	67	67	111	111	1,220	1,220
정보통신공사업	752	752	57	57	73	73	622	622
건설엔지니어링업	836	836	60	60	57	57	719	719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407	407	20	20	26	26	361	361
전문건설업	2,359	3,901	28	51	102	234	2,229	3,616
환경전문공사업	131	131	24	24	21	21	86	86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6	36	1	1	2	2	33	33

- **현지법인 설립 신고**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지역	총계	국가	업체수	법인수	최초상담신고업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43	46	1976/08/10, 디엘이엔씨	
	아랍에미리트	26	26	2006/09/04, 더다울	
	카타르	10	11	2003/11/17, 정산	
	오만	9	10	2007/04/07, IWI	
	튀니지	9	10	2007/05/11, 삼원기업	
	알제리	6	6	1988/07/02, 태성건설	
	리비아	6	6	1993/04/17, 동아건설산업	
	모로코	3	4	2011/12/05, 태성산업사	
	수단	1	1	1980/08/25, 대우건설	
	요르단	1	1	2010/09/20, 삼영기업(1)	
	쿠웨이트	1	1	2019/01/22, 인천공항공사	
	소계		91	122	

- **해외공사 상황 보고 통보 대상** 해외건설업 신고필증을 득하거나 면제된 자가 해외에서 시공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및 투자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는 해외건설사업자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건설관련법 사례

**종합상사도 해외건설 활동을 할 수 있다?** Yes, 무역업자뿐만 아니라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은 해외건설신고 필증을 취득해 해외건설 활동을 할 수 있음

**국내 건설면허가 있으면 해외건설은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 No, 국내 면허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신고필증을 취득해야 하나 주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해외건설신고 필증만 면제, 상황보고 통보는 해야 함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상황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면 국토교통부에 생략해도 된다?** No, 국토교통부 장관 동의를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게도 통보해야 함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할리파  
(삼성물산)



# 해외건설사업 수행절차

- 1 도급사업 진행절차
- 2 개발사업 진행절차

PAR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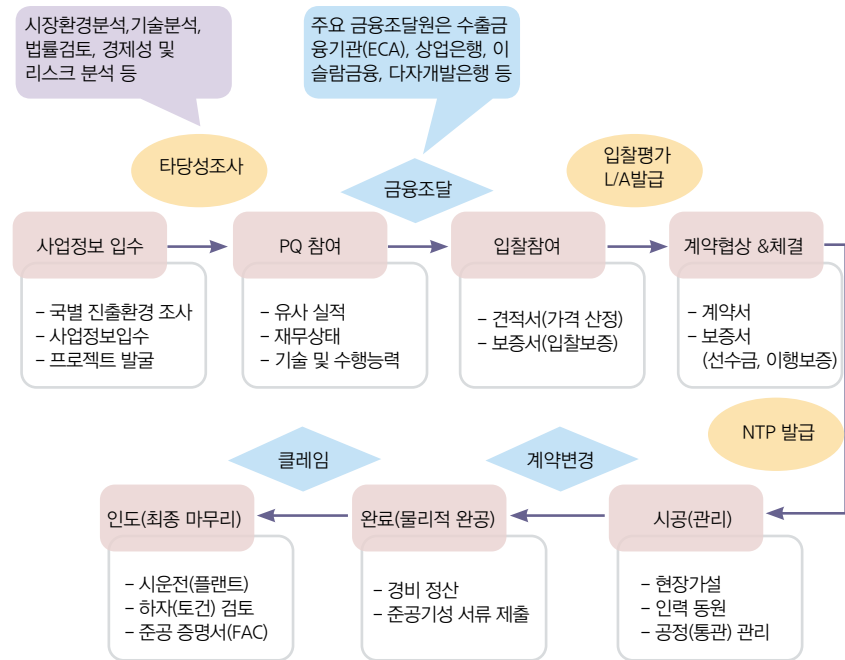


# 1 도급사업 진행절차

## Check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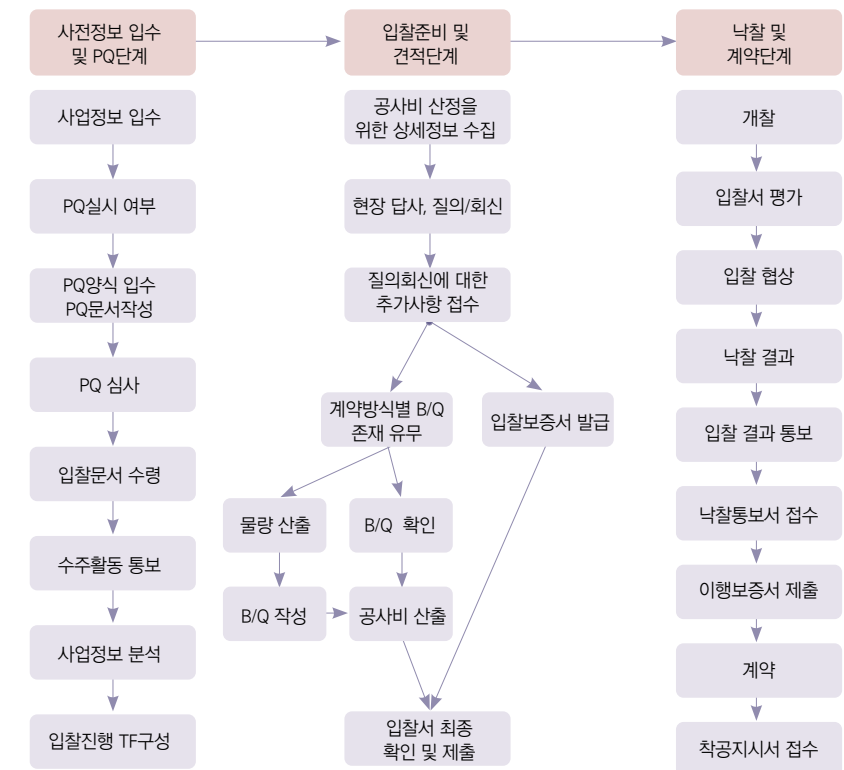
- 도급형 프로젝트의 이해
- 프로젝트 참여 절차를 통한 해외건설 프로세스 파악
- 입찰 참여 전 단계의 중요성 인식

해외 도급사업의 life cycle



- \* 원은 발주처에서 할 일이며 마음모는 기업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절차이나 최근 들어 타당성조사는 기업에서도 수행하는 경우 증가
- \* 입찰 참여단계 이후부터는 개발사업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

착공 이전 단계 Flow Chart



## 가. 사업정보 입수단계

### • 양질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곧 수주경쟁력

#### - 신규 프로젝트 정보 입수 경로

- \* 관보, 신문, 공사 정보지, 전문잡지, 인터넷
- \* 발주처, 기술회사 등의 네트워크
- \* 국제금융기관(World Bank, ADB, JBIC, IDB 등)의 공고
- \* 현지 에이전트/파트너
- \* 경쟁사 및 협력업체
- \* 국가경제 개발계획

- \* 정책수립기관
- \* PM(Project Management), 컨설턴트 등
- 신규 사업 개발계획 및 공사발주정보 수집
  - \* 신규 사업 개발계획 및 단계별 발주계획 수집
  - \* 발주처의 계획예산 파악
  - \* 발주형태(공개경쟁, 지명경쟁, 단독수의 등) 및 계약형태(일괄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총액 및 단가 혼합계약 등) 파악

○ 입수된 사업정보 검토

- 다른 정보망을 통한 관계자료 추가입수
- 발주처와 기 계약관계에 있는 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사의 발주 진행상황
- 발주처 동향과 담당관 의견 등 고려

○ 외국기업,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 동향 조사

- 해당사업에 참여할만한 경쟁업체
- 현지기업 또는 외국경쟁업체의 수주활동
- 기 진출업체의 영업실태와 손익결과
- 국제금융기관 및 자금지원기관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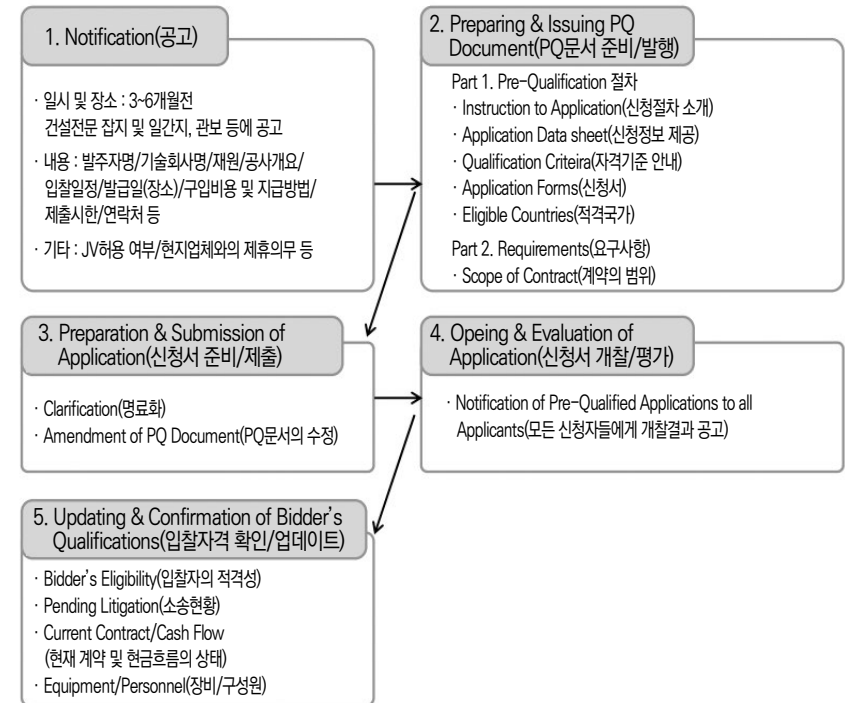
나. 사전자격 심사(PQ)단계

- 입찰을 실시하기 전 특정 계약을 수행할 기업들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 PQ)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만을 입찰에 초청하는 제한경쟁입찰 절차
  - \* 사전에 잠재적 입찰자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기업에게 입찰 허용
- 제한된 업체에게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등록시킨 후, 년 단위 또는 주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하며 이미 등록된 기업에 한정하여 별도로 PQ를 진

행하는 경우가 많음

- 해당 사업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경험 및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적격성, 신용도, 재무상태, 시공능력 등의 항목을 여러 기준에 의하여 평가됨
- PQ 구비 서류 확인 → 신청자 적격성 → 신청서 검토 → Clarification 및 Response → 평가(Pass or Disqualified) → Short-listing → 결과 통보

PQ 진행 절차



- Pre-Qualification 단계를 진행하지 않는 입찰의 경우, 발주자는 신문 및 건설전문 잡지, 관보 등을 통하여 입찰공고문(Notice for Tender)을 게재

◎ 입찰(PQ) 참여시 고려사항(필요 정보)

항 목	주요 내용
제도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 및 계약제도</li> <li>• 계약서 양식</li> <li>•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법규/제도</li> <li>• 출입국 관리제도</li> </ul>
금융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신용도</li> <li>• 통화안정성</li> <li>• 금융제도와 국제금리 수준</li> <li>• 각종 세제 및 특혜</li> <li>• 국제, 국내, 현지 보험제도</li> <li>• 송금절차 및 송금규제 제도</li> </ul>
사회, 문화,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정도</li> <li>• 문화적 차이</li> <li>• 업무관행, 정치적 투명성</li> <li>• 기후조건</li> <li>• 지형, 지질 등의 지리적조건</li> <li>• 언어 환경</li> </ul>
건설산업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건설시장 특징</li> <li>• 현지 건설산업 성숙도</li> <li>• 기자재 공급사정</li> <li>• 현지 노동시장 여건</li> <li>• 현지기업 및 기 진출 외국기업 동향</li> <li>• 기 진출 국내기업 경험(성공&amp;실패사례)</li> </ul>

- ◎ 일반적인 건설기업들은 입찰 참여 전, 파트너 선정 → 협력방안 결정(J/V, 컨소시엄, 하청 등) → Agreement 체결 → 정보교환(발주처, 경쟁사, 견적 정보) → 입찰전략 수립/이행 절차를 따름

J/V와 컨소시엄의 차이

J/V(Joint Venture)	컨소시엄(Consort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분담(업무영역) 없음</li> <li>• 공동 수행(공동수행 조직 구성)</li> <li>• 손익, 자금, 인력 및 기자재 공동 (비율) 조달</li> <li>• PQ제출, J/V 명의로</li> <li>• Ex: EPC는 C사(A사 및 B사의 J/V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분담(업무영역)이 명확</li> <li>• 각자 수행(별도 수행조직 구성)</li> <li>• 손익, 자금, 인력 및 기자재 각자 조달</li> <li>• PQ제출, 각 기업별(연합체)로</li> <li>• Ex: E&amp;P는 A사, C는 B사가 담당</li> </ul>

\* 건설공사의 경우, 여러 기업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기업들이 결합된 조직을 Joint Venture 또는 Consortium이라고 하며 Joint Venture나 Consortium 모두 둘 이상의 기업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한다는 면에서는 같으나 실무 적용에서는 구별

다. 입찰 참여단계

◎ 다양한 입찰 방식 존재

방식	주요 내용
경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시담 : 특정 기업을 지정하여 협상함</li> <li>• 경쟁입찰 : 입찰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 선정</li> </ul>
참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경쟁입찰 : 사전 자격제한 없이 입찰참여</li> <li>• 제한경쟁입찰 : 특정자격 총족기업 참여 허용</li> <li>• 지명경쟁입찰 : PQ 등을 통한 입찰자격 제한</li> <li>• 국내/외 입찰 : 참여기업 국적에 따라 제한</li> </ul>
입찰금액 (계약금액) 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ump Sum : 입찰금액을 총액으로 제시</li> <li>• Unit Price : 단가입찰 후 계약금액은 물량정산</li> <li>• Cost+Fee : 실비+이윤으로 입찰가 제시</li> <li>• CLSTK : 설계 시에는 Cost+Fee로 수행하며 추후 Lump Sum Turn Key로 전환</li> </ul>
도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청 : 원도급자 입찰</li> <li>• 하청 : 원도급자의 하청으로 입찰</li> </ul>

- ◎ 일반적인 입찰서류는 입찰지침 및 안내, 입찰서 양식 및 부록, (비밀)협약서, 입찰보증 양식, 이행보증 양식, 선금보증 양식, 일반계약조건, 특수 계약조건, 일반계약조건에 추가 및 수정될 사항, 시방서, 물량내역서, 입찰도면, 입찰제출 양식, 보충 정보 및 입찰 서류 보완·수정으로 구성

- ◎ 발주자는 입찰서를 발급한 이후 입찰서의 상세내용과 공사현장의 여건 및 주변상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장설명회의(Pre-Tender Meeting)를 개최하고 현장조사(Site Survey) 주선
  - 발주자 및 설계사(Designer) 측 엔지니어들이 입찰자들을 안내하면서 현장여건 설명

- 발주자는 입찰자들에게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장설명회의 회의록(MOM, Minutes of Meeting)을 모두 취합하여 배포
- 배포된 회의록은 계약 시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 조사 및 검토 필요
  - \* 건설현장 상세정보(전력, 가스 등의 현황, 가설시설 및 자재적재를 위한 공간, 토사채취장, 사업 장애요소 등)
  - \* 현지동향(정치, 경제, 환율, 진출기업, 정부규제 등)
  - \* 현지 기후(온도, 습도, 강우량, 계절풍 등) 및 지질정보
  - \* 세금, 보험, 보증 등
  - \* 현지 법규, 조례, 수출입 제한규정 등
  - \* 각종 인허가, 공공기관 업무진행 방법 등
  - \* 운송, 보급 수단 및 시설, 현장 접근성(도로 및 통신)
  - \* 현지 조달가능 자원(인력, 임대장비, 자재공급자, 생산자, 하청기업 등)
  - \* 환경규제, 소음규제 등 건설사업 규제요소
  - \* 입찰서류, 도면, 시방서(공사에 대한 표준안,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재료에 대한 성질과 특성이나, 상품 등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한 사용설명서) 등과 상이한 점

- 입찰의 목적물인 공사를 시방 및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완공시키는데 소요되는 자재비, 장비비, 인건비, 하청비, 간접비, 기타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하는 총공사비를 시행 가능한 공법 등의 적용을 통해 경쟁적인 금액으로 도출해내는 일련의 작업인 견적서를 작성해야 함
  - 물량산출 및 BOQ(Bill of Quantity) 작성
  - 외주, 자재, 장비 등 필요한 단가 및 금액에 대하여 현지, 국내 및 기타 국가의 기업에게 견적 의뢰
  - 직접비 일위대가(Breakdown) 및 직접공사비 산출
  - 세금 및 관세 산출(국내외 건설공사 중 가장 큰 차이점)

## 라. 계약단계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를 검토를 통해 최종 낙찰자 선정하는 입찰서

평가(Bid Evaluation)후 계약 체결

- 발주자로부터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 또는 낙찰의향서(Letter of Intent)가 발급되면 신속히 착공 준비
- 계약체결 시 이행 보증서(Performance Security)/선수금 보증서(Advance Payment Guarantee)제출 후 입찰 보증서(Bid Security) 반환
  - \* 이행보증은 5~10% 수준이나 개발형 프로젝트의 경우 25% 정도가 대세

### ○ 계약서 검토시 체크 리스트

체크 사항	주요 내용
계약서 작성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작성되는데 특히 정부발주 프로젝트는 분쟁 발생시 해당국 언어가 우선시 됨</li> <li>• 중동(아랍어), 중남미(스페인어), 아프리카(볼어), 아시아(현지어) 등 문제소지에 대비 필요</li> </ul>
표준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건설관련기관에서 계약표준문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FIDIC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계약표준</li> <li>• FIDIC에서는 발주처와 건설기업 사이에 엔지니어링사를 두고 있는데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발주처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음</li> </ul>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합의서 및 변경내용</li> <li>• 계약이전의 회의내용(MOM), 확정사항 및 통신문</li> <li>• 입찰자 통지사항(Notice to Tender)</li> <li>• 시방서(Specification)</li> <li>• 계약도면(Drawings)</li> <li>• 계약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 of Contract)</li> <li>• 계약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li> <li>• 금액 및 물량내역서</li> <li>• 단가 산출내역서</li> </ul>
선금(Advance Payment)	
기성지불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화폐(최소금액)</li> <li>• 기성주기(지불기한)</li> </ul>
공기(공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기산일: 착공지시서(NTP) 발급일, 현장인수일</li> <li>• 준공일 : 우선준공일, Milestones, 전체준공일</li> </ul>

체크 사항	주요 내용
절차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지연 보상금</li> <li>• 성능보장</li> <li>• 생산량 보증</li> <li>• 전력소비</li> <li>• 소음, 분진</li> <li>• 방출물질(폐수, 폐유, 산업 폐기물) 등</li> </ul>
보증 및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이행보증서(Performance Security)</li> <li>• 선금보증서(Advance Payment Guarantee)</li> <li>• 유보금보증서(Retention Guarantee)</li> <li>• 공사보험, 노동자 재해보상보험, 해상적화보험 등</li> </ul>
계약해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가 계약상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li> <li>• 발주자가 당연한 확인서의 발행을 방해할 경우</li> <li>• 발주자가 지급기한이 지난후 28일내 기성지급을 못할 경우</li> <li>•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을 경우</li> <li>• 시공 지시를 받고 28일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li> <li>• 시공자가 시정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무시할 경우</li> </ul>
공사 중단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항력(Force Majeure) 또는 예외적인 사건</li> <li>• 도면과 명세서의 불일치 경우</li> <li>• 공사변경 및 공사 연기에 관한 구체적 지시 발생시</li> </ul>
인력 및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인 및 외국인 고용 규정</li> <li>• 장비의 규격 제한 및 현지자재 사용규정 및 품질 규정</li> </ul>
Esca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시점 대비 물가 및 환율 변동시 기성 조정</li> </ul>
제세조건 및 현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재 통관세 및 법인세</li> <li>•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li> </ul>
계약서류 간 모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방서, 도면, BOQ상의 모순점</li> <li>• 계약서 우선순위 원칙 적용</li> </ul>

## 마. 시공단계

- Project Team 구성** 핵심요원(소장, 공무담당, 공사담당, 품질관리담당, 관리담당)을 인선하고 산하 조직구성원들 선발
- 프로젝트 수행 준비**(가설 및 부대시설 계획, 보증과 보험 등)
  - 계약(예정)서 검토
  - 현지답사(Site Survey)실시
  - 유사 프로젝트 자료 확보
  -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 확보
  - 수행계획서 작성
    - \* 작성도구(Tool), 공정표의 수준 (Level of Plan), Monitoring 방법 등을 구성
    - \* 시공해야 할 범위 파악
    - \* 주요공사에 대한 공정 수립 → 전후 연관공사 소요공정 추가
    - \* 자원동원(자재, 장비, 인력, 소모자재, 공도구류 등) 계획 작성
  - 실행예산 산정
    - \* 공정표와 연계하여 투입할 자원의 종류와 물량을 결정
    - \* 직영, 하도급을 구분하고 하도급 분은 견적 의뢰, 접수
    - \* 가능하면 현장부임 전에 예산 확정
  - 가설시설 계획
    - \* 사무실 및 안전교육장, 식당, 탈의실 및 샤워실, 장비관리 설비, 작업장, 숙소 및 식당 등
  - 보증과 보험
    - \* 해외건설 보증은 일반적으로 발주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업이 재무나 신용상태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이며 보험은 발주처 신용위험, 발주국 비상사태 등에 의한 건설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입하게 됨(즉, 보증은 발주처를 위한 대비용도이며 보험은 건설사를 위한 용도임)

**토웅이앤씨 사례**

BH거더의 동남아시아 교량건설시장 창출 및 선점

**초기 실패 극복 과정**

**A. 수주 교섭대상 방향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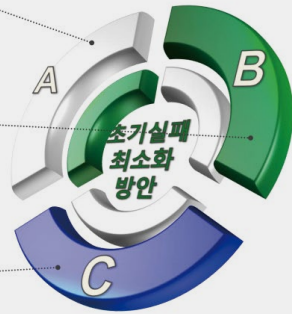
- 사업 초기 현지 국가기관 위주 수주교섭 실시
- 발주처 특성상 현지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실패 경험
- 이후 현지 설계사 대상 수주교섭 추진
-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계변경이 자유로운 특성 활용
- 경제성 위주의 평가를 통해 수주 성공

**B. 시공 리스크 최소화 방안 적용**

-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 직시
-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필요
- 많은 실패 경험을 통해 파트너사 선정기준 확립
- 사업에 대한 현지 파트너사의 적극성 필요
- 파트너십 체결 해당 기업에 대한 많은 조사 필요

**C. 현지 기술 신뢰도 확보**

- 기술사업의 경우 초기 실적 확보를 위해 기술 신뢰도 확보 필요
- 공신력 있는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업 추진 필요
- 당사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원을 통해 현지 실물 실험 실시
- 공개 실험 당시 현지 유관기관 관계자 120여명 초청
- 이를 기반으로 현재 후속 프로젝트 추진 중



**제조업화 전략**



말레이시아 제작장

**분절형 BH거더 적용을 통한 제조업 형식 적용 가능**

- 기존 20m 이상 PSC 거더 공법의 경우 공도에서 운반 불가능
- 공장제작을 위해서는 분절화 기술의 적용 필요
- 2017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절화 실험 실시
- 2018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60m 분절형 BH거더 현지실물 공개실험 실시
- 현재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60m 3분절 BH거더 제작 중
- 2019년 10월 해외에서 첫 번째 BH거더 거치 완료



분절형 공법 적용

**주문 생산 방식 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재고관리 가능**

- 교량 사공의 특성상 주문 후 제작 방식 적용
- 수주물량에 따라 공장에서 분절형 BH거더 제작 가능
- 재고관리가 수월한 주문 후 생산 가능
- 교량 가설 등 일부 공정 제외 제조업 형식 운영 가능
- 공장 생산 방식을 통해 공정 효율화 가능
- 원가 절감 및 무재고 사업 진행 가능
- 품질 관리 및 유지 효율성 개선 가능

출처: 2019년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 행정 관리**

- 민원/인허가: 현장운영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본 공사 착수 전에 가설물설치 시에 대부분 검토(민원의 대부분은 노무관리와 안전관리 부문에서 발생)
- 출입국비자 및 Work Permit: 현지 관할관청의 위치 등으로 미루어 중심지에 위치한 지사를 통하여 관리
- 현장출입, 운전면허증, 출퇴근 차량 관리 등

**○ 회계 관리**

-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수입 및 비용의 회계처리와 현지 전도금 정산 및 결산업무
- 공사소요자금 및 기성금에 대한 자금 관리업무
- 현지국 세무당국에 공사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손익에 대한 현지 세무 신고업무
- 해외 현지에서 발생된 회계자료를 제도적으로 본사의 회계시스템과 연결하여 반영함으로써 본사가 회계결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결산자료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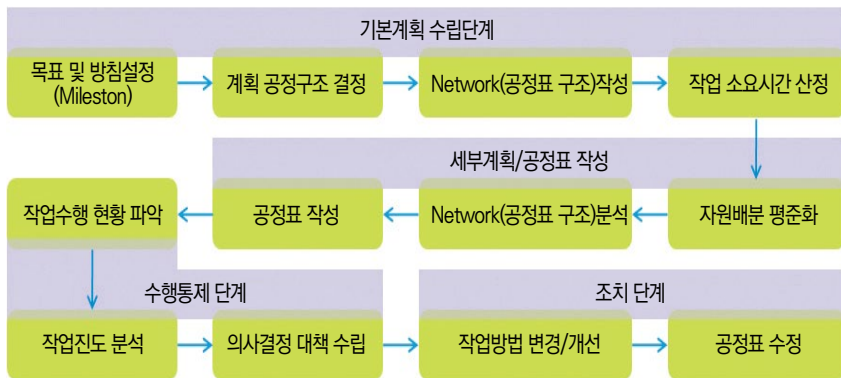
**○ 세무 관리**

- 공사수행 전 또는 공사 초기에 현지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등의 협조를 받아 현지 조세 및 회계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해당국에는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며 현지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회사에게 유리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함
- \* 사우디의 경우, 기업들과의 거래 시 금액이 큰 건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업들로부터 상업 등록증(CR)과 세무신고를 필요하다는 증명서인 Tax Clearance Certificate도 함께 징구하여 별도 보관 필요 → 현지 세무당국과 세금문제 발생 시, 기업간 거래내용 및 해당 기업의 세무신고 여부까지도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
- 현지 조세 및 회계에 관한 내용 파악(사우디)
  -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법인세는 외국기업 또는 합작회사의 외국인 지분에 대하여 세금 부과



- \*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Management Fee, Royalty, License Fee, 본사의 Service에 대한 지불(Engineering Fee 등), Rent, Technical 또는 Consultant Service Fee, 항공티켓, 항공 및 해상 운송료, 국제전화 Service, 배당금, 보험료, 대출이자 등에 차등 부과
- \* 관세(Custom Duty): 품목별로 차등 요율 부과
- \* 개인사업소득세: 외국인 근로자는 사우디 내의 거주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개인급여에 대해 비과세이지만, 외국인 자영업자가 자영업에서 버는 소득은 과세대상

○ 공정 관리



○ 자원 동원

- 인력: 국내 및 외국인력 1:9정도로 외국 인력은 최근 현지화정책 강화 추세로 비자 쿼터 책정
- 기자재: 발주처에서 벤더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요구

○ 하도급 관리

- 특수기술(공법)을 보유한 현지 내지는 국내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한 기업 활용
-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우수 발주처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요구 증가

○ 안전, 환경, 품질관리

- 프로젝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45001),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구축 및 운영
- 재해통계 관리를 비롯한 Method Statement(단계별로 위험요소의 개요를 포함한 완성하고자 하는 일이나 프로세스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 및 ITP(Inspection & Test Procedures) 작성, 관리

**ISO45001 및 ISO14001**

- ISO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ISO인증경영지원센터)
-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기업의 모든 활동이나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한국표준협회(KSA))

○ 자재/장비, 구매/통관

- 자재는 영구자재(Permanent Material), 가설자재(Temporary Material), 소모자재(Consumable Material)로 분류하여 통관하며 영구자재는 관세가 없고 가설자재는 재반출 조건이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모자재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
- 구매계획 작성 → 물량산출 → Vendor List 확보 → 견적요청 → 견적 접수, 평가, 구매결정 → 계약 → 진행상황 점검 → 통관/운송 → 목재/Scrap 처리

○ 설계변경과 공기연장/단축

- 설계변경은 대부분 공기변경과 비용 추가 발생
- 일반적인 해외공사의 계약조항은 설계변경에 따른 감리자(발주자 조직)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서면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명시



**포스코건설 사례**

파나마 콜론 복합화력 및 LNG Project(준공: '19년)

프로젝트 초창기 공기 지연 발생

- 엄청난 연간 강수량
- 년 8개월의 우기
- 현지 업체 선정 지연
- 작은 장비 고장
- 지반의 심각한 액상화 문제

-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 높은 현지인 채용 비율
- 강성 노조의 잦은 파업
-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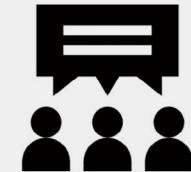
실패 및 갈등 극복과정

- 협력업체와 노조협의회 구성하여 노조 문제 적극 대응
- 협력업체 전문 기술인력 추가투입
- 설계사 기술자문으로 공법 개선 추진

**공법 개선 이외에도**

노조 관계 개선

- 1) 노조와의 적극적인 대화 추진
  - 노조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여 **대화**와 **조정**, **타협**을 통한 해결
  - 노조 협의회 구성 및 노조와 단합대회 실시
- 2) 현지 근로자들을 'POSCO Team'의 일원으로 동화하고자 하는 노력
  - 매월 생일자 파티, 현지인 모범 사원 및 안전 우수 사원 표창, 현지인 기념일 행사 개최
  - 현지 근로자들과 함께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아침 TBM (Tool Box Meeting)
  - 현지 고아원 후원 등



협력업체 유대 강화

- 1) 협력업체 업무 지원
  - 협력업체에 남미 근로자 관리 노하우 전수 및 가격 경쟁력 있는 **현지 자재 공급사 소개**
  - 지연 된 공기 만회를 위한 **전문 기술 인력 투입 비용 공동 부담, 공사 대금 즉시 지급** 등
- 2) 근무조 변경 및 3국인 근로자 투입
  - 주,야간 2교대 근무 실시를 위한 근무조 변경 및 태국인 근로자 추가 투입



출처: 2019년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분쟁과 클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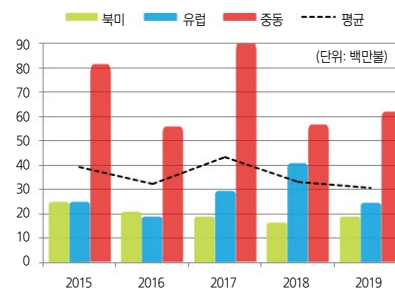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해외 프로젝트 계약조건에는 발주자(감리자 포함)와 시공자 사이에 분쟁사항이 발생하면 중재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중재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판결에 이르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다수)

\* 지난 2020년 3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공기 연장 시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정 요청 긴급레터 발송(중동 및 아시아지역 18개국, 49건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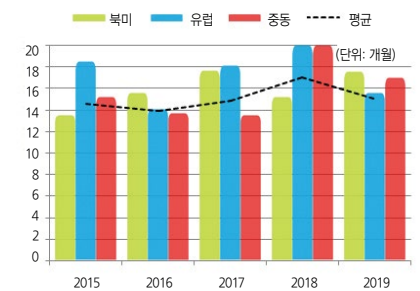
- 시공자가 클레임을 보상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증빙자료는 ①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인이 발생되었다는 증빙 내용 ② 시공자에게 손실이 발생되었다는 증빙 내용 등이 있음

- 참고로 ARCADIS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건설기업의 주력 시장인 중동지역에서 2015~2019년간 평균 분쟁기간은 약 15.9개월 정도이며 평균 분쟁규모는 약 6,950만불 수준으로 평균 대비 약 2배 수준(평균치는 분쟁규모 3,580만불, 분쟁기간 15개월)

글로벌 건설시장 분쟁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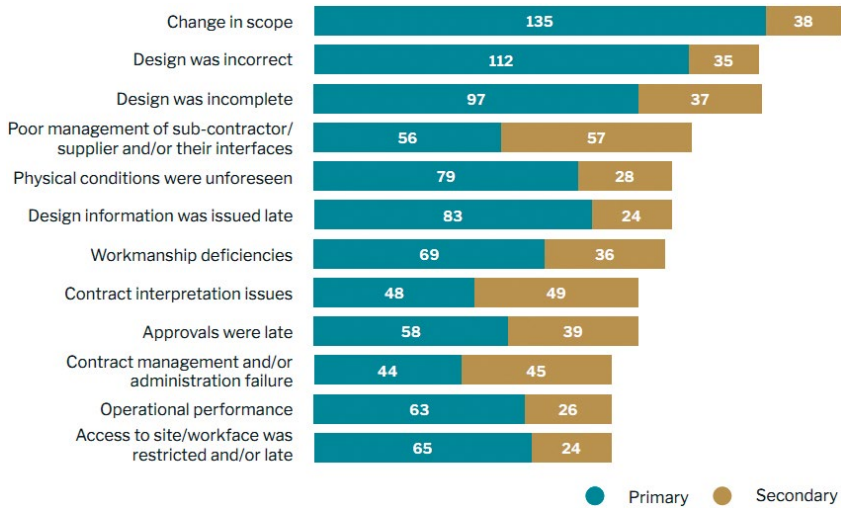
글로벌 건설시장 분쟁 기간 추이



\* 출처: Global Construction Disputes Report, ARCADIS, 2020

- CRUX Insight 자료에 의하면, 분쟁 및 클레임 주요 사유는 업역 변경, 설계 부정확 및 불완전, 하도급 및 구매·조달선 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20년 글로벌 분쟁사유 현황(단위: 건)



\* 출처: CRUX Insight-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 Regional Analysis of Causation, 2020

기성

- 대부분 해외공사에서의 기성은 매월 말에 집계하여 발주자에 보고하면 계약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발주자의 검토기간이 대략 4주(28일)가 소요
- 청구로부터 수령까지 통상 1~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니 계약 당시 선수금 규모와 현장의 Cash Flow를 고려하여 기성지급에 대한 조항을 적절히 협상
- 공사의 준공단계에 들어서면 미결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기성지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어 미처리로 남은 보상요구 문제, 미결사항 처리, 최종 기성, 유보금 해지, 하자보증 등 일괄협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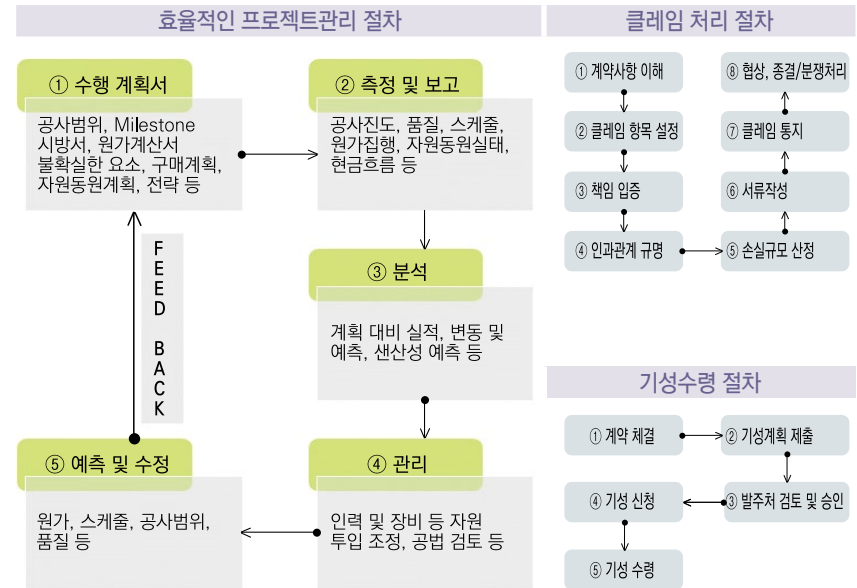
Provisional Sum(개산분)

- 확정되지 않은 작업으로 임시 비용적인 성격을 가지며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작업을 위해 사용
- 기 동원된 장비와 인력을 조금만 늘려 투입하면 효율적으로 공사를

소화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가 Provisional Sum의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 주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원가개선에 이바지 할 필요가 있음

Escalation(물가보상)

- 대부분 해외공사에서는 공사비에 물가보상을 적용하지 않음
- 하지만 World Bank나 ADB(Asian Development Bank) 등의 국제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조건에 물가보상 규정이 있음



바. 완료단계

- 모든 이행조건이 계약대로 수행되었을 경우 정산할 것 없이, 계약자가 초기에 걸어두었던 이행보증(P-Bond: Performance Bond)을 회수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산절차 필요

\* 공기 지연 시, 해당 지연일 만큼 발주처의 손실을 계산하여 지체 상금 지급(대부분 발주처와 분쟁 발생 가능성 큼)

\* 계약상 약정했던 성능(출력 및 효율 등)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부분만큼 발생하는 발주처의 손실을 계산하여 지불(큰 하자가 없는 한 발생 가능성 적음)

○ 준공증명서와 하자보수증명서

- 준공(실질적인 공사완료)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준공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 공사에서 계약적으로 요구하는 기능이 우선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작업 필요
- 대부분 프로젝트들은 1년 이상의 하자보수기간을 거쳐 하자보수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프로젝트 종결

○ 플랜트 프로젝트 Final Acceptance Certificate(최종인수증명서)

- Pre commissioning이 완료된 후, 원료를 공급하여 운전지침서(Operation Manual) 및 절차에 따라 시설물들을 Process Logic에 따라 차례로 가동하여 이들의 성능이 요구된 설계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조정, 확인하는 시험운전(Commissioning) 과정이 있음
- Commissioning(시운전)이 안정 상태에 도달하면 System이나 Process에 대해 제품규격, 품질 및 생산용량, 원료 및 Utility 소요량 등이 계약서에서 약정된 보증치(Guarantee Figure) 및 설계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
- Performance Guarantee Test(성능보증시험)이 완료된 후, 시험 중 수집된 자료(Operation Data)를 사용자와 계약자 간에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 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예비승인증명서(PAC, 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를 발행
- 실제 운전이 방해가 되지 않는 Minor Defects, Omission, Unfinished Parts(Punch Items)가 남아 있어도 프로젝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면 이를 Substantial Completion(실제적 준공)으로 간주
- Substantial Completion Certificate 발행된 후 정상 상업운전(Commercial Operation)을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기간(Warranty Period)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최종인수증명서(FAC)를 발행



단원 요약

도급형 프로젝트 수행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사업정보 입수	- 국별 진출환경 조사(현지 로펌&회계법인) - 사업정보 입수 및 프로젝트 발굴(발주처, 지사 등)	F/S
↓	공개, 제한, 지명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	발주처
사전자격심사 (PQ) 참여	- 기업 재무상태(일반정보, 재정, 소송기록 등) - 유사 실적(국내실적 인정 여부 확인 필요) - 기술 및 수행능력(현장 운영, 공법, 사업관리, 안전 및 품질관리, 하도급 및 기자재 공급처 등)	PQ 질의서
↓	Short List(PQ통과 기업 명부) 공고	발주처
입찰 참여	- 입찰 지시서 및 견적서(가격산정) - 시방서 및 입찰 도면 - 물량 내역서(B/Q) 및 보증서(입찰보증)	PQ 통과사
↓	기술 및 가격 입찰 평가→낙찰 통지서(L/A) 발급	발주처
계약협상&체결	- 계약서(금액, 공기, 특별&일반 조건 등) FIDIC국제표준계약조건 인용 - 보증서(선수금 및 이행 보증)	낙찰사
↓	착공 지시서(NTP) 발급	발주처
시공(관리)	- 현장가설 및 인력 동원, 구매 및 하도급 관리 - 공정(안전, 환경, 품질 등), 리스크 관리	계약사
↓	Variation Order Request → 계약 변경	"
완료 (물리적 완공)	- 프로젝트 경비 정산 - 준공기성 서류 제출 등	"
↓	클레임 관리	"
인도 (최종 마무리)	- 시운전(플랜트), 하자(토건) 검토 - 준공 증명서(FAC) 접수	"

\* 이상 도급사업 진행절차, 2020년 해외건설 실무지침서 재구성

## 2 개발사업 진행절차

### Check Point

- 개발형 프로젝트의 이해
- 개발형 프로젝트 프로세스 파악
- 사업 개발단계의 중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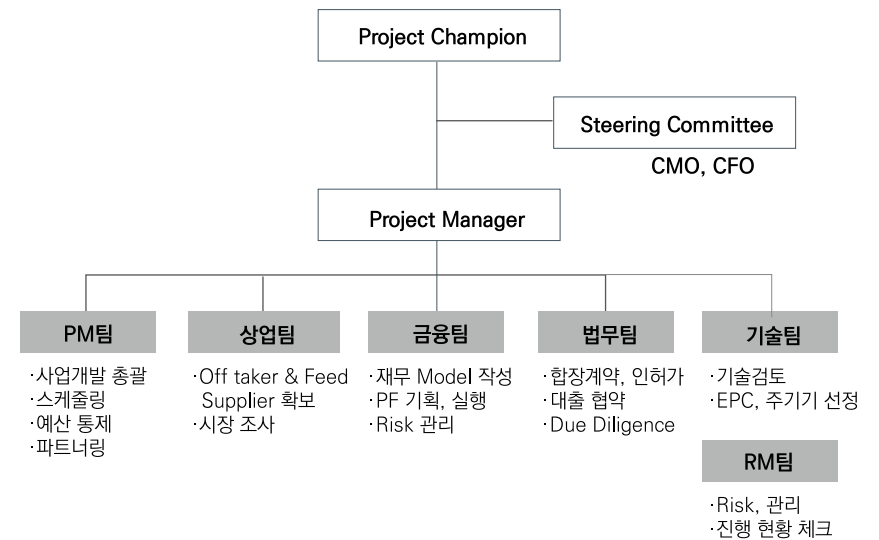
### 가. 사업의 발굴

- 사업개발의 여러 과정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단추를 채우는 사업의 발굴(Deal Sourcing)로, 어떤 정해진 틀이나 과정이 없이 매우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통해 이뤄짐
- 좋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 다양한 사업발굴원(Deal Sourcing Channel)을 확보하는 것과
  - 정보를 수집한 프로젝트의 옥석을 가려 제한된 자원으로 될 만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확보할 수 있는 사업발굴원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해외 정부·국제기구와 플랫폼 공동 설립, G2G 사업 발굴
  - 공공기관 정보 교류
  - 글로벌 개발사/건설사/자산운용사 활용
  - Law Firm, Consulting Firm 활용
  - KIND 타당성조사(F/S)사업 및 해외인프라 협력센터 정보
  - 정기간행물 모니터링(MEED, IJ Global, PF International 등)
- F/S를 할 만한 좋은 사업인지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수익모델, 파트너십,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조달 가능 여부)을 고려해야 함

### 나. 사업의 구상

- 사업발굴 및 추진에 관련된 주요 인사, 기관 등 Key Account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초기부터 사업개발과 관련된 리스크의 분석이 잘 이뤄져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인허가/토지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투입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선수단(Six Enablers)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과 그 대상들과의 초기 협의가 시작되어야 함

해외 사업개발 추진 TF 조직(예)



- 사업개발에 착수하게 되면 프로젝트별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팀(TF: Task Force)이 구성되어야 함
- 2~3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경우 합사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회사별로 합의된 역할과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담함



### 다. 사업 구조화와 6 Enabl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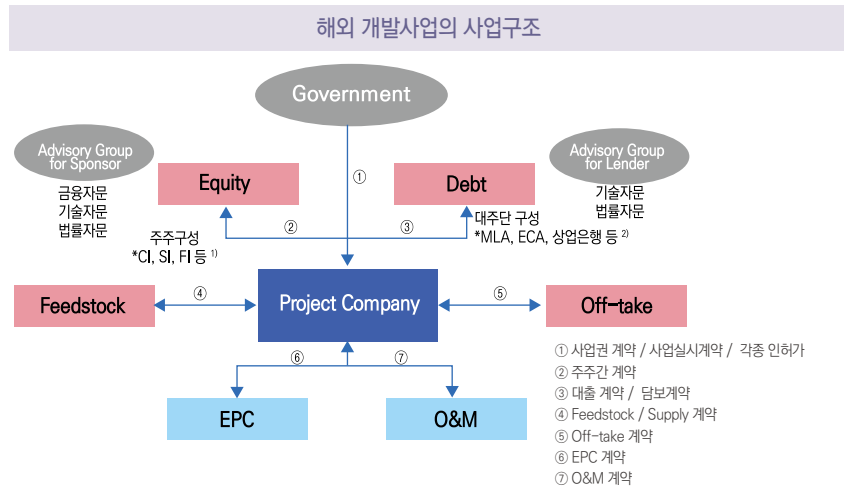
- 회사가 사업개발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명확히 정의하고, 그 추구 가치에 따라 사업개발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리더십을 갖고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사의 선정을 통해 사업개발 조직 내 각 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함
  - 개발사업은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던 법인이 아닌 목적하고 있는 개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진행됨
  - 특수목적법인을 중심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이 인증과 계약을 통해 목적 사업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사업구조화 (Deal Structuring) 이라고 함

- 대주단(Lender)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줌
- 원료공급자(Feedstock Supplier)
- 제품/용역의 구매자(Offtaker)
- 시공사(EPC Contractor)
- O&M 계약자(O&M Contractor) : 목적 사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

### 라. 협상과 Bankability(금융조달가능성) 확보

- 개발단계의 핵심은 사업구조화(Deal Structuring) 과정으로, 사업의 실행 가능성(Viability)과 금융조달가능성(Bank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계약체결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구조화함
  - Developer의 사업구상: 기본 사업계획, 토지, 인허가 확보 등
  - Sponsor그룹 구성: LOI → MOU → JDA
  - SPC 설립: Project의 본격적인 추진, JVA 체결
  - 사업타당성 확인: 자문단 선임, F/S, Due Diligence 수행
  - 사업주간 주주협약 체결: Shareholders Agreement
  - 장기구매/공급계약 체결: Supply Agreement, Offtake Agreement
  - 시공 및 운영계약 체결: EPC Agreement, O&M Agreement
  - 사업소재국 정부와의 실시협약 체결: Concession Agreement / Implementation Contract
  - 금융기관으로부터 PF금융조달 : Financing Agre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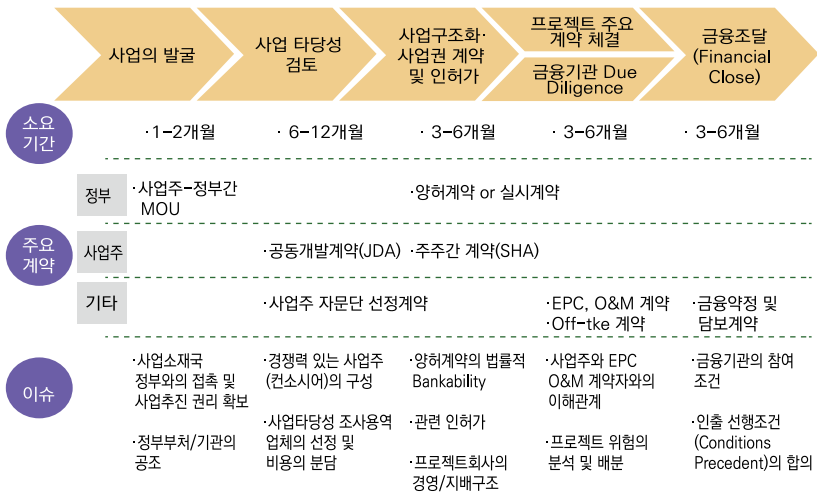
- 통상적으로 해외개발사업은 스폰서 그룹의 자본투자 외에도 50~90%의 자금을 타인자본을 통해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형태로 조달함
-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주단이 안심하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Bankability (금융조달가능성)의 확보라고 함



1) CI: Construction Investor(건설투자자), SI: Strategic Investor(전략적 투자자), FI: Financial Investor(재무적 투자자)  
 2) MLA: multilateral Agency(국제금융기구-IFC, EIB, EBRD, ADF, IDB 등)  
 ECA: Export Credit Agency(수출신용기구-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 개발사업의 통상적인 사업구조는 SPC를 둘러싼 Six Enablers로 구성됨
  - \* SPC: 신규 개발사업의 주체
  - 사업주(Sponsor) :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을 주도

해외 개발사업의 추진 프로세스와 주요 활동



- Bankability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국가/정치 리스크: 소재국의 신용도 중요
  - 사업주와 파트너 이슈: SPC의 주주 구성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각 파트너들의 실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신인도, 실적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함 (사업 초기에 파트너를 잘 파악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의 오퍼 또는 탑 매니지먼트들을 면담하고 사업장 방문 하는 등)
  - 기술적 타당성: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한 대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증된 기술의 여부와 사업참여자들의 선행 기술, 경험이 중요시 되고, 적정 공사비/투자비 및 적정 공기, 불가항력 등에 대한 보험 여부도 대출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 재무적 타당성: 사업별로 재무모델에서 최소 1.1에서 1.6까지의 DSCR(부채상환계수, Debt Service Coverage Ratio)을 확보해야 프로젝트 파이낸스(PF)가 가능함

### 마. 사업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

- 사업타당성 분석 (Feasibility Study)은 프로젝트의 투자 의사결정 전 이

에 대상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재무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과 이에 관련된 주요 가정 사항 (Basic Assumptions)에 대한 검토를 통해 투자 여건, 수익성,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함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신규 사업이 국민경제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미래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 및 편익 분석을 통해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
  - B/C 분석
- 재무적 타당성 분석: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 운영에 따른 수익성 분석
  -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과 비용을 예측하고 현금흐름 및 예상 수익률 분석을 통해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
  - 사업에 필요한 총투자 규모 또는 연도별 자금소요액의 산정과 조달가능성, 자금상환 관련 위험을 분석
  - 내부수익율(IRR : Internal Rate of Return), 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등 수익성 평가방식을 통해 최적의 투자안 도출
- 법률적 타당성 분석: 사업에 적용될 법률과 투자 및 향후 수익을 회수하는 절차에 관련 법률들을 검토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법률 및 배당, 자본 송금 등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함
- 기술적 타당성 분석: 사업의 실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분석하고 건설, 운영 관련 최적의 계획을 수립
  - 프로젝트의 형태와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등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중요도에 편차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함

**SK건설 사례** 터키 차나칼레 교량 및 도로 BOT 사업(운영종료: '34년)

	내용	Hedging
Revenue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수행(운영)에 따른 수입을 확정해야 사업성 분석 및 대출금 상환 가능성 판단 가능</li> <li>실제 교통량 기준 Toll 수익으로는 사업의 안정성 담보가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처가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제공하여 수입을 확정함</li> </ul>
Currency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 조달, 주요 지출(공사비 등) 및 대출금 상환은 Hard Currency 기준임</li> <li>Toll 수입 및 발주처의 지급 통화가 현지 통화 (TRY, Turkish Lira)임에 한 변동에 대한 Risk 대응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환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Toll 요금 책정</li> <li>Currency Risk Hedging 계약 체결</li> </ul>
Termination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 귀책, 정부 귀책, 불가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 해지 시 투자금 회수 및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장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지시 지급금 지급 규정</li> <li>사업 해지시 Treasury가 채무 인수</li> </ul>
Political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국 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성 또는 계약 불이행 등 사업주가 통제 불가하며 예측이 어려운 Risk 존재</li> <li>Political Risk 높은 국가의 경우 사업은행의 PF 참여 불가 또는 사업주에 높은 수준의 담보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국 정부에 대한 협상력이 강한 ECA 및 MDB 참여, MIGA 보험 등 활용하여 Risk Hedging 필요</li> </ul>
Land Acquisition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 수용 일정의 지연 또는 토지 수용 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 및 사업성 저하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 수용을 발주처 책임으로 규정하고, 토지 수용 비용을 고정하여 차액 발생 시 발주처가 부담</li> </ul>
ESIA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상공사(교량)에 따른 환경 오염, 유물 발견, 공사 수행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민원에 대한 대응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C 및 EPC 양측에 전담 조직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상시 communication, management plan 수립·실행</li> </ul>
Construction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공사의 수행 상 차질로 인하여 대출금 사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단이 인정 장치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PC LSTK Contact 통해 EPC JV에 Construction Risk 전가</li> <li>대주단의 개입(step-in) 가능하도록 EPC Direct Agreement체결</li> </ul>
O&M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비 증가, 운영 상 차질로 인한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단이 인정 장치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Qualified international O&amp;M operator 선정하여 O&amp;M Risk 전가</li> </ul>
인허가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허가 지연을 인한 사업 수행 차질 발생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처와 공통의 이해에 기반한 협력 체계 구축</li> </ul>

\* ESIA: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 출처: 2019년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바. 건설 단계**

- 건설공사가 물리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 확정일자로 계약 시 공기를 단축하면 상여금이 지급되고, 공기의 지연에는 위약금이 부과됨
-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의 건설 단계는 통상의 건설 프로젝트보다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건설사이자 사업주인 CI 등) 공사가 공정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독립된 프로젝트 관리인(Project manager)과 공사 감리기관(CM)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음
  - 설계 세부사항의 준수, 생산품의 사양과 품질 유지, 관리를 위한 독립된 감리자를 특별 장기 고용한 경우 프로젝트 관리회사(project management company)라고 부름

**사. 운영 단계**

- 운영 및 유지보수는 시공자로부터 운영자에게 관리의무가 이전되는 준공시점부터 양허기간의 경과로 운영자로부터 양허권자에게 관리의무가 이전되는 종료시점까지 기간으로 투자개발사업 중 가장 긴 기간임
-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현금흐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하기 위해 ①운영에 필요한 주요 요건을 충족하고 ②확정된 비용 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합리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함
- 프로젝트 회사는 수익금(판매 대금 혹은 도로·터널·다리 통행료)을 담보수탁자에게 양도하여 우선적으로 프로젝트의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다음으로 운영비용과 세금을 지급한 후에 사업주에게 배당금 지급
- 양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양허권자 등 관련 계약 당사자가 운영기록을 열람하거나 제공받기를 원할 수 있고, 운영 관련 인력교육을 제공받기를

요구할 수도 있음

- 정해진 양허기간 이후는 기부 채납(Transfer) 단계로, 무상으로 설비의 소유권을 정부당국에 양도하는 시기임
- 양허기간 만료시점 양도 시에는 이전되는 권리의 구조나 방식을 O&M 계약상 분명히 명시해야 함
  - 양도시점에 수행되어야 할 시험
  - 양도시점에 제공되어야 할 부품
  - 양허권자의 인력 이동 및 책임 관련 사항
  - 리스크의 이전 등



**단원 요약**

**개발형 프로젝트 수행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사업의 발굴	- 다양한 사업발굴원 확보 - 사업의 옥석 판단 (수익모델, 파트너십, PF)	1단계 (개발단계)
↓	발굴 가능 프로젝트 확보	사업주
사업의 구상	- 개발사업 추진 전담 TF 구성, 명확한 가치 정의 및 인사 선정 - 주요 인사, 기관 등 Key Account 관리	"
↓	공동개발계약(JDA), 주주간 계약(SHA)	사업주
사업 구조화와 Six Enablers	- Six Enablers 구성: 사업주, 대주단, 원료공급자, 제품/용역 구매자, 시공사업자,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자 - 리스크 분석 및 사업개발비 투입 의사결정	"
↓	양허계약/실시계약	정부-사업주
협상 및 Bankability 확보	- 사업의 실행가능성과 금융조달성 제고를 목적으로 각종 계약 체결 - Bankability 확보 시 고려사항: 국가/정치리스크, 사업주-파트너 이슈, 기술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
↓		
사업타당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비용 및 편익 분석, B/C 분석) - 재무적 타당성(수익성 평가) - 법률적 타당성(법, 규제, 외국인 투자환경, 세제) - 기술적 타당성 (proven technology 여부)	"
↓	금융 종결: 투자 의사결정, 금융약정, 자금투입	사업주, 대주단
건설	- 건설공사 물리적 진행 및 시운전 - 상업생산(COD) 달성	2단계 (건설단계)
↓		
운영	- 준공시점, 양허기간, 종료시점에 걸쳐 운영 및 유지보수 - 목적 사업 운영을 통해 투자비 회수	3단계 (운영단계)

\* 이상 KIND 내부자료 및 '해외사업 디벨로퍼의 세계 (임한규 저)' 재구성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쌍용건설)

## 정부 지원사업

▶ 단계별 정부 지원사업 Guide Map

1.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2. 외교부 지원사업
3. 기획재정부 지원사업
4. 환경부 지원사업
5. 해양수산부 지원사업
6. 산업통상부 지원사업
7. 보건복지부

PART



## 단계별 정부 지원사업 Guide Map

단 계	주요 지원사업	주관부처	페이지
계획단계	KSP, EIPP	기재부	120
			122
역량강화 지원단계	KOICA 글로벌연수사업	외교부	119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학위 과정	국토부	102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지원사업	국토부	105
	마이스터고 지원사업	국토부	100
	환경협력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환경부	132
수주활동 단계 (사업화 지원 단계)	국토교통부 ODA 지원사업	국토부	106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국토부	97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F/S 지원사업	국토부	113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국토부	108
	무상원조사업	외교부	116
	유상원조사업	기재부	123
	해외플랜트 시장개척지원사업	산업부	139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산업부	140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산업부	141
	에너지산업협력 개발지원	산업부	14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해수부	134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해수부	137
	K-CITY 네트워크	국토부	114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F/S 지원사업	해수부	136
	개도국 환경개선 M/P 수립지원 사업	환경부	128
	해외환경 프로젝트 F/S 지원사업	환경부	129
	환경기술 해외 현지 실증 지원사업	환경부	131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보건부	144
	의료 해외진출 GHKOL 컨설팅 지원사업	보건부	145
	보건 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	보건부	146
수행 단계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	국토부	103
	OJT 지원사업	국토부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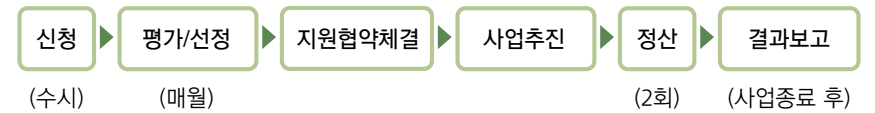
※ 행사지원 : GICC(110p), 스마트 시티EXPO(112p)

# 1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 가. 시장개척지원사업

● **사업 목적**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업계의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도모

### ● 지원 절차



### ● 지원 사업

수주활동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
프로젝트조사분석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분석
EDCF 연계목적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분석
국가간 경쟁입찰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정책지원	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 지원 내용

지원항목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지원금액	- 수주활동 지원 건당 최대 1억원 -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등 건당 최대 3억원
지원비율	- 중소기업 : 총 소요비용의 80% - 중견기업 : 총 소요비용의 60% - 대공기업 : 총 소요비용의 50%  ※ EDCF 연계목적 및 조사·분석 지원, 정책지원, 국가간 경쟁 입찰 참여 지원은 지원 비율을 10%P 추가 지원

○ 신청 자격

- 「해외건설촉진법」 제 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해외건설사업자
- 해외 발주처가 발주하는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활동
-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 \* (제외되는 경우) 동일 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및 국내기업의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활동 등

나.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추구하고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신청 자격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직전년도와 당해 연도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예정 포함)한 기업
  - ※ 단, 신청시점 기준 만19~34세 청년의 경우 채용시기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과거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신청 불가
  - ※ 단, 청년은 24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파견비: 인당 최대 200만원/왕복항공료, 보험료, 비자발급비
- 훈련비: 인당 월별 100만원/기업 파견자 각각 50만원 지급,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월별 50만원을 기업에 추가 지급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24개월까지 지원
- 지원인원: 기업별 최대 20명/외국 발주처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지원

○ **시행 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지원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협약체결 → 해외 파견 및 현장훈련(OJT)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정산·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 정부정책 및 예산사용계획 등에 따라 사업내용과 시행절차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mc.icak.or.kr/>  
이 메 일 [gimp@icak.or.kr](mailto:gimp@icak.or.kr)  
전 화 02-3406-1103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mc.icak.or.kr/>  
이 메 일 [ojt@icak.or.kr](mailto:ojt@icak.or.kr)  
전 화 02-3406-1033,1080

## 다.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지원사업

### ◎ 사업 배경

-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플랜트 현장중심의 초급관리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건설·플랜트 분야 마이스터고를 개교하였고, 졸업생의 해외 건설·플랜트 분야진출을 지원하여 높은 취업률(90% 이상)달성
- 매년 마이스터고(서울과기고)는 당해 연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초급관리자로 취업시키기 위해, 외국어교육, 글로벌 문화의 이해, EPC 실무교육, 해외현장실습 등의 특화교육을 실시

### ◎ 사업 목적

- 국토교통부의 마이스터고 개교 목적에 따라, 매년 해외건설 및 플랜트 건설 분야의 해외현장 초급관리자(기술자)를 양성하고자 함.
-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건설 및 플랜트 분야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게 취업 교육을 하고 취업처를 발굴하여 정착하게 지원하고자 함

### ◎ 지원 대상

- 제8차 마이스터고(해외건설·플랜트 분야)로 지정된「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 ◎ 지원 내용

- EPC 교육
  - 기초교육 : 해외 플랜트 건설의 이해
  - 기본교육 : 현장 실무교육 (도면 작성 및 해석, 공정관리, 문서실무, 영어교육)
  - 심화교육 : 해외 현장실습 준비교육
- 해외 현장견학 및 실습

마이스터고 졸업식(2020.1.9)



마이스터고 현장 취업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mc.icak.or.kr/>

이 메 일 smc@icak.or.kr

전 화 02-3406-1033



## 라.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학위과정 운영

- **사업 목적**
  - 인프라개발 정책 및 기술의 협력국 등 외국 공무원 이해도 및 관심도 제고와 국가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당 국가 인력의 국내 학위취득 프로그램 운영
  - 한국 건설업계와 연수생 간 교류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고 건설업계의 협력국 진출 활동을 지원
- **연수 기관** 국내 소재 대학원으로 협력국 등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사학위과정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선정
- **위탁 기간** 2년 9개월(협회와 선정대학간 사업협약 체결)
- **연수 기간** 기수당 17개월 이내(예비과정 포함)
- **연수 자격(학생선발)** 「인프라 중점협력 대상국」의 국토관리·인프라개발 관련 정책 담당자 또는 발주처 관계자
- **연수 경비** 정부(국토교통부)지원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mc.icak.or.kr/>  
이 메 일 smc@icak.or.kr  
전 화 02-3406-1170

## 마.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 사업

### ■ 해외건설 법률·세무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 목적** 해외공사 수행 중 겪게 되는 법률 및 세무회계 문제를 대형로펌 전문 변호사와 글로벌 세무회계 법인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지원 내용**
  -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 등 법률문제 검토
  - 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문제 및 외국납부 세액에 대한 국내 세법 적용
- **지원 대상**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중소기업
- **사업 기간** 2023.3~2024.3 (예산 소진 시 종료되며 이메일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icak.or.kr](http://www.icak.or.kr))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지원 절차**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icak.or.kr>  
이 메 일 consulting@icak.or.kr  
전 화 02-3406-1033, 1080

### ■ 해외건설 전문가 자문 컨설팅 지원사업

-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애로사항 해소
- ◎ **지원 내용**
  - 해외건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 POOL을 구축하여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 수주영업 지원 등 자문, 상담 제공
- ◎ **지원 대상**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중소·중견 기업
- ◎ **사업 기간** 2023.3~2024.3 (예산 소진 시 종료되며 이메일 수시 접수)
- ◎ **신청 방법**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icak.or.kr)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 **지원 절차**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icak.or.kr>  
 이메일 [consulting@icak.or.kr](mailto:consulting@icak.or.kr)  
 전화 02-3406-1033, 1080

### ■ 바.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기술을 확보하고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철도 전문인력 양성
  -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지원을 통해 국가간 외교협력 강화 및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석사급 철도전문인력 양성
  - 선진국 학위과정 교육을 통해 혁신성장 선진기술 연구·경험을 체득함으로써 글로벌 감각을 갖춘 고급 철도전문인력 양성
- ◎ **사업기간** 2023.9.1~2024.8.30(12개월)  
 \* 총 사업기간 : 2018.8~2023.8(5년) \*5년마다 계속 진행

#### ◎ 대상국

구분	대상국가
아시아 (13개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터키, 인도
아프리카 (2개국)	이집트, 탄자니아
남아메리카 (3개국)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페루
유럽 (3개국)	벨라루스, 체코, 우크라이나

- ◎ **연수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지원내용** 해외발주국가 공무원대상 석사 학위과정으로 연수생의 항공료, 등록금, 생활비 등 지원 및 기업간 네트워크 간담회 등 국내 철도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문의처** 한국철도협회 운영기획실  
 홈페이지 <http://www.korass.or.kr>  
 이메일 [korass58@hanmail.net](mailto:korass58@hanmail.net)  
 전화 02-3487-7922

## 사. 국토교통부 ODA사업지원

### ◎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인프라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 수원국의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후속 연계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
- **주요 추진사업** 개발컨설팅(마스터플랜, 사업기획), 프로젝트 사업, 초청연수 등
- **사업 추진 대상국가** 정부부처 합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지정 중점협력국\* 중심
  - \* 총 27개국(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 (사업추진 분야) 도로/교통, 도시개발,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부문

### ◎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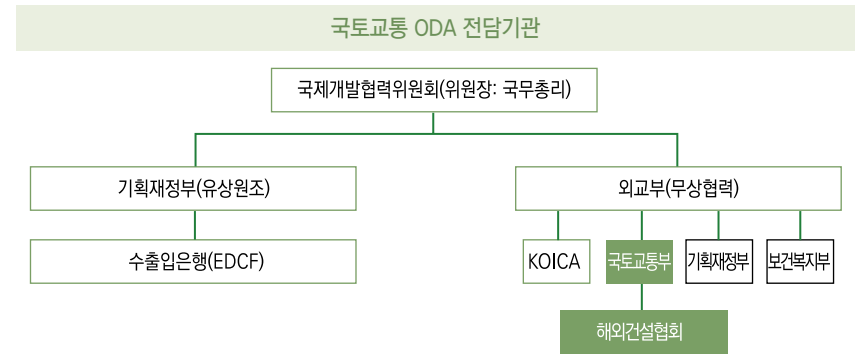
- **규모** 33억원(2013) → 276억원(2022)으로 10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누적 31개국 총 1,384억원)
- **분야별** 교통(55%), 도시(18%), 수자원(14%), 공간정보(9%) 순
- **지역별** 동남아(49%)와 중남미(31%), 아프리카(9%) 순
- **유형별** MP 수립 지원 위주에서 2018년부터 프로젝트 유형을 신설, 공동연구·기술이전 등도 본격화
  - \* 개발컨설팅(MP) 64건, 프로젝트 42건

### ◎ 추진 체계

- **주체** ODA중 유상 ODA(차관)는 기재부가 전체 시행(수은 위탁), 무상 ODA(양여)는 외교부 주관으로 각 부처 및 KOICA 등이 시행
  -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 최고의 정책기구인 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연간 ODA 종합시행계획, ODA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 **국토교통 ODA 업무 위탁** 국토교통 ODA 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전략적 사업기반 마련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해외건설협회를

ODA전담기관으로 지정(2021.2.)

- 해외건설협회 내 ODA 위탁업무 전담부서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신설 운영



### ◎ 추진 절차

- 수요발굴부터 사업 시행까지 약 2년 소요
  - (N-2년) 현지조사 및 수원국 협의를 거쳐 사업 발굴
  - (N-1년) 세부 과제별 외교부총리실 조정,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
  - (N년) 확정된 사업은 당해연도 발주를 통해 착수

시기	구분	주요 내용
n-2,상시	수요발굴	· 수원국 사업제안서(PCP), 지원요청서(LOI) 작성
n-1,3월	시행계획 제출	· 국토교통부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외교부 제출
n-1,5월	외교부 조정	· 무상 ODA 협의회(외교부 2차관 주재) 개최
n-1,6월	총리실 조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
n-1,12월	예산심의	· 기재부 예산심의 및 정부안 제출(8월)→국회 심의
n,5월	사업시행	· 과업지시서 작성, 조달청 발주, 사업 착수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krc.ica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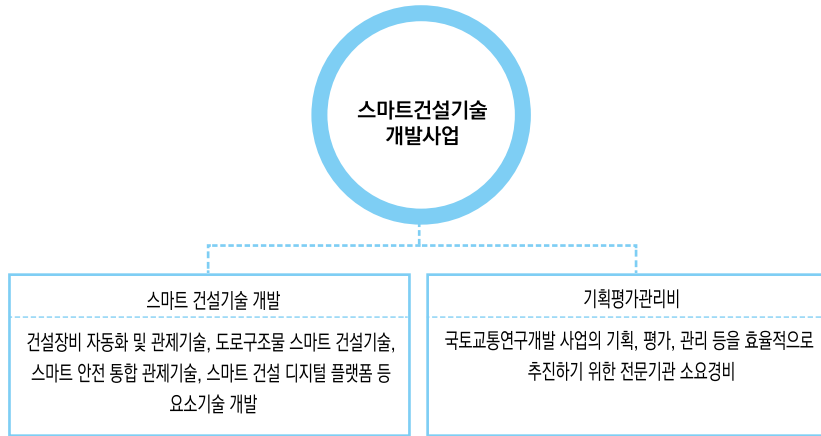
이 메 일 ksk@icak.or.kr

전 화 02-3406-1072, 1077

## 아.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 ○ 사업 목적

-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산업생태계 조성”



\*출처 : KAIA 홈페이지

### ○ 사업 기간 2020년 ~ 2025년(6년)

### ○ 사업 목표 건설 생산성 및 안정성의 혁신적 향상

- (4대 목표) 건설 생산성 25% 이상 향상, 건설 공기 25% 이상 단축, 건설업 재해율 25% 이상 감소, 건설 생산과정의 디지털화 25% 이상 향상

### ○ 주요 사업내용

- 건설장비 자동화 및 관제기술 개발
- 도로구조물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기술 개발
- 스마트 건설 디지털 플랫폼 및 테스트 베드

### ○ 비전 및 목표

비전	스마트 건설기술 육성을 통해 글로벌 건설시장 선도			
사업 목적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스마트 생태계 조성			
사업 목표	건설 생산성 및 안전성의 혁신적 향상			
	건설 생산성 25% 이상 향상	건설 공기 25% 이상 단축	건설업 재해율 25% 이상 감소	건설 생산과정의 디지털화 25% 이상 향상
추진 단계	1단계 ('20~'21)	2단계 ('22~'23)	3단계 ('24~'25)	
	중점분야 내 핵심/구성기술 개발	중점분야 간 핵심/구성기술 연계	테스트베드 종합적용 및 검증	
성과 목표	스마트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 및 건설시장 정착	

중점 분야 및 핵심 기술	중점분야	핵심기술
	건설장비 자동화 및 관제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형 건설장비 관제 기술 개발</li> <li>◆ 건설현장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 개발</li> <li>◆ 디지털 기반 도로 건설장비 자동화 기술 개발</li> </ul>
	도로구조물 스마트 건설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기반 도로구조물 설계·제작·시공 지원기술 개발</li> <li>◆ 도로구조물 원격·자동화 시공 기술 개발</li> <li>◆ 지능형 도로구조물 시공품질 관리 기술 개발</li> </ul>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li> <li>◆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확보 기술 개발</li> <li>◆ 임시구조물 스마트 안전확보 기술 개발</li> </ul>
스마트 건설 디지털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분야 디지털 데이터 통합 표준 기반 건설생산 프로세스 통합관리 및 스마트 지식관리 기술 개발</li> <li>◆ 스마트 건설 디지털 플랫폼 및 디지털 트윈 기반 관리 기술 개발</li> <li>◆ 스마트 건설기술 종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기술 개발</li> </ul>	

문의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SOC 플랜트사업실

홈페이지 <http://www.kaia.re.kr>

이 메 일 [sunminjung@kaia.re.kr](mailto:sunminjung@kaia.re.kr)

전 화 031-389-6323



## 자. GICC,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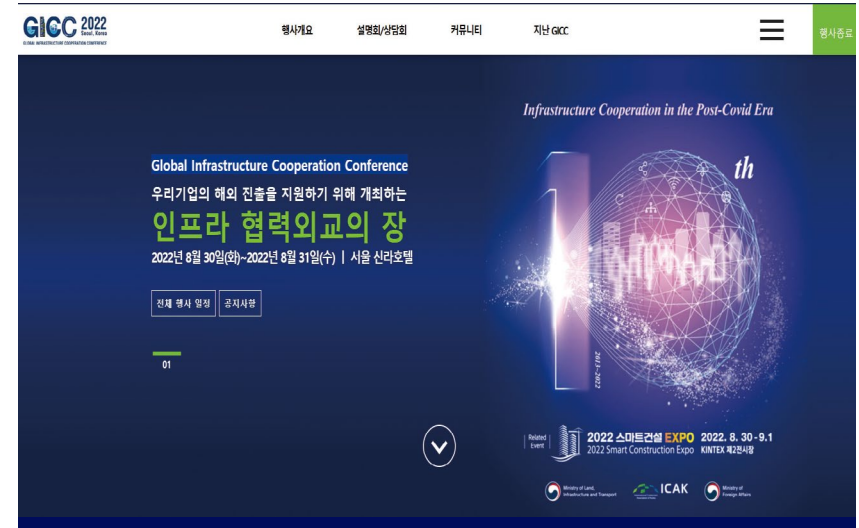
- **사업 소개** 13년부터 매년 우리기업의 해외 건설 시장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인프라 세일즈의 장(場)으로 해외 주요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프로젝트 설명회,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신시장 개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발주처와 인적교류 발판 마련
- **개최 일정**

  - '22년: '22.8.30~31 신라호텔
  - '19년: '19.9. 3~5 COEX 인터컨티넨탈 호텔
  - '18년: '18.9.18~20 COEX 인터컨티넨탈 호텔
  - '17년: '17.9. 4~6 COEX 인터컨티넨탈 호텔
  - '16년: '16.9. 7~9 COEX 인터컨티넨탈 호텔
  - '15년: '15.11.3~5 COEX 인터컨티넨탈 호텔
  - '14년: '14.9.17~18 잠실 롯데호텔월드
  - '13년: '13.11.12~14 잠실 롯데호텔월드
- **주최 및 주관** 국토교통부/외교부/해외건설협회
- **개최규모**

  - 발주처: 해외 주요 발주처 인사
  - 참가자: 국내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 관계자
- **주요내용**

  - 개막식, 프로젝트 설명회, 1:1 상담회, 고위급 양자면담, 오만찬, 세미나, 현장시찰 등으로 구성

### GICC 소개 홈페이지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홈페이지 <http://gicc.kr/kor/>  
 이메일 [sjchoi@icak.or.kr](mailto:sjchoi@icak.or.kr)  
 전화 02-3406-1177

### 차.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 행사 소개**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 세계 정부,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더 나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태지역 최대의 스마트시티 행사이며, 국내·외 업계 종사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및 세미나, G2G 프로그램, 비즈니스 행사 및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 진행함
  - ('19년) 개막식, 전시(16개국 250개社), 컨퍼런스, 기업상담회 등 50개국 2만5천여명 참여
  - ('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개최 취소 ('19년 총리참석, '20년 V행사 추진 중 개최 취소)
  - ('21년) 개막식, 전시(5개국 185개社), 컨퍼런스, 기업상담회 등 60개국 2만8천여명 참여
  - ('22년) 개막식, 전시(16개국 301개社), 컨퍼런스, 기업상담회 등 30개국 3만여명 참여
- 주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킨텍스
- 주요내용(2022년)**

공식행사	오프닝, Awards 오찬, 만찬
G2G·G2B	G2G·G2B미팅 및 MOU 등
컨퍼런스·세미나	스마트시티 산업의 실질적 성과 공유, 비전과 가치의 확산
비즈니스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전시	최신 스마트시티 기술·솔루션·서비스 전시 및 체험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시티개발단  
 홈페이지 <https://www.lh.or.kr>  
 이메일 [steel654@lh.or.kr](mailto:steel654@lh.or.kr)  
 전화 055-922-3763

### 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사업 목적** 해외건설사업자들의 초기 사업개발비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해외 투자사업 개발 활성화
- 신청 대상사업**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으로서 건설형 또는 운영형 투자사업
- 지원 규모**
  - (타당성조사) 간접 : 최대 10억원/건, 직접: 최대 3억원/건
  - (제안서작성) 최대 20억원/건
- 전체 비교표**

유형	사업 타당성조사(F/S) 지원		제안서작성 지원 (직접/간접)
	직접	간접	
공모방식	공모	공모 또는 비공모	수시 공모
지원금액	최대 3억원/건	최대 10억원/건	최대 20억원/건
공모기간	4주 (상/하반기)	4주 (상/하반기, 수시)	공모
지원내용	예비/본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기초조사, 법률·기술·재무 검토 등)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계획 및 설계, 현장 실사, 법률·금융·재무환경 등 각 분야별 자문 등)
특징	현물/현금 허용		현금만 허용 (타당성 조사 완료 사업 대상)

- 활용 현황**
  - 완료된 F/S 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수주활동 지원
  -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경우, KIND가 사업주로 참여하여 사업화 추진
  - PIS(Plant, Infra, Smart-city) 펀드 등을 활용, 금융조달 방안 마련 지원

**문의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정책사업실 타당성조사팀  
 홈페이지 <http://www.kindkorea.or.kr>  
 전화 02-6746-7362

## 타. K-CITY Network(계획형, 실증형)

### ◎ 사업 목적

- [계획형] 해외정부 및 지방정부가 보유한 중요한 스마트도시 개발프로젝트에 대해 상/하위 계획수립, 타당성분석 등을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제공하여 도시개발 사업 실현에 기여하고 양국 민/관 협력 강화
- [실증형] 한국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도시 등에 직접 적용·실증하여 우수 솔루션 해외 확산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사업 기회 창출

### ◎ 신청 대상사업

- [계획형] 해외정부 및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지원 가능하며, 기존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도입 프로젝트, 낙후된 지역을 스마트 도시로 개발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신도시 개발시 미래를 대비하여 (Future-proof) 초기부터 스마트도시로 기획,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신청 가능
- [실증형] 한국에서 개발 및 실증한 스마트 솔루션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기관(단, 현지기관과 컨소시엄 필요)이 스마트 솔루션 프로젝트 신청 가능

### ◎ 지원 규모

- [계획형] 프로젝트별 최소 2억에서 최대 10억까지 지원 가능
- [실증형] 프로젝트별 최소 3억에서 최대 5억까지 지원 가능

### ◎ 활용 현황 (사업화 및 실증단계 진행)

- 터키 가지안텝 스마트시티 통합정보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폐기물 자원화 솔루션 및 탄소배출권 사업
- 미국 볼티모어 한국형 폐기물 관리 솔루션 실증 사업

#### 문의처

[계획형]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도시계획팀

[실증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kindkorea.or.kr> /

<https://www.kaia.re.kr>

전 화 02-6746-7480

## 2 외교부 지원사업

### 가. 무상원조사사업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 간, 다자 간 협력으로 분류되며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뉜다

협력 형태		시행기관	주관기관
양자간	무상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자공여</li> <li>• 현금공여</li> <li>• 프로젝트형 사업</li> <li>• 기술협력(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li> </ul>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교부
	유상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li> </ul>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간	국제기구 분담금: UN 등	외교부	외교부
	국제기구 출자금: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자료: 외교부

- 외교부는 무상원조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논의, 조정하여 ODA사업 진행 중

#### ○ KOICA 주요 사업 ① 국별협력사업

- 사업 개요: 국별협력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특정 개발목표 달성을 목표로한 프로젝트형 사업과 개발컨설팅(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 DEEP) 사업을 포괄하는 다년도(2-5년) 사업임

### - 사업 세부 형태

사업	내용
프로젝트형	건축, 시설물, 기자재 등의 물적 협력수단(hardware)과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수단(software)을 결합한 사업
개발컨설팅	건축 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중 컨설팅,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구성된 기술협력 중심의 사업
분쟁 및 취약국 지원	민주적 제도 구축 지원, 분쟁폭력 상황 대응 등을 통해 분쟁 취약성의 구조적·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사업

\* 자료: 외교부

### - 사업 추진 절차

절차	내용
① 사업 발굴	상시접수
② 사업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조사사업 선정 (N-2년 연중 상시)</li> <li>• 예비조사 실시 (N-2년 연중~N-1년 1월)</li> <li>• 사업심사/승인 (N-1년 3월)</li> <li>• 예산심의/국회승인 (N-1년 5~12월)</li> <li>• 수원국과 협의의사록 체결 (N-1년 9~12월)</li> <li>• 집행계획 수립 (N년 초)</li> <li>• 사업 시행자 선정 (N년 상반기)</li> </ul>
③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점검/분기보고/모니터링 (연초/분기별/상시)</li> <li>• 종료평가 (사업종료 전)</li> <li>• 사업 종료</li> </ul>
④ 종료 사업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 점검(수시)</li> <li>• 사후 지원(필요시, 사업종료 후 5-7년 내)</li> </ul>

\* 자료: KOICA(사업 발굴 경로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 KOICA 주요 사업 ② 국제기구협력사업

- 사업 개요: 국제기구협력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개발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식량안보, 기후변화, 인권 등 범지구적 과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공여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협력사업



- 사업 추진 절차

절차	내용
① 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성지침 배포 (N-2년 상반기)</li> <li>• 예비검토 (N-2년 하반기)</li> <li>• 본심사 (N-2년 하반기~N-1년 1/4분기)</li> <li>• 예산심의/국회승인 (N-1년 5~12월)</li> </ul>
② 사업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계획 수립 및 약정체결 (N년 초)</li> </ul>
③ 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관리 (보고서 접수 및 검토, 운영위원회 참석, 현장방문 실시 및 기타 모니터링과 평가)</li> </ul>
④ 사업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보고서 평가 및 종료평가 실시</li> </ul>

\* 자료: KOICA

나. KOICA 글로벌연수사업

◎ 사업 개요

- 연수사업 ‘씨앗(CIAT)’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도국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대표 인적자원개발(HRD) 사업

◎ 사업 목표

-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고유의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 사업 연혁

- 1963년 : 연수사업은 우리나라가 협력국을 지원한 최초의 사업형태로서,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자금지원을 통해 수탁훈련 형태로 시작
- 1965년 : 우리 정부의 자체예산으로 독자 실시 시작
- 1999년 : 국제협력연수센터(ICC) 개원
- 2008년 : 새로운 협력단 청사 건설과 함께 국제협력연수센터도 이전
- 2012년 : 연수사업 브랜드 씨앗(CIAT) 출범



문의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전략기획팀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  
 전 화 031-740-0376, 0373

문의처 KOICA 연수사업실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  
 전 화 031-740-0534

# 3 기획재정부 지원사업

## 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 **사업 소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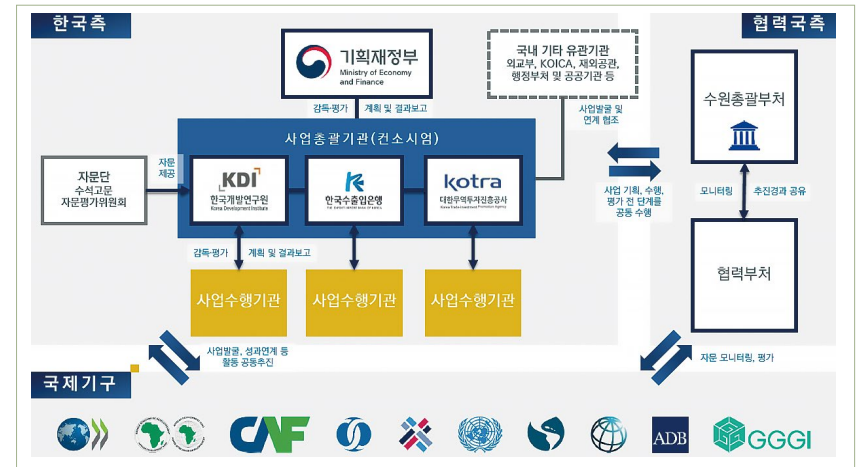
● **특징**

- Demand-Driven: 협력국 수요에 기반한 사업 추진
- Comprehensive: 정책분야 및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고려
- Mutual Learning: 상호학습을 바탕으로 명시적(explicit) 및 암묵적(tacit) 지식을 모두 공유
- Best Matches: 한국의 발전경험과 협력국의 현 발전제약 및 역량을 고려하여 정책대안을 제시
- Capacity to Act: 이해관계자 역량강화를 촉진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후속연계방안 마련

●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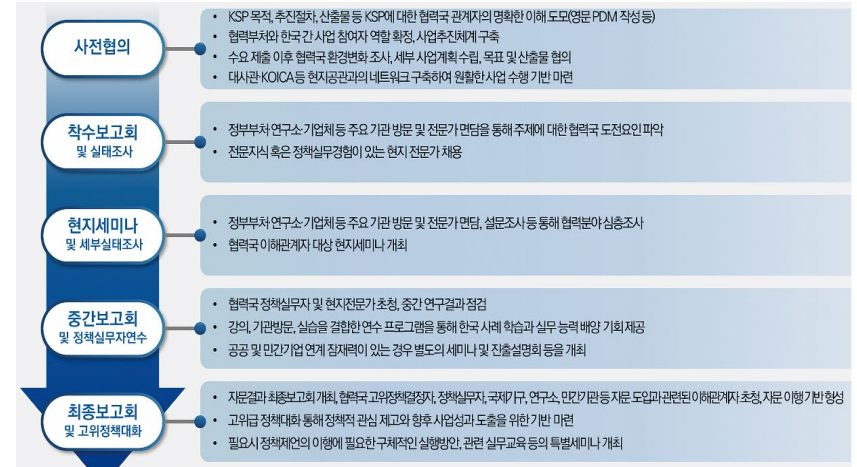
- 기존 개도국 협력 사업의 일회성 및 단기성을 보완한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 협력대상을 ODA대상국에서 전략전 경제협력국으로 확장, 중장기적 관점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상호 국익을 도모하고 공동 번영 및 상생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

● **사업 추진체계**



\* 출처: KSP홈페이지, 이하 동일

● **사업 추진방식**



문의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기획과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  
 전 화 044-215-7747

## 나.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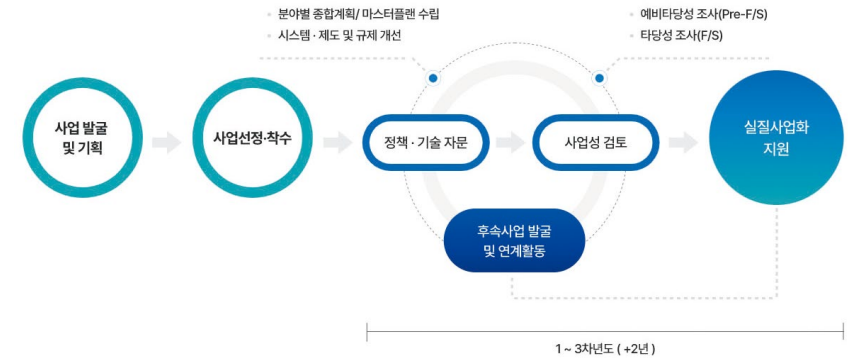
### ◎ 사업소개

-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력 제고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설('19.2.14)된 KSP\*의 새로운 사업 모델  
\* Knowledge Sharing Program(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양국이 협의하여 협력국 경제성장과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관련 인프라 사업 기획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정책자문을 3년이상 집중적,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 한 국가에 연 1~2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을 지원하는 기존 KSP와 달리, EIPP는 협력국 경제·사회발전에 필수적인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도모

KSP와 EIPP 비교

구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경제혁신 파트너십 구축(EIPP)
목적	협력국의 경제발전 지원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
규모	한 국가와 연간 1~2건 실시	한 국가와 연간 5건 내외 집중 실시
기간	원칙적으로 1년 단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협력
추진 방식	개별 사업별로 선정·추진	양국이 사전에 합의한 분야(테마)를 중심으로 사업 선정·추진

- ◎ **추진 방식** EIPP는 협력국별 3~5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신규 인프라 구축이나 민간 기업 참여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사업성 검토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협의를 통해 실제 사업화까지 이뤄지는 전 과정을 지원



\* 출처: EIPP홈페이지

문의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기획과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  
전화 044-215-7743

## 다. 유상원조 사업

- ◎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총괄하고 유상원조 분야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점검하며,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수출입은행 내 정책기금임
- ◎ 유상원조는 상하수도설비, 병원, 교통 등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개발자금 차관이외에도 출자 및 보증 등이 있음

○ 지원 업무 종류

－ 차관·출자·보증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출자·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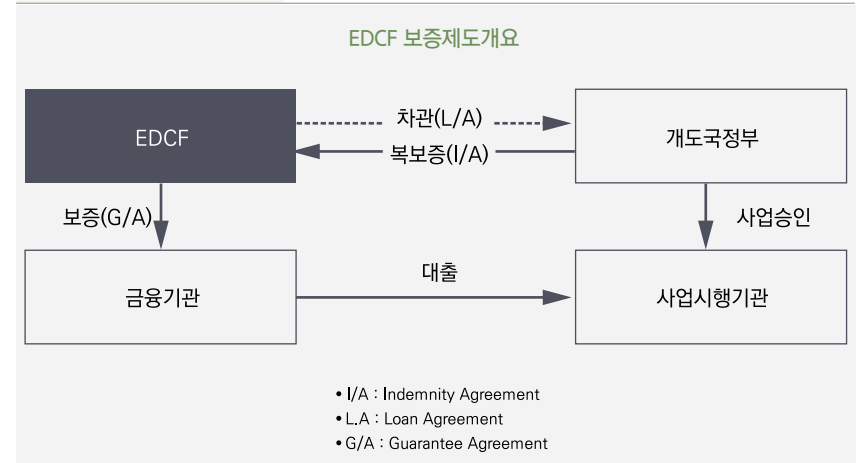
차관 종류	
개발사업 차관 (Development Project Loan)	댐, 상하수도설비, 도로, 병원, 환경설비, 공장설비 등 경제개발사업의 실시에도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
민자사업차관 (PPP Loan)	민자사업의 실시에도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프로그램 차관 (Program Loan)	개도국의 종합 또는 부문별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의 실시에도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에 대한 융자
섹터개발차관 (Sector Development Loan)	개도국의 특정 분야 개발을 위해 다수 사업의 실시에도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에 대한 융자
기자재차관 (Equipment Loan)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
국제개발금융기구와 차관 (Loan to Intl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자금의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한 융자

차관 종류	
개발사업 차관 (Development Project Loan)	중소기업 육성, 고용창출 등 민간부문 개발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
민간협력전대차관 (Private Sector Two-Step Loan)	민간협력차관의 지원대상인 개도국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대하기 위한 자금의 개도국금융기관에 대한 융자

출자 종류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Equity Participation to the Company for PPP Projects)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 (Equity Participation to the Fund by International DFIs)	

보증 제도	
보증대상기관	신용도가 양호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개도국 현지 금융기관
보증대상위험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Guarantee) (단, 일반위험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보증기간	대출기간과 동일
지원대상국가	EDCF 지원대상국가

보증한도	건당 1억불 이내
보증표시통화	원화, 현지화, 국제기축통화(달러화, 유로화)
보증료	보증금액의 0.5%



－ 소액차관 (중소기업 지원)

\* 소액차관제도는 차관규모가 5백만 달러 이하인 소액차관사업은 사업 참여자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신청, 심사, 구매 등 제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음

지원조건	
차관한도	총사업비용의 100% 가능 (단, 7백만 달러 이하)
이자율	무이자
상환(거치)기간	표준지원조건외 양허성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구매방법	대한민국 적격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 중 추후 협의 결정
유망분야	소형 플랜트, 교육, 의료, IT, 환경설비 등

－ 협조용자 크게 평행용자, 결합 용자의 2종류로 나누어지며 이외 보조용자(Umbrella or Standby Financing), 매개용자(Channel Financing), 참여용자(Participation Financing) 등도 있음

협조용자의 형태	
<p>평행용자 (parallel financ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를 독립된 몇 개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협조용자 기관이 분담 용자하는 형태로 지원되며, 참가기관은 상호 대등 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차관조건, 구매절차 등을 결정하고 독립된 차관계약(Loan Agreement)을 작성</li> </ul>
<p>결합용자 (joint financ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를 독립된 부분으로 분할하지 않고 협조용자 기관간에 일정 용자비용만을 정해 두고 이에 따라 용자하는 형태</li> <li>세계은행(IBRD)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므로 이들 기관의 구매가이드라인에 따라야함</li> </ul>

\* 국제금융기구의 협조용자 사업리스트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수

- 우리 기업이 EDCF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입은행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등에 대한 참여, EDCF로 지원된 사업에 대한 개도국 발주 사업(컨설턴트 및 공급자 선정) 참여 등

사업 타당성 조사 절차(EDCF 발주)	
절차	내용
① 사업 준비	사업 타당성조사 작성 및 보완, 환경영향평가
② 사업 실시	구매 및 입찰서류 작성, 구매관련 문제 해결
③ 사후 관리	유지보수 및 관리 등 문제해결

컨설턴트 선정 절차(개도국 발주)	
절차	
① 개도국의 컨설턴트 고용계획 작성 및 제출	
② 개도국의 과업명세서, 후보자명단 및 입찰초청서 작성	
③ 과업명세서, 후보자명단, 입찰초청서에 대한 EDCF 동의	
④ 입찰 실시	
⑤ EDCF의 입찰평가결과 승인	
⑥ 낙찰자 결정, 고용계약 체결 및 EDCF 동의	

공급자 선정 절차 (개도국 발주)	
절차	
① 개도국, 입찰서류 작성	
② EDCF, 입찰서류 승인	
③ 입찰실시 (필요시 사전적격심사 실시)	
④ EDCF의 입찰평가결과 승인	
⑤ 낙찰자 결정, 고용계약 체결 및 EDCF 동의	

문의처 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홈페이지 <https://www.edcfkorea.go.kr>  
 전 화 02-3779-6114



# 4 환경부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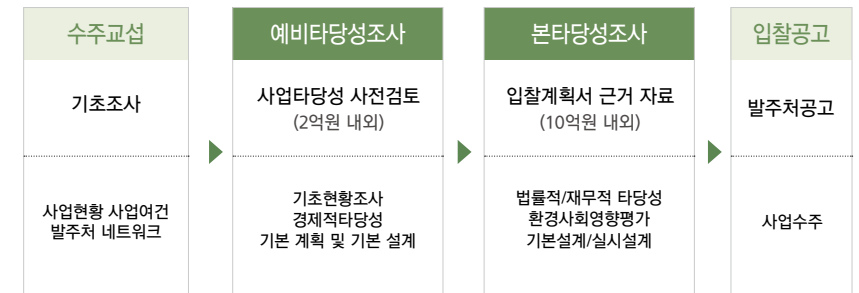
## 가.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 ◉ **사업 주관기관** 환경부 주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집행
- ◉ **사업 신청자격** 국내 환경산업체
- ◉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 사업기간 12개월 이내(보통 8~10개월 수행),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관리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분야 개선전략 수립 및 환경사업 발굴
  - 사업비 : 국가 당 6~9억원(전액 한국정부 부담)
- ◉ **사업내용**
  - 환경분야 기초자료 조사·분석 : 환경산업 전망 및 환경관리 수요도출(환경산업, 정책, 기술 및 기초시설)
  - 대상 지역·분야 기본계획 수립 제시
  -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
  - 보고회 개최(착수, 중간, 최종) 및 양국 환경전문가 교류
- ◉ **사업 지원절차** 양국협력사업 추진협의 → 사업기획 및 공고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 사업추진 및 활용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홈페이지 <https://www.keiti.re.kr>  
 전 화 02-2284-1763, 1754

## 나.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 **전담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업총괄 환경부)
- ◉ **사업 신청자격** 환경산업체(법인) 등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 **지원사업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
  - (본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타당성조사 사업



- ◉ **지원 금액('23년 기준)**
  - (예비타당성조사) 2억원 내외
  - (본타당성조사) 10억원 내외
- ◉ **지원 비율**
  - (중소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중견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주관이고 대기업 포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100%)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부담

● 사업 지원절차

① 사업모집 공고접수	② 선정평가	③ 협약체결	④ 중간보고	⑤ 최종평가	⑥ 사후관리
사업 모집공고 (기술원) 신청서 접수 (신청접수→기술원)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기술원)	협약체결 (기술원 → 수행기업) / 사업비 지급 (기술원 → 수행기업)	중간보고서제출 (수행기업 → 기술원) / 중간점검 (기술원 → 수행기업)	최종보고서 및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수행기업 → 기술원) / 최종평가/정산 (기술원)	사업수주 중 추진상황 점검 (기술원)

● 참고사항

-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됨('23년)에 따라 운영지침 외에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함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홈페이지 <https://www.keiti.re.kr>  
 전 화 02-2284-1756, 1778, 1766

다. 환경기술 해외 현지 실증 지원사업

● 사업 목적 국내의 우수한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조 및 현지실증(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 및 수주를 촉진

● 사업 신청자격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확보한 업체
- \* 진출대상국의 현지위탁기관을 보유한 업체(MOU 필수)

● 지원 분야 13개 환경 분야(전 세계 진출 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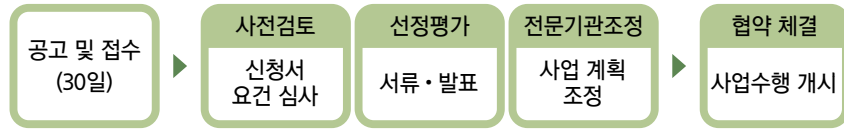
①대기질 관리 ②물관리 ③폐기물 관리/자원순환 ④토양·지하수 복원/관리 ⑤생태계 복원/관리 ⑥소음진동관리 ⑦위해성평가/관리 ⑧환경보건 ⑨환경예측/감시/평가 ⑩친환경 소재/제품 ⑪친환경공정 ⑫측정분석장비/장치 ⑬청정생산/설비

\* 해외 탄소감축과 4대 녹색 新산업 분야(도시광산, 환경플랜트, 초순수, 폐플라스틱 자원화)의 과제 우대

● 지원 기간 및 내용 단년도 또는 다년도 선택하여 신청

모집구분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단년도 사업	현지실증을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 비용	협약일 ~ '23.11.30.	최대 5억원	
다년도 사업	1단계 (1년차)	현지실증을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등 비용	협약일 ~ '23.11.30.	최대 3억원
	2단계 (2년차)	파일럿 현지설치·운영 등 비용	'24.1.1. ~ 10.30.	최대 2억원
				총 최대 5억원

○ 사업 지원절차



문의처 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홈페이지 <https://www.keiti.re.kr>  
 전 화 02-2284-1777

라. 환경협력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 사업목적

- 한국의 환경정책 발전경험 전수를 통해 환경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
- 환경분야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협약 親韓인사 양성을 통해 국제 환경협력 촉진 및 국내 환경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

○ 대상국

-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국, 환경산업 중점 협력국, ODA 중점 협력국, 상대국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자원 육성 지원 및 환경산업 진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참여 연수생 선발
- 대상국가는 우리 정부 및 KEITI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연수분야

- (과정명) 환경정책 역량강화 석사과정
- (과정구성)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환경 협력국 정책 입안자에게 적합한 교과목 구성

○ 연수기관

- 연수 기수별 최종 선발 규모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
- 연수기관의 선발기준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대상국 정부 추천자간 경쟁을 거쳐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는 국가 배분,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에서 조정 및 승인

○ 연수기간 예비과정을 포함하여 24개월 이내(총 4학기)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s://www.keiti.re.kr>  
 전 화 02-2284-1603

# 5 해양수산부 지원사업

## 가.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사업

###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 사업**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해외 현지기업 인수 합병 및 지분투자 관련 사업과 현지 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 사업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구분	사업 내용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지원 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 (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2)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물류기업 단독 및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에너지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 사업**
  - 해외 물류거점 및 네트워크 확보, 현지 법인 설립, 수출입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해외 물류사업(해운, 3PL, 창고업, 육상운송, 포워딩 등)
  - (물류기업 단독 수행) 물류기업이 직접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물류거점 확보, 수출입 판로 개척 등 해외물류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 수행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물류거점 확보, 수출입 판로 개척 등 해외물류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 수행
- **지원 내용**
  -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
    - \* 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 물류기업 단독 참여 : 최대 3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최대 4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kmi.re.kr>  
 이메일 [kdong@kmi.re.kr](mailto:kdong@kmi.re.kr)  
 전화 051-797-4913

## 나.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사업 목적**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의 초기 의사결정 지원 및 리스크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추진 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 신청 대상** 광의(廣義)의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
  - \* 해양플랜트 광의(廣義) : 해양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해상, 해중, 해저, 해저지층의 공간영역에서 인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설비 및 시스템으로 정의하며, 해양광물자원/해양인 재생 에너지/해양 공간이용/해양 미래기술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함.
  -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대상 한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 지원 대상**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양플랜트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프로젝트

### 지원대상사업 예시

-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유망 프로젝트 수주
  - (예) 해외 해양플랜트 운영 및 OSV 운영권 확보 등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전략 수립
  - (예)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사업거점 확보, 현지 기업의 인수합병, 대상국가 법제도 및 입찰절차 분석 등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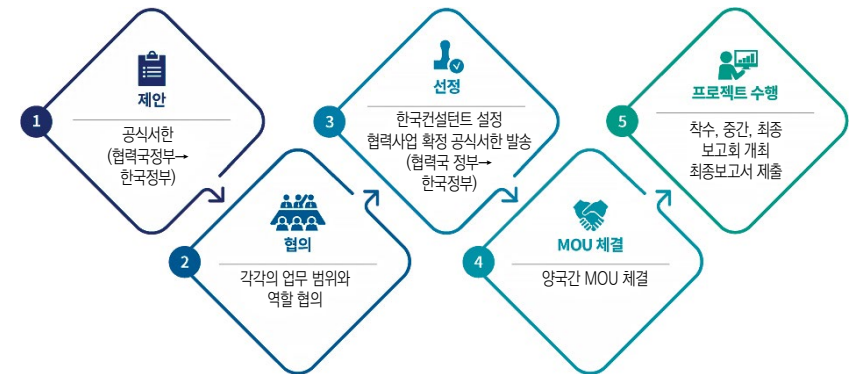
- 지원 내용** 지원사업 1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의 범위 이내

※ 2022년 기준 지원 대상 및 내용으로 세부사항 변경 가능

문의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kriso.re.kr>  
 이메일 [sjhan@kriso.re.kr](mailto:sjhan@kriso.re.kr)  
 전화 055-639-2415

## 다.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 사업 개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항만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해외 항만시장 진출 기반 조성
- 사업 목적**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부산 신 항의 성공사례 등 해운·항만 선진국으로서의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발전 도모
- 추진 절차**



\* 출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문의처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koreaports.or.kr>  
 전화 02-2165-0140



## 라.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 ◎ 지원 대상

-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항만개발 투자, 건설 및 운영 등 항만법 제2조5호의 항만시설에 대한 해외개발 사업
- \* EPC, 투자개발형, PPP, 설계, 감리 등 건설관련 모든 공종

### ◎ 신청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사업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 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등기업 등

- ◎ **지원내용**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및 관련 수주활동 지원
- \* 지원대상 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용역비(계약기준)에 대해 서만 인정되며, 신청기업의 자체 활동비 및 경상적 경비는 인정 불가

- ◎ **지원규모** 사업별 3억원 한도 내에서 전체 조사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선정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 3.5억원까지 지원가능

**문의처**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coscop.or.kr>  
 전 화 02-2165-0131/0134

## 6 산업통상부 지원사업

### 가.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 ◎ 지원 내용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프로젝트, 투자개발형사업 등의 수주를 위한 타당성조사 비용
- 해외플랜트 수주 및 수출과 관련하여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및 수주교섭 활동의 비용
- 신흥국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산업개발계획 수립 비용 지원

#### ◎ 지원 범위

-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조사비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비율 :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전략플랜트는 3억원, 산업개발계획은 5억원) 이내, 중소기업은 타당성조사 비용의 75%, 중견기업 등은 50%지원

- ◎ **평가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수주지원팀  
 홈페이지 <http://edu.kopia.or.kr>  
 이 메 일 [jyp@kopia.or.kr](mailto:jyp@kopia.or.kr), [skb@kopia.or.kr](mailto:skb@kopia.or.kr)  
 전 화 02-3452-7972

### 나.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사업 목적**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지원 대상** 기본설계, PM, O&M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목표로 하는 (예비) 타당성조사 프로젝트  
\* 중소기업과 공기업, 중견기업간 동반진출 프로젝트 가점 도입

#### ○ 신청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 ○ 지원 금액

- 지원한도: 건 당 최대 2억원 이내
- 서류 심사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구 분	지원비율
중소기업 단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	80% 이내
대기업, 중견 또는 공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80% 이내
중견기업 단독 또는 중견기업간 공동	50% 이내
대기업 단독 또는 대기업간 공동	50% 이내

- **지원 내용** 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프로젝트의 (예비)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제경비 지원(관련 관리지침 참조)
- **시행 절차** 사업 시행공고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평가 →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시행 → 종료평가 및 사후관리

**문의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해외수주지원팀  
 홈페이지 <http://www.kenca.or.kr>  
 이메일 [international@kenca.or.kr](mailto:international@kenca.or.kr)  
 전 화 02-3019-3338

### 다.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신재생에너지 국내시장 성장과 함께 축적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평가 절차**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사업개시

#### ○ 지원 분야

사업명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지원방법	자유공모(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력분야 우선)
지원 비율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사업비의 75~50%이내</li> <li>-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li> <li>* 기업당 2건, 건당 1억원 이내</li> <li>* 협약체결 후 연내 인증 취득 완료시 지급</li> </ul>
신청 자격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 중소중견기업

사업명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개척지원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li> <li>●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li> </ul>
지원 비율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사업비의 75~50%이내</li> <li>-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li> <li>- 기업당 지원한도: 1.5천만원 이내</li> <li>● 단체참가 : 소요사업비의 75~50%이내</li> <li>-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li> </ul>
신청 자격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사업명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예비타당성 조사지원(자유공모)</li> <li>● 해외 본타당성 조사지원(자유공모)</li> </ul>

지원 비용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타당성 조사지원 : 10개 이내</li> <li>• 지원금액 : 프로젝트당 1억원 내외</li> <li>• 과제기간 : 9개월 이내</li> <li>•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중소)~50%(중견)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타당성 조사지원 : 2개 사업</li> <li>• 지원금액 : 프로젝트당 7.0억원 이내</li> <li>• 과제기간 : 1년 이내</li> <li>•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중소)~50%(중견) 이내</li> </ul>
신청 자격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사업명	신재생에너지 해외상용화 지원
지원방법	자유공모
지원 비용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과제 수 : 2개</li> <li>• 지원금액 : 프로젝트당 11억원 이내</li> <li>• 과제기간 : 1년 이내</li> <li>•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중소)~50%(중견) 이내</li> </ul>
신청 자격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기후국제협력실  
 홈페이지 <https://www.energy.or.kr>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해외 상용화 지원 052-920-0611, 14, 15  
 해외인증 획득지원/해외시장 개척지원 052-920-0615

## 라. 에너지산업협력 개발지원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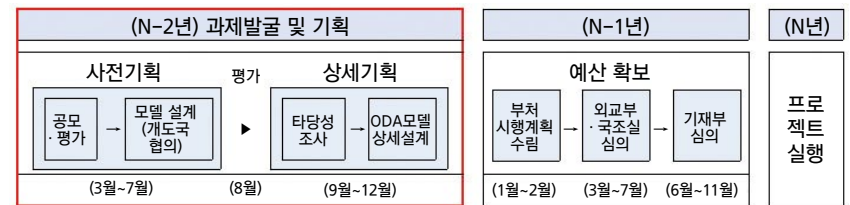
- 주요 개도국의 에너지산업화 협력 요구에 대응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 개발협력(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을 지원
- 이와 연계하여 국내 전력-에너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해외 전력-에너지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

### ○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개발협력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li> <li>• 단독 지원 또는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li> <li>• 동일 기관에서 최대 2개(주관, 참여포함)에 한하여 복수 지원 가능</li> </ul>
통합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와 동일</li> </ul>

### ○ 지원내용

구분	신청자격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대상국의 에너지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축물·장치·시스템 구축,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li> </ul>
통합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ODA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프로젝트 '사전기획'과 '상세기획'을 연계하여 일괄 지원</li> <li>- (1단계: 사전기획) ①신규 프로젝트 모델 설계, ②수원국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조사</li> <li>- (2단계: 상세기획) 1단계 사전기획과제 중 우수과제에 한해 ①프로젝트 상세설계 및 타당성조사, ②수원국 요청서 확보 등 수행</li> </ul>



\* 프로젝트 사업은 별도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이메일 [cyl0202@korea.kr](mailto:cyl0202@korea.kr) 전 화 044-203-568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ODA팀  
 이메일 [syeo@kiat.or.kr](mailto:syeo@kiat.or.kr) 전 화 02-6009-3947

# 7 보건복지부

## 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 사업목적** 우수 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단계별·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및 후발주자가 활용 가능한 진출 노하우 축적·공유
- 지원 대상**
  -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국내 유관업체 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의료기관 포함이 필수이며, 한국인이 해외에 설립한 의료기관(국내 모기관이 없는 경우)은 국내 유관업체 또는 국내 의료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지원 가능

**'의료 해외진출' 유형**

「의료 해외진출법」 제2조제1항



국외 의료기관의

①개설·운영	②수탁운영	③운영컨설팅
④종사자 파견	⑤의료기술 이전	⑥정보시스템 이전
⑦의약품 제공	⑧의료기기 등 제공	⑨의료인 교육

\* 출처 : [www.khidi.or.kr/kohes](http://www.khidi.or.kr/ko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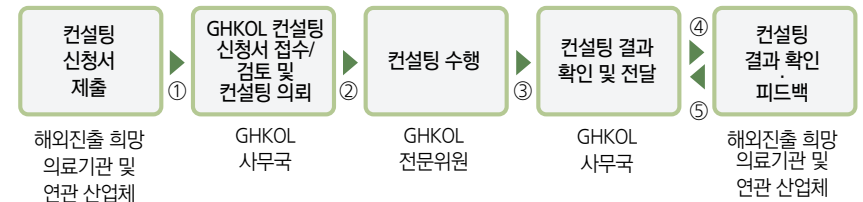
- 지원 내용**
  - 인력채용, 수주 제안서 작성, 시장조사·타당성조사·컨설팅 및 현지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 컨설팅, 현지사무소 임차비용 등 의료기관 해외 진출 사업에 따르는 제반과정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및 기타 특화 지원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  
 홈페이지 <https://www.khidi.or.kr/kohes>  
 이메일 ysh5233@khidi.or.kr  
 전화 043-713-8951

## 나. 의료 해외진출 GHKOL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소개**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의료 해외진출 역량강화와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하여, 권역별·분야별 민간 전문가와의 1:1 매칭을 통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 지원 대상** 의료 해외진출 사업의 권역별·분야별 상시, 단기 컨설팅 제공 (GHKOL전문위원과 1:1 매칭)  
 \* 신청기관은 한 프로젝트 당 연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분야** 6개 권역\* 및 10개 전문분야\*  
 \* 권역 : 중국, 아시아(중국 제외), 중동, 미주, 유럽아프리카, 러시아몽골CIS  
 \* 분야 : 일자리, 사업화, 금융투자, 법제도, 조세, 인프라, 경영지원, 환자유치, 의료ICT, 홍보

###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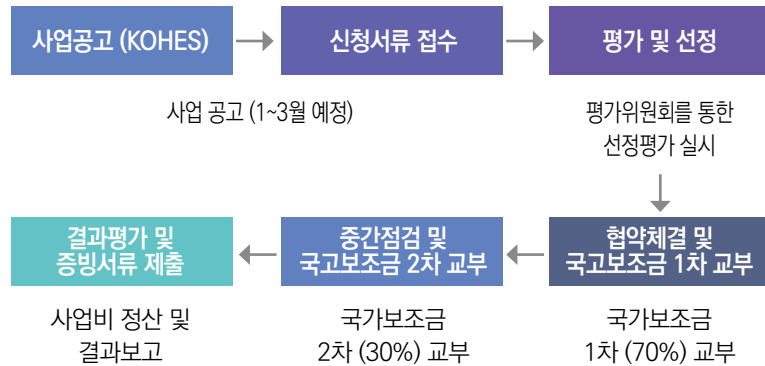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사업개발팀  
 홈페이지 [www.khidi.or.kr](http://www.khidi.or.kr)  
 이메일 ghkol@khidi.or.kr  
 전화 043-713-8952, 8954

### 다.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 **추진목적**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현지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및 진출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 상기 사업기간 내 자유롭게 사업기간 구성하되, 인턴의 해외 체류기간(해당국 거주기간에서 격리기간 제외)은 누적 30일 이상 구성 필수

#### ● 운영 프로세스



- **지원대상**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 관련 분야 연관 산업체 및 산업체 컨소시엄 중 신규 인턴채용 수요가 있는 기관
  - \* 지원사업 참여대상 확대를 통해 해외진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력 양성전문기관 중심으로 선정지원 추진
- **지원사항** 의료 해외진출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규 인턴 채용 및 국내외 실무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범위) '23.1.1 이후 채용 완료 또는 예정인 신규 인턴에 대한 국내외 실무교육 훈련비 및 운영비, 국외 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인턴 1인당 최대 9-15백만원 지원
  - \* 진출국가 급지별 차등 지원 예정
- (지원규모) 기관별 인턴 채용자 수 제한은 없으나, 사업계획 및 채용 규모에 따라 기관별 인원수와 지원 금액은 평가하여 차등 지원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사업개발팀  
 홈페이지 <https://www.khidi.or.kr/kohes>  
 이메일 13anderson@khidi.or.kr  
 전화 043-713-8953





필리핀 바탄시 페트로  
석유화학 플랜트 엔지니어

## 재외공관 지원분야

- 1 기업 요청사항
- 2 공관 지원분야

PART

IV

# 1 기업 요청사항

## 가. 공통 요청사항

- ◉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 정보 및 현지국 정치상황 변동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 주요 정치/경제/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한 정기 비정기 분석
  - 일부 국가의 경우 정치세력/정권 교체시 발주처 주요 인사 변동으로 그 전 협의사항에 대한 승인 거부, 증빙 재 요청 및 보강 등 업무지연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신규 인사에 대한 정보 공유
  - 정부 간 대외무역 협정, 관세, 기타 협의 내용 등에 대해 공개가능 범위 내에서 공유
  - EDCF 및 해외 펀드사의 발주 현황 자료 제공
- ◉ 최근 Covid-19와 같이 현지국에서의 불가항력 상황을 접했을 때, 공관에 외교적으로 원하는 요청사항
  - 당사 기술인력, 해외 Vendor 인력의 단기간 작업 위한 입출국 시 격리 조건 완화
  - Covid-19 관련 공기 및 비용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 가능토록 정부 차원 지원 요청
  - 현지 민간 병원과의 MOU 체결 등 아국 주재원들의 치료 및 입원에 대한 우선권 확보 지원
  - 현지에서 한국인 대상 백신 우선접종
  - 백신 접종자의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 ◉ 네트워킹 지원(발주처, 정부부처, 현지 은행 및 로컬 기업정보 등)
  - 국별 새해 예산 및 건설 분야 상세 예산(아국업체 경쟁 분야 또는 주요 발주기관별)에 대한 재외공관의 지원 필요
  - 상기 관련 주요 추진사업 정보 제공

- 현지 주요 기업 동향 정보
- 발주처 또는 정부 부처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주선 및 정례화
- 정부 및 공기업 고위급 인사와 면담 필요시 주선 지원
- 현지 국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처 및 금융기업과 네트워킹 기회 마련 지원
- 기성 수금에 적극적인 관심 필요

## 나. 기업별 요청사항

### ◉ 타당성조사 단계 및 입찰 단계

- 대기업
  - 현지 국가별 계획 파악이 가능할 경우 원활한 영업활동 위해 정보 공유 요청
  - 출장자 예외 입국 허용 및 (백신 접종자) 자가 격리 면제 조치 필요
  - 한국 우수 협력업체의 발주처 밴더 등록을 정부차원의 설득 요망
  - 현지 공관과 현지정부 고위공직자간 미팅 주선 요청
  - 입찰 전 국가조사 보고서 작성 위한 자료 제공
    - \* ex) EPC 수행 관련 법규, 사업수행 형태 조사지원, 면허, 입찰 및 계약 관련, 노동 현황, 준거법 및 분쟁해결, 부동산, 민간투자사업 절차 등
  - 한국기업에 유리한 PQ조건 위한 주무관청 협의 지원
  - 사업관련 현지 주요정보 지원(시공 협력사 정보, 노무단가 등)
  - 현지 법률 및 세무정보 지원(현지 노동법, 현지 세법, 외국환 관리법 등)
- 중견·중소기업
  - 입찰정보 및 발주정보 제공
  - 용역비 조사 지원
  - 아프리카 등 해외건설 신흥국가의 6개월 복수비자 발급 및 연장 요청

○ 금융지원 단계

- 대기업

- 해외사업에 대한 ECA(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 지원에 도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혜택 전무
- 발주처와 ECA 금융지원 협상시 국내 기업 혜택제공 요청
  - \* ex) 이라크, 사우디 정책금융 프로젝트는 일본, 중국 정책금융 제공 조건으로 일본, 중국 기업에게만 입찰 참여 기회 제공
- 금융주선/PPP 사업 등 기회 확대를 위해 수은/무보 등 적극 참여 유도

- 중소기업

- 선수금 및 이행보증서 발급시 국내외 은행간 협약을 통한 보증지원 이 가능하게 지원요청
  - \* 2000년 초반까지는 현지의 보험사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해결하였으나 2000 후반 기부터 르완다 정부의 보험사의 부실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요율 인상 및 담보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아 당사는 선수금은 포기하고, 이행보증서만 제출하는 단계까지 왔으며 국내 및 현지 은행간 상호간의 협약이 전무한 상황이라 현금 보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옴

○ 건설 수행 단계

- 대기업

- 프로젝트 중 법령변동, 현지 법인세 등에 대해 공관의 정보공유, 애로사항 및 보상 지원 등
- 기자재 통관 시 서류상 미미한 오류로 통관 지연 시 선 통관 진행 후 서류 보완토록 절차 개정 피력 요청
- 현장 관할 정부기관의 인허가 취득 지원(조건 완화, 처리기간 단축 등)
- 외국인력 송출 간소화(비자 및 워크퍼밋 등 출입국 패스트트랙 지원)
-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간소화 및 백신지원
- 주재국에서 아국업체가 수행중인 현장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중소기업

- 현지인 국내 초청 또는 국내인력 현지 파견을 통한 기능교육 수행 후 해외건설현장에 재투입 활성화 지원
  - \* 아프리카지역은 현지 고급 기술자의 부족으로 현지 엔지니어 및 기능공 외 교육이 필요한 실정

○ 건설 완료 정산 단계

- 대기업

- NOC의 경우 최종 정산 협상 시 원활한 합의 위해 공관에서 애로사항 청취 후 현지 유관부처에 전달 요청(특히 COVID-19 관련 Claim에 대한 보상 진행 협조 요청)
- 발주처 정산 협상 시 잔여업무의 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기업의 지급보증 및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보증 발급 제외 요청(Bond 발급 시 수수료 발생 및 행정절차 인력 소요)
- 기성의 적기 지급을 위한 공관의 지원 요청
- 노무/세무 소송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 및 정부기관 협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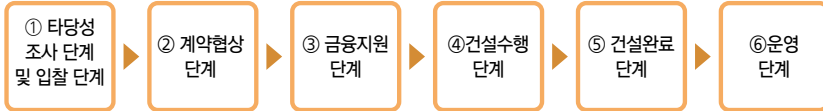
단계별 주요 지원요청 사항

단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F/S 및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제공</li> <li>• 입국승인 및 격리 면제</li> <li>• 현지 공직자 미팅 주선/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제공</li> <li>• 비자 연장</li> <li>• 용역비 조사 지원</li> </ul>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A 금융지원 협상시 국내 기업 우선 혜택</li> <li>• 수은/무보 등 적극 참여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 지원</li> </ul>
건설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법 등 상세 정보 공유</li> <li>• 통관 지원</li> <li>• 외국인력 송출 간소화 지원</li> <li>• 현장 애로사항 해결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인 기능교육 지원</li> </ul>
완료 및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협상 지원</li> <li>• 기성수령 지원</li> <li>• 법률자문 지원</li> </ul>	

\* 이상 요청사항은 해외건설기업 대상 설문조사 편집

## 2 공관 지원분야

### 가. 프로젝트 단계별 지원



#### ○ 타당성조사(F/S) 단계 및 입찰단계

-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는 나라(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중남미 등)에서는 본 단계에서의 공관의 역할 절대적
- 아래와 같은 초기 도움 필요
  - **현지 세무 및 금융관련 조건** 현지의 세무문제나 회계 방법 등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자칫 소홀히 하면 향후 수행 중이나 프로젝트 종료 후 큰 문제가 되는 리스크로 존재하므로 공관에서는 기본적인 자료를 비치하고, 필요한 분야가 철저히 조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나 현지 컨설턴트 소개 요망
  - **국가 규제** 신규진출 국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제한 사항이나 규정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특히 정치적인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작용되는 각종 사항 등의 정보)
  - **노무적인 사항과 현지화** 각국별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 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 현지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현지화 규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 **발주처에 대한 한국 외교력 지원** 발주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비합리적인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처의 상급 부처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필요에 따라 항의하는 외교, 정치력이 필요
  - **타당성조사 지원자금** 개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F/S 수행이 필수적이며, 우리정부의 F/S 지원 활용 필요

#### ○ 계약협상 단계

- 우리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로 언어 및 협상력
- 협상 내용 중 일부는 정치적으로 풀어주어야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공관에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 필요

#### ○ 금융지원 단계

- 금융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수주로 연결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프로젝트 금융에 적극적인 현지는행들이 다수 존재
- 공관에서 현지는행들과의 관계성 구축, 그들의 관심도를 파악하여 해당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 요망

#### ○ 건설수행 단계

- 불가피하게 각종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업의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공관에서도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수시로 해당현장을 방문을 통한 관심 필요
- 특히, 중동지역에서의 종교적인 문제와 금지된 음주문제나 폭력 사건 발생 등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을 시키는 행위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부터 공관과 함께 해당현장이 노력하도록 주기적인 관심 필요

#### ○ 건설완료 및 정산단계

-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계약자가 발주처에 대한 클레임이 존재하고 발주처가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 LD) 등이 있으며 상호협업의 과정은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을 끄는 경우도 있으며, 분쟁 중재(Arbitration)로 가는 경우도 다수 존재
- 정치적인 협상력이 이러한 타협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공관의 도움이 절실할 경우가 많음
- 건설완료 후에 통상 나타나는 큰 분쟁
  - 손해배상을 유발하는 공기 지연 발생 시 계약자와 발주처 간의 귀책

사유에 대한 분쟁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자의 공기 또는 가격인상요구 클레임
- 지진, 화재, 테러 등의 불가항력 발생 시 계약자 면책한도
- 특히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 가장 크고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공관의 계약적 이해 필요
- ◉ **운영단계**
  - 운영의 초기단계에는 건설에 따른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증기간이 존재
  - 건설 완료 후 약 2년 정도의 기간으로서 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이 기술적인 문제라 공관의 역할은 제한적
  - 실제 일어나는 문제점 중 큰 하나는 성능미달배상금(Liquidated Damage for Performance Shortfall)으로, 당초 계약 상 약정했던 성능에 미달한 경우 건설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보안 및 비자 등의 문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공관의 도움 필요

## 나. 네트워킹 지원

- ◉ **네트워킹의 범위**
  - 발주처
  - 정부부처
  - 은행 및 건설관련 업계
- ◉ **공관에서의 소개 및 면담뿐만 아니라, 세미나, 건설협의회 또는 비즈니스 포럼(Business Forum)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포괄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할 수도 있음**

## 다. 정보수집 및 사전경보 제공

- ◉ **프로젝트 리스트** 석유 및 가스, 광산 등은 장기 자원개발계획, 토목, 건축 사업은 도시개발계획에서 비롯되며 이들 중 자원 및 토목, 건축은 비공식 채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음
- ◉ **프로젝트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정보**
  - 프로젝트 추진 주체 및 결정권자(기술 및 상업분야)
  - 예산 확보 여부 및 금액
  - 금융구조(정부보증 또는 다른 유사보증장치 유무) : 우리 정부가 해당국 정부에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이나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가 조성한 인프라펀드가 금융구조 수립에 있어 상당한 경쟁력(Competitive Edge)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재국 뿐 아니라 우리기업에게도 소개를 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인허가 상황
  - 부지 확보 여부
- ◉ **사전경보(Red-flagging)** 수주 현장의 우리기업에게 주위를 환기시키는 기능으로서, 프로젝트 수주 단계에서 뿐 아니라 수행단계 나아가서는 완료 후 정산단계에서도 우리 공관이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

## 라. 문제해결 외교 지원

- ◉ 어떤 계약상의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귀책사유를 따지게 되고 급기야는 분쟁의 단계에 진입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다행히 거의 대부분의 계약에는 쌍방간의 선의에 의한 협상이라는 단계가 있어 타협의 장이 마련
- ◉ 특히 발주처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치적 조정이 필요할 때에, 공관이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면 우리 건설기업들에게는 외롭고 힘겨운 싸움에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 가능





사우디 안부 정유 플랜트 엔지니어

## 참고자료

- 1 해외건설 유관기관 활용 Tip
- 2 필수 용어집
- 3 해외건설 지원관련 기관정보

PART

V

# 1 해외건설 유관기관 활용 Tip

## 가. 국내기관

### 1) 해외건설협회(ICAК)

#### ■ 정보제공(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운영)

- 시장동향: 지역별, 국가별 건설시장 동향 및 단신 제공
  - 동향단신: 181개국, 특집 497건, 일반 32,852건(1997~2020)
  - 제외공관: 국가정보 868건, 시장동향 1,568건, 입찰정보 3,722건 등 (2006~2020)

전체지역

시장동향 > 전체지역 > 전체

조건: - 전체국가, 분야: - 전체분야, 기간별: 2020/06/18 ~ 2021/06/18

검색어: [ ]

전체 | 플랜트 | 일반

등록일자	내용	구분	작성자	읽음
2021/06/18	일본, 2020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발표 일본해외건설협회(OCAI)는 2020년도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발표했다.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111.4억불(1조 1,136억엔)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전년도 206.1억불(2조 609억엔)에서 급감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현지 민간발주 급감, 엔 차관 발주 ODA 감소 등이 결정타로 작용했음	동향	김태완	6

- 국별환경: 주요 국가별 건설시장 현황, 진출환경, 공사수행 환경 등 제공(78개국)

국별환경

국별환경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선택: 중동, 국가선택: 리비아, 총 서비스국가: 78개국

사우디아라비아 Kingdom of Saudi Arabia

- 누계수주액: 148,595,600 천미불
- 수도: 리야드(Riyadh)
- 면적: 215만 Km2(한반도 10배)
- 인구: 3,237만명(17, IMF)
- 민족: 아랍족(베두인족 27%, 기타 아랍정착민 73%)

국별환경(사우디아라비아) 가장 많이 본 정보

- ▶ 우리나라 건설진출현황 > 진출현황 > 업체별
- ▶ 건설시장 환경 > 건설시장 규모 및 추이
- ▶ 우리나라 건설진출현황 > 건설업체 지사 및 현지법인
- ▶ 건설시장 환경 > 건설산업현황 > 현지 건설업체
- ▶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전략

#### ■ 해외건설 통계 및 실적관리 전년 대비, 수주형태별, 발주형태별, 연도별, 세부공종별, 순위별, 업종별 현황 등

세부공종별현황

수주통계 > 세부공종별현황 > 토목

지역국가: - 전체지역, - 전체국가, 구분:  전체국가  신남방국가  신북방국가

업체: - 전체업체, 기간: 1965/01/01 ~ 2021/06/18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통신	용역	(단위: 천미불)			
구분	합계	도로	항만	철도	상수도	단지조성	기타	
총계	금액	167,164,026	51,045,245	35,498,486	24,248,311	17,034,892	16,192,796	23,144,296
	건수	2,340	892	257	110	231	361	489
2021년	금액	2,798,448	199,035	55,294	1,187,328	9,464	10,165	1,337,162
	건수	12	4	0	2	1	0	5
2020년	금액	9,837,875	1,219,651	1,748,584	4,630,272	15,096	-23,931	2,248,203
	건수	45	11	8	8	1	2	15

■ **진출지원** 해외건설업신고, 해외건설상황통보, 현지법인설립신고, 보증/사업성평가, 해외실적확인, 기자재무환반출 등

■ **교육·훈련(2020년 기준)**

- 재직자 과정: 28개 과정, 42회, 총 614명 참여
  - EPC Turnkey Contract, PMO업무, 금융, 투자개발형, 자재조달, 리스크관리, PPP과정 등
- 건설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과정: 30명
  - 해외건설 입문, 수주 및 계약관리, 금융, 공사 과정 등

■ **업계, 정부 및 유관기관 간 교류의 장 마련**

-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개최(분기별)
- 신입 재외공관 대사 초청 간담회(상시)
- 주요 해외건설기업 부서장 간담회 등

■ **연구개발(R&D) 및 건설외교**

- 세계건설시장진출전략, 중소기업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리스크 관리 사례집 등 발간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 수주지원단 참여, 지원

■ **해외건설 홍보,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 활동**

- 현장 안전대책 강화 활동
- 코로나19 비상대책반 운영 등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http://www.icak.or.kr>

전화 02-3406-1114

**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KIND 사업 발굴 채널은 아래와 같음**

- G2G 협력을 통해 팀코리아 사업발굴 및 수주 지원
- 다자간 금융기구, 법률회사, 컨설팅·회계법인, 엔지니어링사, 해외 디벨로퍼 그룹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 및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사업기회 모색

■ **KIND는 사업발굴 이후 사업타당성 확인, 사업구조화, 협상 및 금융조달 과정 모두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함**

-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F/S) 용역지원
- KIND가 갖고 있는 기술, 금융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들을 확보하여 팀코리아를 구성하고 사업의 적정 구조를 설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업구조화
- 국가별 계약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사항을 선제적으로 실행하여 사업 추진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
- 금융조달을 감안하여 적합한 구조를 설계하고 사전에 MDB, ECA 등 금융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조건들을 구비

■ **KIND는 사업개발에 필요한 대출 및 정책성 펀드 등을 주선하여 프로젝트의 금융을 완성하고 직접 지분투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함**

- 민간 투자자의 재원조달 부담을 완화
- 사업의 신인도 제고
- 국제, 국내 금융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에게 우량한 금융수단을 주선하고 연계

**KIND 투자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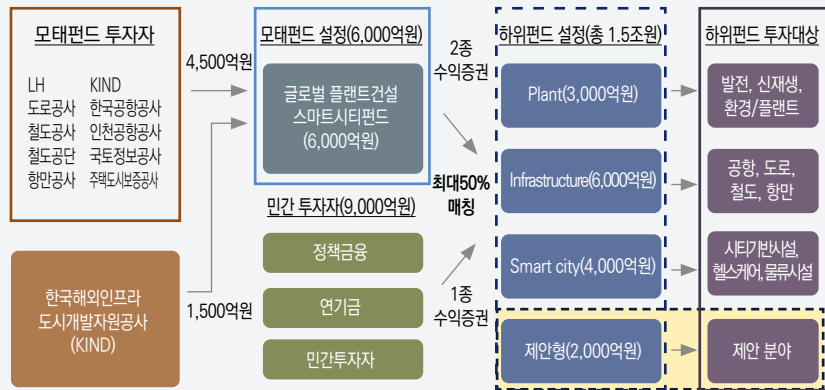
- 대한민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전체 지분의 10% 이상 투자하는 사업(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 이상)
- KIND가 전체 지분의 30%까지 투자 가능(단, 한국 투자자 중 최대 투자자는 될 수 없음)
- KIND는 GIF, PIS 펀드와 공동투자 가능
- Exit Policy : 국내 투자자가 지분 매각 시 KIND도 동시 매각
- 투자 유형 : Green Field 사업 우선
- 타겟 국가 : 국내 투자자 진출 국가(국가별 제한 없음)

■ 정부의 해외사업 관련 금융지원은 크게 자본 투자 (equity financing)와 여신 금융(debt financing)의 형태로 나뉘며 정부 제공 해외 인프라 정책 펀드는 주로 KIND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산하 조성펀드가 많이 되며 PIS펀드와 글로벌인프라펀드(GIF)가 대표적임

- PIS(Plant Infrastructure and Smart City) 펀드

- PIS 펀드란 정부가 신남방 정책 일환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및 민간자본 총 1조 5,0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펀드로, 해외 플랜트와 인프라, 스마트시티 구축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마련함

PIS 펀드 구조



\* 자료: 국토부

- 우선 정부재정 1,500억원에 KIND,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4,500억원을 출자해 총 6,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 함
- 하위 펀드는 발전, 신재생 에너지 등 플랜트 (2,100억원), 공항, 도로, 철도 등 인프라 (4,500억원), 도시 기반시설과 헬스케어 등 스마트 인프라 (2,400억원), 제안형 사업 (2,000억원) 등 1조 1,000억원 규모가 조성됨 ('20년 9월)

- GIF(Global Infrastructure Fund)

- GIF는 정부의 해외 수주 활성화 대책으로 설립되었으며, 모펀드·자펀드로 구성되는 PIS 펀드와 달리 각각 하나의 투자 펀드로 구성되고 펀드별로 벤처투자, 지역 특화 등 목적이 다양함

구분	GIF 5호 (신남방)	GIF 6호 (신북방)	GIF 7호
투자자	공공 : KIND 민간 : KB금융계열, 전문건설공제조합	공공 : KIND 민간 : KB금융계열, 전문건설공제조합	공공 : KIND, 한국공항공사, LH 민간 : 신한, 우리은행
펀드규모	1,100억원	1,100억원	1,000억원
운용사	KB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BNPP 자산운용
펀드모집완료일	'19.5	'19.5	'19.3
투자분야	한-아세안 협력펀드이며 인도-아세안 국가에 인프라 투자	한-유라시아 협력 펀드이며 독립국가연합(CIS), 코카서스, 중남미, 동·중부유럽, 몽골 국가에 인프라 투자	베트남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 승인(320억원) 신규 투자 사업 검토 중

문의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홈페이지 <http://www.kindkorea.or.kr>  
전화 02-6746-7408~9

### 3)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ECA)

■ 한국정부는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자국산 재화와 용역의 수출 및 해외 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전쟁, 물수, 국유화 등과 같은 정치·상업 리스크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 보험 또는 직접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 수은은 수출 촉진을 위해 직접대출과 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 함
- 수출 관련 대출
  - 수출물품 제작자금부터 물품 인도 후 장기상환거래까지 수출에 필요한 자금 대출

#### ● 수출촉진자금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활동 자금 등 지원

구분	내용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li> <li>• 우대지원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li> <li>- 서비스산업 : 보건 의료, 콘텐츠, SW/ICT, 관광, 기타</li> <li>- 친환경에너지신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산업</li> </ul>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투자</li> <li>•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li> <li>• 해외시장개척활동 및 수출기업 인수</li> <li>• 제작자금 및 기타 수출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문</li> </ul>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소요자금의 90% * 이내</li> <li>* 단, 수출기업 인수인 경우 실소요자금의 50% 이내</li> <li>• 단,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에는 기업별 대출한도 이내</li> <li>• 중소기업 : 30억원</li> <li>• 그 외 기업 : 50억원</li> </ul>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투자 : 15년 이내</li> <li>• 기술개발, 수출기업인수, 제작자금, 지식재산권 구입 : 10년 이내</li> <li>• 그 외 : 3년 이내</li> </ul>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li> <li>*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li> </ul>
대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상담 &gt; 신용평가 &gt; 대출신청 &gt; 대출승인 &gt; 대출계약체결 &gt; 대출집행</li> </ul>

#### ● 수출성장자금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구분	내용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li> <li>•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li> </ul>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li> <li>• 단, 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은 90% 이내,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li> <li>•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li> <li>• 단,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경우 100% 이내</li> <li>* 단, 기업별 대출한도 500억원(중소기업 35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800억원 (중소기업 500억원) 까지 증액 가능</li> </ul>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li> </ul>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li> </ul>
대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상담 &gt; 신용평가 &gt; 대출신청 &gt; 대출승인 &gt; 대출계약체결 &gt; 대출집행</li> </ul>

#### ●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 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 지원

구분	내용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li> </ul>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계약금액-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li> </ul>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li> </ul>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li> </ul>
대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상담 &gt; 신용평가 &gt; 대출신청 &gt; 대출승인 &gt; 대출계약체결 &gt; 대출집행</li> </ul>



- **수출기반자금**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구분	내용
대상기업	• 수출자의 수출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
자금용도	• 국내기업으로부터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의 수입결제자금 • 시설 및 운영자금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이내 * 단,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 : 최초 대출 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수입결제자금은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과 OECD 수출신용협약 등에 비추어 적절한 상환기간 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 이내 * 단,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방법
대출 절차	•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 대출승인 > 대출계약체결 > 대출집행

- **해외 사업 관련 대출**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현지법인 사업자금 및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등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금융 제공
- **수출 금융 보증** 수출 거래에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수은이 차주의 채무불이행 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보증

• **보증조건**

구분	내용
대상기업(주채무자)	• 수출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보증대상채무	• 수출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
보증수혜자	• 주채무자와 거래관계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자, 채무증권을 인수하는 자, 기타 계약상의 채권자
보증금액	•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보증기간	• 보증대상채무의 채무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범위 내

- **보증절차** 보증상담 > 신용평가 > 보증신청 > 보증승인 > 계약체결 > 보증서 발급

-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 관련 거래에 대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수은이 차주의 채무불이행 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보증

• **보증조건**

구분	내용
대상기업(주채무자)	• 해외사업관련 대출의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
보증대상채무	•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
보증금액	•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보증기간	• 보증대상채무의 채무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범위 내

- **보증절차** 보증상담 > 신용평가 > 보증신청 > 보증승인 > 계약체결 > 보증서 발급

- **복합금융** 수출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합한 것으로, 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PPP)에 지원됨
- 신흥국 등 해외에서 진행 중인 대형 인프라 건설운영 등을 위한 PPP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은은 동일 사업에 전통적인 수출금융과 EDCF를 동시에 지원하는 소위 맞춤형 복합 금융 제공을 통해 발주처와 사업주가 원하는 금융구조화 지원중임
- PPP 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대주단의 원리금 상환이나 민간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충족에 부족한 경우에 이를 만회할 수단으로 EDCF 등의 양허성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며, 이를 통해 금융조달 가능성(bankability)가 높아지는 효과 기대할 수 있음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

전화 02-3779-6114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 무보는 수출보험 상품을 통해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

○ 수출 보험의 종류

• 단기성 종목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 대상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중소기업 Plus+보험 등

• 중장기성 종목

-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거래 대상
-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공급자신용, 구매자신용),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 변동보험, 서비스종합보험 (기성고·연불방식)

• 기타 보험종목 및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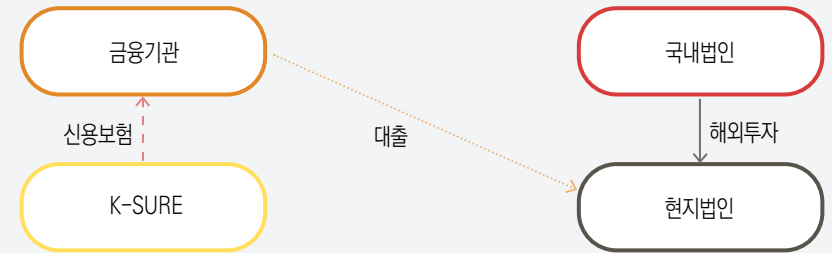
-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채권 회수 서비스

○ 해외사업 금융 보험

• 제도 개요 및 상품 특성

-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상품 구조



\* 출처: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 대상거래

- 적용대상 해외사업 내국법인 등이 아래의 계약(이하 '해외사업관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여하는 해외사업

- \*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지분취득 계약(지분 10% 이상)
- \* 해외사업관련 원재료 공급계약
- \* 해외사업관련 생산물 구매계약
- \* 해외사업관련 운영 및 관리계약
- \* 기타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 효과가 예상되는 해외사업관련 계약

- 적용대상 금융거래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을 상대로 체결한 상환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금융계약

- 담보위험

구분	내용
신용위험	차주위험, 파산, 지급불능, 채무불이행
비상위험	※차입국 위험 모라토리움, 채무감면협정체결, 송금지연, 상환의무 종결 법률채택 전쟁, 내란, 수용, 혁명, 소요, 파업, 태풍 등 불가항력 사태

## ■ 수은은 ‘특별계정 프로그램’, 무보는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기업의 저신용국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을 추진 중임

- **특별계정 프로그램** 특별계정은 국가신용도 B+ 이하인 저신용국에 인프라 사업수주를 지원하는 계정인데, 1단계 1조원 집행에 더해 추가 1조원 재원 확대 운용방안 마련('21.3월)
- **국가개발 프로젝트** 무보는 전후 재건, 경제성장 등으로 국가개발 수요는 많지만, 높은 국가위험으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고위험, 저개발국 사업에 대해 8,000억원까지 무역보험을 특별지원
- **사례**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건설사업에 3억 7,500만불 (4,400억원)의 수출 금융 제공
- 무보는 입찰 초기부터 국내기업 참여를 조건으로 발주처에 금융지원 의사를 표명하며 국내기업이 입찰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금융경쟁력을 뒷받침함
- 자금 조달을 위해 무보와 함께 수은 등 국내외 수출신용기관(ECA)과 다수의 글로벌 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주단이 구성되었음
- 무보가 발급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실행하는 대출금은 국내기업들의 기자재 수출 및 공사 관련 대금 결제에 사용되었음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

전화 1588-3884

## 나. 해외기관(주요 MDB)

### ■ MDB 주도형 사업

MDB가 직접 주도하거나 MDB의 지원으로 수원국이 계획하여 주도한 사업 유형

- \* 입찰을 통한 일반적인 정부조달의 MDB 사업을 의미하며, 차관(Loan), 공여(Grant), 자본(Equity) 투자,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등의 형태로 사업 수행

### ■ 민관협력사업(PPP)과 MDB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사업의 쏠과정을 담당

- \* 수원국 정부의 의지가 분명한 사업 발굴 중요

## 1)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

### ■ 개요

- 전세계 빈곤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임
- 세계은행그룹은 투자 성격에 따라 5개 기구 -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 로 구성됨
- 이 그룹의 주요 자금 지원 기관인 IBRD와 IFC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저금리 자금조달과 회원국의 납입자본금을 재원으로 대출, 보증 등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 지원

■ 세계은행그룹 자금지원 기관별 역할

기관	IBRD	IDA	IFC	MIGA
역할	개발도상국 및 신용도가 높은 저소득국가 자금 지원	저소득 개발도상국 양허성 자금 지원	개발도상국 민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개도국 직접투자의 비상업적 위험(수용, 계약위반, 전쟁, 정치적 위험 등) 보증
자금지원 원칙	경제적 목적을 전제로 차입자 상환능력 요구	저개발지역 회원국 발전, 민간-IBRD 지원 대상 배제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 시 경영권 미취득	투기등급(BB이하) 국가에 대한 보증 지원 가능
사업 분야	융자, 보증, 자문	무이자저리 융자, 무상공여, 외채경감	대출, 지분투자, 보증, Loan Mobilization, 자산관리회사	지분투자(90%) 및 대출(95%수준)에 대한 보증

\* 자료: IBRD, IDA, IFC, MIGA

■ 사업 절차 안내

IBRD·IDA 차관 사업

절차	내용
① 사업 발굴	WB 또는 수원국이 사업을 제안하는 단계로, 대부분 수원국에 대한 WB의 국가전략*에서 구체화된 사업 도출 *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CPF) 및 Systemic Country Diagnostic(SCD)
② 준비	WB와 수원국이 타당성조사, 계획분석,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발주)하여 사업을 세부계획*으로 구체화 *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가 담긴 Project Information Document(PID)가 공개됨
③ 심의	WB가 사업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술·제도·경제·자원조달의 4가지 측면*에서 사업제안서를 검토·평가 * 조달절차규정 및 공사재화·용역·장비 사양과 금융조달계획 검토 → 차관승인 즉시 Project Appraisal Document(PAD)가 공개됨
④ 협상 및 이상회 승인	WB-수원국간 차관협상*을 거친 문서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고, 승인 이후 양측 차관계약 체결 *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행계획, 일정, 지원조건 등에 합의
⑤ 집행 및 감독	수원국은 사업수행을 위한 재화·용역을 조달*하고, WB는 규정·절차 준수 여부, 진행과정 등을 감독 * 재화·용역 등의 조달은 일반적으로 국제경쟁입찰(ICB)을 통해 이루어짐
⑥ 사후 평가	WB는 사업완료 후 목표의 효율적·효과적 달성여부 검토(Independent Evaluation부서에서 수행하여 이사회 제출)

\* 자료: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 이하 동일

WB-EDCF 협조융자 사업

절차	내용
① 사업 발굴	WB-EDCF간 정례협의 또는 수시협의를 통해, 자체 발굴한 후보사업*을 교환·검토 후 협조융자 추진에 합의 * EDCF는 수원국 차관 신청 → 양측 정책협의를 통해 후보사업 리스트 결정
② 승인	WB, EDCF(수은) 사업 심사 후, 협조융자 사업범위 중 EDCF 지원영역에 대한 차관지원 승인 (기획재정부)
③ 집행·관리	Joint 협조융자 사업의 경우 WB가 집행·관리, Parallel 사업의 경우 각자 집행·관리

신탁기금 사업

절차	내용
① 사업 발굴	기금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WB 기금별 담당부서에서 사업공모(연1~2회)를 실시하거나, 연중 수시로 자체 사업 발굴 * 연간 1,000만불 이상의 사업을 승인하는 한-WB 협력기금, 녹색성장기금은 분야지역·사업유형 등 우리 우선순위를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매년 개정)
② 심의	WB 내부심사를 거친 사업목록·제안서를 기획재정부 제출 → 수은 1차 검토 → 기획재정부 검토(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 검토기준: 기금목적 부합성, 사회·경제적 효과, 우리 기업인력 참여 등
③ 승인	기획재정부 검토 후 WB측에 최종승인 결과 통보
④ 수행	WB 내부의 최종 사업제안서 승인과정을 거친 후 각 사업담당자(Task Team Leader) 책임 하에 사업 수행
⑤ 평가	WB 기금/사업담당부서에서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사업별 진행상황·성과 등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발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공동 컨설팅 사업

절차	내용
① 사업 발굴	기획재정부-WB간 공동컨설팅 사업을 위한 MOU 체결 후 정책협의(기획재정부, 수은, MDB, 수원국)를 통해 매년 협력과제 선정
② 준비	기획재정부-WB 협의 하에 사업별 과업명세서를 확정하고, 사업수행기관(수은)은 경쟁입찰을 통해 컨설턴트 선정
③ 승인	현지 의견 토대로 연구계획 수립 → 중간·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제출(필요시 사후평가)

문의처

세계은행그룹 본부  
 홈페이지 [www.worldbank.org/en/home](http://www.worldbank.org/en/home)  
 전 화 +1-202-473-1000  
 세계은행그룹 한국 사무소  
 홈페이지 [www.worldbank.org/korea](http://www.worldbank.org/korea)  
 전 화 032-713-7000

## 2)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신탁기금 사업	
절차	내용
동아시아	중국, 몽골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서아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오세아니아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미크로네시아 내),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 ■ 개요

- 1966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 차관(Loan) 제공, 보조금(Grant) 지급, 에퀴티(Equity) 투자,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등의 형태로 지원

### ■ 사업 절차 안내

ADB-EDCF 협조용자 사업	
절차	내용
① 사업 발굴	ADB-EDCF간 정책협의를 통해, 후보사업*을 교환-검토 후 협조용자 추진에 합의 * EDCF의 경우 수원국의 차관 신청을 받아 양국간 EDCF 정책협의를 통해 후보사업 리스트를 결정
② 준비	ADB, EDCF(수은) 사업 심사 후, 협조용자 사업범위 중 EDCF 지원영역에 대한 EDCF차관지원 승인(기재부)
③ 승인	ADB, EDCF 각자 집행관리

### 신탁기금 사업

절차	내용
① 사업 발굴	수원국 또는 ADB가 신탁기금의 성격 및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한 후 내부승인절차를 거쳐 사업제안서 작성
② 승인 요청	ADB는 아국 기금관리부서를 통해 사업제안서 제출 후 승인요청
③ 사업 검토 및 승인	기획재정부는 내부심사(국제개발사업심의회)를 거쳐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ADB에 통보
④ 사업 이행	사업지원이 결정되면 ADB 내부 절차에 따라 컨설턴트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사업 이행

문의처 아시아개발은행 본부  
 홈페이지 [www.adb.org](http://www.adb.org)  
 전 화 +63-2-8632-4444



### 3)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IDB 지원 대상국	
구분	국가
북아메리카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 개요

- 1959년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 및 중남미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한국 등 공여국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설립 됨
- IDB는 경제개발 사업, 경제개혁 등에 대한 융자 및 기술지원을 제공 함

#### ■ 사업 절차 안내

신탁기금 사업	
절차	내용
① 사업 발굴	수원국 또는 IDB가 신탁기금 성격 및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양측 협의 및 내부승인절차를 거쳐 IDB는 사업제안서를 작성
② 승인 요청	IDB는 기재부에 사업제안서 제출 및 승인요청
③ 사업 검토 및 승인	기재부는 내부심사(국제개발사업심의회)를 거쳐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IDB에 통보
④ 사업 이행	사업지원이 결정되면 IDB 내부 절차에 따라 컨설턴트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사업 이행

####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공동 컨설팅 사업

절차	내용
① 사업 발굴	기재부와 MDB가 공동컨설팅 사업수행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정책협의(기재부, 수은, MDB, 수원국)를 하여 해당연도의 Action Plan을 수립(기재부)
② 사업 준비	수은과 IDB가 논의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과업명세서 (ToR)을 확정하고, 수은은 경쟁입찰을 통해 개별사업에 대한 KSP 컨설턴트를 선정
③ 사업 수행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를 작성·제출 → Inception Mission*실시 →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보고회 실시 → 사업진행모니터링 보고서(PPMR) 작성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회 실시 * 현지자료 수집 및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해, 주요 이슈,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사업의 파급효과, 장애요인 등을 분석
④ 완료·평가	사업완료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를 작성·기재부에 제출하고, 필요시 사후평가 실시

#### 차관 사업

절차	내용
① 사업 준비*	프로젝트 제안서(Project Profile)를 작성해 IDB 이사회 승인을 받기 직전까지 총 6단계에 걸친 승인절차
② 이사회 승인	이사회에서 승인시 차관 국가에서 신청서(Loan Proposal) 서명
③ 수행	프로젝트 이행과 함께 'Loan Results Report', 'Progress Monitoring Report'를 통한 시기별 모니터링 실시
④ 완료 및 보고	'Project Completion Report(최종보고서)'를 통한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물과 향후 이행될 프로젝트들의 개선을 위한 과제 분석

#### \* 차관 사업 준비

1. IDB와 수원국 정부 간 프로젝트 제안서(Project Profile) 작성
2. 제안서 심사를 위한 적성성 심사(Eligibility Review Meeting) 개최
3. ERM 승인 후, Proposals for Operations Development 작성
4. Quality and Risk Review를 통한 POD 심사
5. Operations Policy Committee 심사용 Draft Loan Proposal 작성
6. OPC 승인 완료시, 프로젝트 최종 승인을 위한 이사회 회부
  - Project Profile : 가장 기초적인 정보(프로젝트 목적과 추진방안, 기대효과, 아젠다, 기술적 접근, 외부 컨설팅 F/S 보고 서와 소요예산 등) 포함
  - Eligibility Review Meeting : 수원국 지원 전략과의 일치여부 심사 및 프로젝트 스케줄 및 투입자원에 대한 승인
  - Proposals for Operations Development :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 투입자원, time table을 구체화하여, Development Effectiveness, Monitoring & Evaluation Plan, Economic Rate of Return 등을 포함

#### IDB-EDCF 협조용자 퍼실리티(KIF: Korea Infrastructure Facility)

절차	내용
① 사업 발굴 및 사업 심사	초기에 차관사업을 발굴하고 이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과정은 IDB에서 진행
② 신청	IDB에서 同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KIF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재부에 제출
③ 사업검토 및 지원 결정	기재부는 내부심사(국제개발사업심의회)를 거쳐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IDB에 통보
④ 사업이행	개별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와의 협정 및 차관 공여계약 체결, 자금지출 및 운용 등 이후 절차는 IDB가 진행

문의처 **미주개발은행 본부**  
 홈페이지 [www.iadb.org](http://www.iadb.org)  
 전 화 +1-202-623-1000

#### 4)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AfDB 지원 대상국	
절차	내용
북아메리카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리셔스, 모로코, 튀니지
서아프리카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동아프리카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세이셸,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적도 기니, 가봉
남아프리카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상투메 프린시페

#### ■ 개요

- 1966년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안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임
- AfDB는 주로 가맹국간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 용자, 개발계획의 작성, 개발자금의 조달, 정부·민간자본의 도입촉진, 기술원조·공여 등의 업무 수행

#### ■ 사업 절차

협조용자 사업	
절차	내용
① 발굴	AfDB-EDCF간 정책협의를 통해, 후보사업*을 교환·검토 후 협조용자 추진에 합의 * EDCF의 경우 수원국의 차관 신청을 받아 양국간 EDCF 정책협의를 통해 후보사업 리스트를 결정
② 승인	AfDB, EDCF(수은) 사업 심사 후, 협조용자 사업범위 중 EDCF 지원영역에 대한 차관지원 승인(기재부)
③ 집행·관리	AfDB, EDCF 각자 집행·관리

#### 기술협력 사업

절차	내용
① 사업 발굴	AfDB 및 수원국이 기금의 성격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리스트를 제안하고, 수은 및 기재부가 사전에 선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별하여 숏리스트를 작성
② 심의	사업 숏리스트는 KOAFEC 자문단 연례협의 및 장관 회의를 거쳐 액션플랜 내 사업 후보군으로 확정
③ 승인	AfDB는 후보 사업들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수은 및 기재부가 검토후 사업을 최종 승인
④ 수행	최종 승인 후 AfDB가 내부절차를 거쳐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
⑤ 평가	사업집행결과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연차보고서,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를 통해 제출

#### 투자 사업

절차	내용
① 발굴	지역사무소가 역내 수원국들과 함께 중장기적 개발전략 및 운영프로그램을 담은 국가전략보고서(Country Strategy Paper)를 작성
② 준비	우선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각 국가의 CSP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AfDB는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고 수원국은 수행기관을 선정
③ 심의	컨설턴트, 수원국 정부 등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경제적 측면,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수행기관은 차관협상 전에 조달계획(Procurement Plan)을 은행에 제출
④ 승인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 및 차관 협상을 개시하고, 협의 완료 후 용자제안서의 이사회 제출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조달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정보 공고
⑤ 수행	조달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 등 프로젝트 실행은 기 선정된 수행기관이 담당하나, AfDB도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수원국에 파견하는 등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감독함
⑥ 평가	일반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를, 기술지원의 경우 기술지원 완료 보고서를 프로젝트 완료 후 12~24개월 내에 작성하여야 함

문의처 아프리카개발은행 본부  
홈페이지 [www.afdb.org](http://www.afdb.org)  
전화 +225-27-20-263-900

### 5)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EBRD 지원 대상국	
절차	내용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유럽 및 발트 3국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지중해 남동	키프로스, 그리스,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 서안지역 및 가자
동유럽 및 코카서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동 유럽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터키

#### ■ 개요

- 민주화 개혁 후 경제개발을 시작한 소련 및 동유럽권의 경제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기관임
- 주로 舊 동구권 국가의 시장경제체제전환 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과 기술지원 개발계획 수립·진행 및 체제전환 자문 사업 수행

#### ■ 사업 절차

IDB-EDCF 협조융자 퍼실리티(KIF: Korea Infrastructure Facility)

절차	내용
① 사업 발굴	수원국 또는 EBRD가 신탁기금의 성격 및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한 후 내부승인절차를 거쳐 사업제안서 작성
② 승인요청	EBRD는 아국 이사실을 통해 사업제안서 제출 후 승인요청
③ 사업검토 및 승인	기획재정부는 내부심사(국제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EBRD에 통보
④ 사업이행	사업지원이 결정되면 EBRD 내부 절차에 따라 컨설턴트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사업 이행

**문의처** 유럽부흥개발은행 본부  
 홈페이지 [www.ebrd.com/home](http://www.ebrd.com/home)  
 전 화 +44-0207-338-6000

### 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AIIB 사업 진출국 ('21.7.8 기준)

절차	내용
서남아시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요르단, 몰디브, 오만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동유럽	벨라루스, 러시아, 터키
기타 지역	쿡 제도, 피지, 에콰도르, 이집트, 르완다

#### ■ 개요

- 아시아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2016년 출범한 국제금융기구임
- AIIB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교통, 수자원 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며 투·융자 제공

AIIB 조달 사업

절차	내용
① 사업 발굴	AIIB 섹터별 전략(Sector Strategy) 및 투자계획 등에 따라 수원국이 사업수행전략서(Project Delivery Strategy, PDS)를 제출
② 심사	AIIB는 Concept 단계에서 투자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지원가능사업 목록(proposed projects)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목록 중 2-3차 투자위원회 심사 및 경영진 승인을 거친 사업의 요약서(Project Document Summary)를 이사회에 회람
③ 승인(이사회)	분기별 이사회에서 회원국 총 투표권의 3 이상 이 동의하면 투자사업을 승인(홈페이지 게시)
④ 수행	수원국은 사업수행을 위한 재화용역을 조달하고 AIIB는 규정절차 준수 여부, 진행과정 등을 감독 재화용역 등의 조달은 일반적으로 국제경쟁입찰(ICB)을 통해 이루어지나, 국제경쟁입찰 이외 방식도 PDS에 사용사유를 명시하고 AIIB가 사전승인하면 가능
⑤ 평가	이사회에 기승인된 투자사업에 대해 리스크 관리부서는 분기별로 모니터링(Investment Operations Quarterly Monitoring)하여 보고

자료: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

**문의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본부  
 홈페이지 [www.aiib.org/en/index.html](http://www.aiib.org/en/index.html)  
 전 화 +86-10-8358-0000

## 2 필수 용어집

### A

#### Acceleration cost

돌관(철야 작업을 하며 단기간에 마치는 공사) 작업 비용, 공기단축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으로 발주자가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수행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Acceptance Criteria

인수기준, 공사수행 산출물(결과물)의 인수전에 달성해야 할 주요 성과 및 요구조건을 담은 기준(Those criteria, including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essential conditions, which must be met before work deliverables are accepted)

#### Ad Valorem Contract

공사비 비례 계약(According to the Contract price)

#### ADB(Asian Development Bank)

ADB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지역의 포괄적인 경제성장,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보증, 기술 지원,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debt & equity financing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단계에서의 컨설팅도 수행

#### Agent

대리인, 중개인(사우디의 경우 외국시공자가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Agent를 고용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5% 이내에서 Agent fee를 지불)

####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AII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구축 지원을 목적

으로 한 다자개발은행으로 중앙아시아 전역의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송배 전시설 및 통신망 사업과 동남아시아 및 중동의 해양 노선에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보증을 제공

#### Alternative Investments(대체투자)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로 대체투자라고 하며 전통적 대체투자자산으로 부동산, 민자 SOC, 원자재, 사모펀드가 있고 비전통적 대체투자자산으로는 헤지펀드, 선박 및 항공금융/리스 등이 있음

#### AP(Availability payment)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성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요와 관계없이 정해진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민간사업자가 책임지고 운영하며, 정부는 해당 사업 운영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지급금이 가변적

#### Artificial obstruction

인위적 방해(장애), FIDIC이나 ICE 등에서의 공기연장 사유 중의 하나이며, 계약의 이행이 인위적인 방해로 인하여 그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B

#### Back charge

발주처 입장에서 Contractor가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임의 선정한 다른 Contractor에게 해당 일을 수행케 하고, 거기에 투입된 비용을 당초의 Contractor에게 부담 시키는 조치

#### Back to Back

계약이 Prime Contract(주 계약) 및 Sub contract(하청 계약)으로 이뤄졌을 때 Sub contract의 내용 또한 Prime contract의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에 따라 해석 한다는 조건을 의미

**Basic Engineering**

기본설계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해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비교, 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제시하는 설계업무

**Bid bond**

입찰보증, 입찰자의 입찰 취소, 낙찰 후 계약거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입찰자에게 요구하는 담보 보증

**Bill of quantity**

수량 산출서라고 하며 자재, 장비의 세부적 분석과 목록으로 물량조사서 / 물량명세서{BOM(Bill of Materials)} 이라고도 함

**BLT**

Build-Lease-Transfer, 사업 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주무관청에 리스하고, 리스기간 종료 후 에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게 양도하는 방식

**Bona fide bidder**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입찰은 아래와 같은 입찰이라 할 수 있는데 ① Bid requirements에 부합되고, ②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확인 되고, ③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된 입찰로 이를 Bona fide bid, 그 입찰자를 Bona fide bidder라고 함

**BOO(Build-Own-Operate)**

사업 시행자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인프라 시설이나 공공서비스 관련 설비를 건설토록 하고, 일정기간(concession period)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건설비용을 회

수토록 하며, concession종료 후 관련 시설을 정부 등 공공부문에 무상으로 양도토록 하는 사업방식

**C****CAF(중남미 개발은행)**

안데스지역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지속적 개발지원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Cardinal Change**

계약범위(공급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으로 이러한 계약변경 지시가 있는 경우 시공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

**Change Order**

공사 범위의 증감, 변경, 수정 등의 조정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포함한 추가공사 요청서

**Claim**

계약자가 공기 연장이나 추가 비용을 요청하는 청구서

**Closed Specification**

특정 제품의 규격이나 공법 특별히 규정한 시방서로 대체 사양이나 공법을 허용하지 않음

**Commissioning**

시운전이라고 하며 공사 후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목적물 전반에 걸쳐 시운전과 정해진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Conceptual Design**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맞춰 입찰 단계에서 Site layout, General arrangements, Plot plan 등과 같은 잠정적인 도면으로 제시하는 수준의 설계



### Converted Lump Sum Turn-Key

LSTK와 비교하여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Cost plus fee 계약형태를 유지하다가 엔지니어링 70~80% 단계에서 Contingency가 낮아지면 LSTK(Lump Sum Turn-Key)로 계약형태를 변경하는 계약

### Corporate Financing

모기업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Cost Plus Fixed Fee

수수료가산 원가계약이라고 하며 정당한 청구원가와 합의된 원가대비 비율(%)에 따라 계산된 비율을 지불하는 일종의 실비정산계약

## D

### Detail Engineering

공사 및 구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 장치, 배관, 전기, 계량, 토목, 건축, 구조 등에 대한 상세설계

### Developer

프로젝트 발굴에서부터 건설, 운영, 관리까지 전체를 리드하는 Total Solution 제공 사업자

### DFI(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선진국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돈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할당하는 금융 기관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보증, 대출 및 지분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개발을 장려하고 수익성 있는 투자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조 기관과 다름)

### Drawing

Engineer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도면, 계산서 및 기술정보,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것들을 의미(일반적으로 도면을 말함)

## E

###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이라고 하며 중앙 유럽에서 중앙아시아, 서부 발칸 반도, 키프로스 및 그리스를 포함한 남동부 지중해에 이르는 38개국을 대상으로 투자 및 대출과 보증을 제공하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중점으로 투자하고 필요한 기술 자문을 제공, 사업 분야는 농업, 인프라 및 운송업 등 다양함

### ECA(Export Credit Agency)

수출신용기관이라고 하며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책적 차원의 대외거래관련 대출, 보증 또는 보증을 제공(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고 하며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저소득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정책기금을 말하며 장기 저리의 구속성 원조자금으로 상업성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EDPF(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경험증진자금이라고 하며 제한된 재정 하에서 신시장 개척,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 증가 등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정부재정 외에 시장차입 재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EDCF와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금융수단으로 비구속성, 금리는 1~3% 수준(상업성 있는 사업 가능)

### EIB(European Investment Bank)

유럽 투자은행이라고 하며 지역 내의 경제적 격차 해소, 균형발전 등을 위해 원조와 대부 사업을 목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으로 시작된 유럽연합의 금융기관

###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협력국의 경제 성장과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및 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력 분

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발전 전략 수립, 관련 인프라 사업 및 소요 자원 조달 등 자문을 3년 이상 집중·종합적으로 제공(심층 자문)하는 KSP의 新사업 모델

### **EoI(Expression of Interest)**

발주자가 자격을 갖춘 입찰자들에게 입찰에 참여하도록 발행하는 의향서

###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앞 글자를 딴 말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을 계약한 사업자가 설계부터 부품·소재 조달, 시공, 시운전, 인도까지 일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모두 책임지고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준다는 의미로 '턴키Turn-Key'라고 부르는 일괄수주 방식과 같은 의미

### **Equity**

지분 또는 자기자본을 의미하며 PPP사업은 일반적으로 자기자본(Equity) 20~30%와 타인자본(Debt financing) 70~80%로 이뤄지며 이 자기자본 중 일부를 KIND가 맡고 나머지는 다른 공기업, 건설사, 금융회사 등의 투자자로 구성

### **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투자자관점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환경은 기후변화 영향,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제품 개발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며 사회의 경우 인적 자원 관리, 산업안전, 하도급 거래,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공정경쟁 등이 있음. 지배구조는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배당과 같은 요소가 해당됨

## **F**

### **F/A(Framework Agreement)**

기본여신약정이라고 하며 주요 발주처 앞으로 신용도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출한도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개별수출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

### **FIT(Feed in tariff)**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 **Final Acceptance**

최종인수라고 하며 이 때 발급되는 확인서를 Certificate for final acceptance, 또는 Maintenance Certificate, Defects Liability Certificate 등으로 불림

### **Final Payment Certificate**

최종 공사대금 확인서

### **Firm Fixed Price Contract**

계약의 한 형태로 발주처가 Contractor의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계약서에 명시된) 고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

### **Force Majeure**

전쟁,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시공자의 관리가능 범위를 벗어난 파업 등 불가항력 사항(싱가포르 등 코로나19를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국가별로 상이)

### **F/S(Feasibility Study)**

타당성조사라고 하며 Business justification/Business case와 같은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기술성(Technical)과 상업성(commercial)으로 나누어 검토

### **Fund**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운용기관인 자산운용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되돌

려주는 금융상품으로 수수료 등으로 인해 직접투자에 비해 거래비용이 크고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함(투자자가 운영에 관여할 수 없음)

## G

### General Contractor

주계약자, 원청자로 Prime Contractor 또는 Main Contractor라 부르기도 함

### Guaranteed Maximum Cost

Cost plus fee 계약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간 설정한 최대 공사비

### Guarantee

Bond, Security와 함께 건설계약에서의 보증을 의미

- ▶ Bank guarantee: 은행보증, 은행이 지급을 보증함
- ▶ Initial guarantee: 입찰보증
- ▶ Parent company guarantee: 모회사, 지주회사 보증
- ▶ Payment guarantee: 지급보증, 발주자의 대가지급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보증
- ▶ Plant capacity guarantee: 설비 생산량 보증, 구입한 설비가 계약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
- ▶ Syndicated guarantee: 다수의 기관에 의한 보증
- ▶ Utility consumption guarantee: 부대설비 소모량 보증
- ▶ Guarantee for defects: 하자보증, 하자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보수, 보강할 것을 보증
- ▶ Guarantee for retention money: 유보금 보증

※ 프로젝트 성격과 차주 신용도에 따라 상이한 보증수수료 존재

## H

### Hazop Study

Hazard & Operability Study의 약어로 위험요인 및 운전성 검토를 지칭

### Host site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혹은 그 사무실

## I

###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이라고 하며 중남미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사회 개발과 역내 자유무역 및 지역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협력 지원 및 차관을 제공하는 미주 지역 최대 지역개발 금융기구

###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World Bank조직의 하나인IFC는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투자, 자문 및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금융 기관으로 다양한 debt & equity financing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단계에서의 컨설팅도 수행

### Initial Hand-over

Provisional/Temporary/Preliminary/Preparatory Hand Over 모두 같이 혼용되며, Substantial Completion 후 발주자에게 현장을 인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약 6개월 정도의 하자보수 후의 이 행위는 Final Hand-over가 됨

### IPP(Independent Power Project/Producer)

민간발전사업자라고 하며 Independent Water & Power Project / Producer는 민간담수발전사업자라고 함

## K

### K-City Network

국토교통부가 주도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기 위한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지원체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컨설팅 방식의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

**L****LIBOR**

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런던은행간 거래금리)의 약자이며, 국제 금융거래의 기준

**LoA(Letter of Acceptance)**

발주자가 입찰 참가자한테 해당 입찰이 공식적으로 승낙되었음을 통지하는 서신

**Lol(Letter of Intent)**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도급 자에게 계약 전에, 공사의 사전 준비 등을 위해 발행하는 의향서로서, 내용에 특별조항이 없는 한이 의향서의 발급에 따른 법적 구속력은 없음

**Lost time injury**

근로손실이 발생하는 안전사고(24시간 내 작업 복귀가 불가능한 사고)

**Lowest Qualified Bidder**

Examination of Bids(입찰평가) 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는 최저입찰자(Lowest Bidder)로 Lowest Bidder 라고 하여 반드시 Lowest Qualified Bidder 인 것은 아님에 주의

**Lump Sum Turnkey Contract**

미리 정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성능이 보장되는 설비를 상업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완공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조건의 계약

**M****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MDB)이라고 하며 경제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써 다수 차입국 또는 개도국과 다수 자원 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참여하는 은행을 말함

**Mezzanine capital(메자닌)**

혼합성/중간 자본으로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메자닌 캐피탈이란 자기자본과 차입금의 중간적인 성격이 있는 재원을 통칭, 후순위대출이나 우선주 등이 이에 해당하며 메자닌 캐피탈은 투자자의 보호 장치로 활용하거나 다양한 투자자금을 끌어 들이기 위해 사용됨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다자간 투자보증기구라고 하며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촉진 및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국제 금융 기관이며 MIGA의 보증은 몰수, 전쟁, 내란 등의 정치적 위험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투자 촉진을 제공

**Milestone Schedule**

주요 이벤트가 표시된 공정표

**Mobilization**

본 공사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의 뜻으로, 대상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Resources(사람, 기자재, 장비, 수용시설 등)에서부터 현장사무소, 각종 통신 시설, 인허가 등 본 공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것을 지칭

**M/P(Master Plan)**

설계 시 검토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주기관, 건설사업 관리단, 시공사 모두가 각자 맡은 업무를 협력하여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라고 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실시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예상수입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또는 주 무관청에서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민간 사업자에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하는 수익형 민자사업방식에 적용됨

**N****NTP(Notice To Proceed)**

Notice To Commencement와 혼용되며, 착공일이 통보되며 그때부터 실제적인 계약기간 개시

**O****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라고 하며 한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리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자금

**Off-Take Contract**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인수량을 생산 전에 계약하는 것으로 발전소나 광산 등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생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다루는 계약(생산물 인수계약)

**O&M(Operation and Maintenance)**

시설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의미하며 플랜트부문에서 운전과 정비를 뜻하기도 함

**ORAT(Operational Readiness and Airport Transfer)**

개항을 위한 시험 운영 및 운영 준비단계로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일하게 공항운영 컨설팅 부문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Owner**

발주자를 의미하며 Employer, Client, Customer, Buyer와 동일

**P****Pay-when-paid rule**

하도급계약에서 원청자는 그의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후에 하도급대가를 하도급자에게 지불한다는 원칙

**Performance Bond**

계약자의 계약이행을 제 3자가 보증 하는 것

**Permanent Work**

계약 하에서 계약자가 수행해야 하는 주 업무

**PF(Project Finance)**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계획, 수익성 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으로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만을 차입금 상환재원으로 보고, 프로젝트의 유/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별도로 설립된 프로젝트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Planning Horizon**

세밀한 계획수립이 예측 가능한 기간(상세한 공정계획이 가능한 기간)

**Plot Plan**

Plant의 기계장치, 배관, 전기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 또는 배치를 표시하는 도면

**PM(Project Management)**

발주처의 권한을 위임받아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계획·설계 및 시공 이후의 운영·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 소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로 CM(Construction Management)은 시공 분야 사업관리 기법으로 PM보다 좁은 범위를 대상으로 함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발주처를 대신해 설계 검토, 시공사·감리사 선정, 기술지원, 시운전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말함

### PQ(Pre-qualification)

입찰이나 제안서 제출을 요구할 때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고도의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일반적으로 입찰 참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 행해짐

### Private Finance Initiative

인프라 등 공공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포괄, 업무 위탁(민자 사업)

### Pre-bid Meeting

입찰공고 후 입찰 전에 잠재적 입찰자와 발주자간에 입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질의 및 응답 등을 통해 검토하는 입찰 준비회의

### Proposal(제안서)

발주처 RFP(제안요청서)에 대응하는 사업계획서 내지는 실행계획서로 제안서 작성시 기본설계 수준의 기술검토, 현지 법령·금융조사 등 많은 비용(50~100억원) 소요

## R

### 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

수출가액에서 수입가액을 뺀 금액, 즉 외화 가득액을 수출가액으로 나눈 비율(외화가득률)

### Release claims

발주자와 계약자 간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로서, 떠나는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일체의 클레임을 걸지 않겠다는 약속

### Retainage

공사계약에서 계약자(하도급자 포함)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실질적으로 준공을 만족시킬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시킨 계약금액의 일부를 말하며 Retention Money도 같은 의미

### Return on Equity

프로젝트에 투자한 자기자본의 현재가치와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배당금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투자자는 ROE가 기대수익률 보다 높을 때 투(자기자본 수익률)

### RFP(Request for Proposal)

Request for Quotation과 같은 의미로서, 계약의 기초를 형성시키기 위한 방법론, 공급의 범위, 그에 대한 보상 일체를 설명하는 공식적인 초청을 말함

## S

### Scope

업무(역무)범위로 건설공사(project)형태로 제공될 제품 및 서비스의 합

### Separate Account(특별계정)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수출입은행은 국가신용도가 낮아(B+이하) 수는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低신용국(초위험국)의 인프라 사업수주 지원(대출 및 보증)을 위한 계정으로 '19~'21년간 1조원 조성

### Short List

최종후보자 명단으로 PQ를 통과한 업체, 혹은 입찰 결과에서 최종 선발된 기업 명단

### Single Fixed Price

공사에 대한 대가를 세분화하지 않고, 변동 없이 고정된 단일 금액(정액 계약)

### Site Preparation

Plot Plan에 명시한 각 도로 및 Process Unit의 Finished Grade Elevation 또는 HPP(High Point Paving) Elevation 각 부의 포장 세목을 근거로 토공 작업에 필요한 도면 및 수량을 작성 후 진행되는 작업(부지조성)

### Specification

통상 Spec으로 줄여 쓰며 공사목적물의 요구사항, 장비의 종류 및 품질, 구성 물의 제조 및 설치, 검사 및 시험 등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을 말함

### Surety Bond

보증기관이 수급자와 연대하여 이행을 보증(보증채권)

### Syndicated Loan

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용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차입자가 특정기관의 참가를 요구하는 경우 클럽 딜(Club Deal)이라 함

## T

### Team Korea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공기업, 민간건설기업, 금융기관 등)에 우리 기업이 복수 이상 참여하는 사업

\* 그간 수주지원단, 해외사업단, 금융지원단 등으로 혼재해서 사용

### Temporary Work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가설공사

### Terms of reference

사업계획서로 프로젝트, 위원회, 회의, 협상 또는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을 함께하기로 합의한 사람들 모임의 목적 및 구조 기술

### Two envelopes system

Price proposal과 Technical proposal을 구분하고,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제출하는 입찰방식

## U

### USIDFC(US Int'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로 자금투자 한도는 600억불로 대출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 민간기업 펀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까지 금융지원(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USIDFC와 유사한 성격의 기관임)

## V

### Vendor

납품업자, 공급자, 기자재 판매자

### VGF(Viability gap funding)

사업성 고양(高揚) 펀드라고 하며 재무타당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관청에서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무상(또는 다른 재정적 수단)으로 지원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정부로부터 최소의 재무적 지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일반적으로 낙찰을 받게 됨)

# 3 해외건설 지원관련 기관정보

## ● 국내기관

### 공기업

기관명	담당 업무	주관 부서	담당 연락처	
			대표 전화	
한국도로공사	해외 도로 인프라 엔지니어링 및 투자형 사업 수주 및 진출	해외사업처	054-811-3811	
			1588-2504	
국가철도공단	해외철도 사업(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관리 등) 및 남북 연결 사업	해외사업처	042-607-3274	
			1588-7270	
한국철도공사	해외철도 운영유지보수사업 및 컨설팅 사업 개발	해외사업처	042-615-3884	
			1544-7788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산업단지 및 스마트시티 개발	글로벌사업처	055-922-4708	
			1600-1004	
인천공항공사	해외공항 개발 및 운영 컨설팅사업	해외사업총괄팀	032-741-2274	
			1577-2600	
한국공항공사	해외공항 건설관리, 해외 공항 컨설팅 및 운영	해외영업부	02-2660-2645	
			1661-2626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해외인프라 개발 및 투자승인사업 사후관리	사업총괄팀	02-6746-7387	
			02-6746-7408	
수자원공사	글로벌 물 분야 투자사업,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아시아 물 위원회(AWC) 사무국 운영	글로벌사업본부	042-629-3402	
			042-629-3114	
한국전력공사	해외발전소 건설, 운영 및 해외 에너지 신사업 개발	해외사업운영처	061-345-5521	
			061-345-3114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 및 ODA/MDB	글로벌사업처	063-713-1312	
			063-713-1000	
한국부동산원	해외부동산 분야 ODA 사업 및 부동산정보화 컨설팅 지원	국제협력부	053-663-8560	
			1644-2828	

### 금융

기관명	담당 업무	주관 부서	담당 연락처	
			대표 전화	
수출입은행	수출입,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등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 제공	인프라금융부	02-6255-5233	
			02-3779-6114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제도 시행	프로젝트금융본부	02-399-5083	
			1588-3884	

### 기타

기관명	담당 업무	주관 부서	담당 연락처	
			대표 전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건설 프로젝트 정보 발굴·전파 및 수주 지원, ODA, KSP 사업 운영	인프라에너지산업팀	02-3460-7484	
			1600-7119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과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구축	기획홍보실	02-3406-1025	
			02-3406-1114	
플랜트산업협회	사업타당성(F/S) 지원, 전문인력 교육, 프로젝트 정보 제공 등	국제협력팀	02-6925-3459	
			02-3452-6616	

## ● 해외인프라협력센터

국가	위치	커버 범위	개소일	주관부서 연락처	
				이메일	
인니	자카르타 Treasury Office Tower 21층	신남방 말련,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2019.5	(0)+62-21-5085-8661	
				sh.lee@kindkorea.or.kr	
베트남	하노이 Hung Vuong Convention Center A동, 2층	신남방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인도	2019.6	(M)+84 90 220 4477	
				changwoo.park@kindkorea.or.kr	
방글라데시	다카 Police Plaza 10층	신남방 방글라데시	2022.3	(M)+88-013-1613-5381 sh.kim@kindkorea.or.kr	
케냐	나이로비 Embankment Plaza 11층	아프리카	2019.7	(0)+254-797-887-067 kim.jh@kindkorea.or.kr	
페루	페루 Calle Arica 125 of.201 Miraflores-Lima, Peru	미주	2012.5	(0)+51-1-446-9547	
				sungjin@icak.or.kr	
UAE	UAE Flat No.204, Airline Building, Lulu St., Abu Dhabi	중동·아프리카	2011.9	(0)+971-2-632-1970	
				buckeyes@icak.or.kr	

### 발행기관 및 문의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해외건설협회 해외정책지원센터  
(임영선 과장 02-3406-1026 / lys0331@iack.or.kr)



초판 발행 2021년 7월  
개정판발행 2023년 3월  
발행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디자인·인쇄 자유기획인쇄(02-2263-0270)